

개념 학습

1강

길 _ 김소월

EBS 수능특강 문학 009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고향을 상실한 채 떠돌아야 하는 나그네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정처 없이 유랑해야 했던 민족의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3음보 율격을 변주하여 방황하는 화자의 비애를 표현하고 있으며, 대화하듯 건네는 말투, 방향성을 상실한 '길'이라는 공간적 배경, 감정 이입이 가능한 소재의 사용 등을 통해 삶의 뿌리를 잃은 화자의 절망과 허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갈림길 한가운데에서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한 채 서 있는 화자의 모습은, 일제 강점기 고난 속에서 주체적 삶의 길을 잃었던 우리 민족의 비애와 좌절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 제 고향을 잃고 방황하는 나그네의 비애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나그네 집은 나그네의 처지인 화자의 외로움, '가왁가왁'이라는 음성 상징어는 떠돌이 신세의 쓸쓸함과 불안감을 드러낸다. 가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소.』

▶ 1연: 방황하는 나그네로서의 화자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불명확한 화자의 상태

▶ 2연: 정처 없이 떠도는 일상의 반복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요.

길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의 처지이지만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은 없다는 화자의 자각

▶ 3연: 갈 곳 없는 화자의 막막함

말 마소 내 집도

정주(定州) 관산(郭山)

평안북도의 지역

차(車)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자신의 고향이 차와 배로 갈 수 있는 곳을 드러낸다. 즉 화자가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은 고향에 가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님을 알 수 있음. 또한 과거에는 집이 있는 고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집을 잃고 고향에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음을 드러낸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저 기러기: 자유롭게 비상하는 기러기와 갈 곳을 잃은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여 방향의 쓸쓸함을 부각함.

공중에 길 있어서 잘 가는가?』

▶ 5연: 기러기에게 길을 묻는 자조적 시선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十字) 복판에 내가 섰소.

『열 십자』는 동서남북의 갈림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명의 갈림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6연: 방향을 상실한 화자의 방황

●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3음보의 전통 율격을 계승하고 있지만 행과 연의 구분과 글자의 배열 등을 통해 다양하게 변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것이 현대시의 리듬을 형성하는 내적 규범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제목이자 핵심 시어인 '길'의 의미를 작품 안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길'의 사전적 의미 속에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화자의 태도를 통해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의 처지와 고향 상실 의식을 확인할 수 있음.

『갈래갈래 갈린 길

『갈래갈래 갈린 길』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지만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운명의 길)은 전혀 없음을 드러내며 절망감.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7연: 아무 길도 선택할 수 없는 절망감

* 바이: 전혀.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핵심 시어 문항 2, 3 관련

길	인생의 여정과 삶의 방향, 민족의 역사적 흐름 비유
나그네	화자 자신이자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일제 강점기 민족의 현실
까마귀	'가왁가왁'은 불길한 소리로 화자의 쓸쓸함과 고독감 등을 드러내는 이미지
기러기	자유롭게 비상하는 '공중에 / 저 기러기'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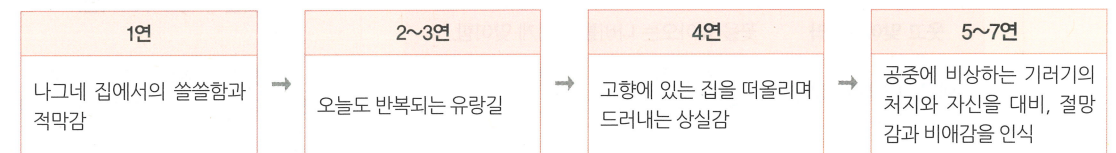
포인트 2 '열 십자 복판'의 의미 문항 3 관련

열 십자 복판

- 화자가 느끼는 운명과 방향의 기로, 삶의 선택 길에서 어떤 선택도 쉽사리 하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
- 방향을 상실한 채 어디로도 갈 수 없다고 느끼는 화자의 상태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길」의 시상 전개



나그네의 처지가 된 유랑민으로서의 화자의 비애감과 절망감은 일제 강점기의 민족적 비애감으로 연결할 수 있음.

■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

이 시는 1925년 시집 『진달래꽃』에 발표된 작품으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정처 없이 유랑해야 했던 민족의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향을 상실한 채 떠돌아야 하는 나그네의 슬픔을 전면에서 드러내어 민족적 애상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방향성을 상실한 '길'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기러기의 처지와 자신을 대비하는 등 삶의 뿌리를 잃은 화자의 절망과 허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갈림길 한가운데에서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한 채 서 있는 화자의 모습은, 일제 강점기 고난 속에서 주체적 삶의 길을 잃었던 우리 민족의 비애와 좌절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념 학습

2강

(가) 고을사저 꽃이여 ~ _ 안민영

EBS 수능특강 문학 013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활짝 피었다가 지고 있는 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소회를 읊은 시조이다. 완전히 피어 있지도 않고 완전히 시들지도 않은 상태의 꽃에 대한 예찬의 어조가 두드러지지만, 모든 꽃은 끝내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 수리이므로 머지않아 완전히 시들게 될 꽃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깔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은 인생에 대한 비유로도 읽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삶의 절정기를 넘어 어느 정도 노화한 나이로 접어든 사람의 인생을 예찬하는 노래가 된다.

주제

지고 있는 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과 안타까움

고을사저 꽃이여 반(半)만 여윈 저 꽃이여
 곱구나 활짝 피었다가 지고 있는 꽃의 모습
 더도 덜도 말고 매양 그만하여 있어
 실현되기 어려운 소망
 춘풍에 향기 쫓는 나비를 웃고 맞이하노라
 계절적 배경 꽃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 초장: 반쯤 시든 꽃의 고운 자태

▶ 중장: 반쯤 시든 꽃이 그대로 있기를 바람.

▶ 종장: 나비를 맞이하는 꽃의 표정

●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이)여’라는 호격 조사를 활용하여 시적 청자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파악해야 함.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화자의 태도 및 정서의 형성 문항 1, 3 관련

이 시에서는 지고 있는 꽃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며, 반 정도 진 꽃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순리대로라면, 지고 있는 꽃은 필연적으로 시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화자는 시적 대상인 꽃의 시들을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을사	곱구나	→	'저 꽃'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예찬적 태도가 드러남.
반만 여윈 저 꽃	활짝 피었다가 반쯤 지고 있는 꽃		
웃고 맞이하노라	꽃을 찾아오는 나비를 반갑게 맞이함.	→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저 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냄.
매양 그만하여 있어	• 반 정도 진 상태를 유지함. •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함.		

포인트 2 꽃과 인간의 유사성

시간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지고 있는 꽃은 노년에 접어든 사람과 유사성을 보이는데, 화자가 '지는 꽃'에 부여한 속성을 통해 '노년에 접어든 사람'의 속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지는 꽃(→ 활짝 핀 꽃)	시간의 흐름	노년에 접어든 사람(→ 젊은이)
• 시들어 가고 있음. • 춘풍에 찾아오는 나비를 웃으며 맞이함.		•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음. • 젊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숙하게 대함.

이런 해석은 '지는 꽃'을 상징으로 접근함으로써 성립된다.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 관념이 모두 나타나는 비유와 달리 원관념 없이 보조 관념만 제시된다. 비유적 표현의 의미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파악할 수 있지만, 상징적 표현은 원관념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 비유적 표현에 비해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 상징은 또한 사회적·문화적으로 공유된 관습을 바탕으로 성립되기도 하고, 작가에 의해 개성적으로 창안되기도 하는데, 이 시조에서 '지는 꽃'을 '늙어 가는 인생'으로 해석하는 것은 후자에 해당한다.

개념 학습

2강

(나) 뽕뽕뽕 우는 소리에 ~ _ 오경화

EBS 수능특강 문학 013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봄을 배경으로 하여 삼대가 어울려 사는 한 가정의 한가롭고도 평화로운 일상을 담담하게 묘사한 시조이다.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낮잠을 즐기고 글을 읽고 배를 짜고 꽃놀이를 하고 술을 거르는 모습을 묘사하는 가운데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한 가정의 평화로운 일상

뽕뽕뽕 우는 소리에 낮잠 깨어 일어나 보니

음성 상징어를 통해 평화로운 분위기를 형상화함.

작은아들 글을 읽고 며느라기 배 짜는데 어린 손자는 꽃놀이한다

평화로운 집안의 모습

매마침 지어미 술 거르며 맛보라고 하더라

'아내'를 객관화한 표현

▶ 초장: 뽕뽕리 울음소리에 낮잠을 깬

▶ 중장: 아들, 며느라, 손자의 평화로운 일상

▶ 종장: 아내가 술을 거르고 맛보기를 권함.

●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청각적 상상을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함.

●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작은아들', '며느라기', '어린 손자', '지어미'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함.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화자의 태도 및 시적 분위기의 형성 문항 1, 3 관련

뽕뽕뽕	뽕뽕리의 울음소리를 표현하는 음성 상징어. 뽕뽕리는 주로 봄철에 운다는 문학적 관습이 있으므로 계절적 배경을 암시하기도 함.
낮잠	• 시간적 배경이 낮임을 드러냄. • 화자의 한가한 일상
술	식량이 떨어지기 쉬운 봄철에 담고 거르는 것으로 보아 생활이 가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음을 알려 줌.

집안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구체화됨.

포인트 2 화자와 청자의 형상화 문항 1, 2 관련

시인은 시 속에 특정한 화자나 청자를 설정하고 시를 이끌어 가기도 한다. 작품 속에서 말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드러날 때, 그 주체를 현상적 혹은 명시적 화자라고 하며, 작품 속에서 화자가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는 상대가 누구인지 드러날 때, 이를 현상적 혹은 명시적 청자라고 한다. 현상적 혹은 명시적 청자는 화자의 명령, 권유, 요청 등의 표현을 통해 그 존재가 드러난다. 화자의 독백으로 일관하는 작품에서는 일반적으로 청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화자를 짐작하게 하는 표현	현상적 화자	청자를 짐작하게 하는 표현	현상적 청자
작은아들, 며느라기, 어린 손자, 지어미	가장(家長)	없음.	드러나지 않음.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뽕뽕뽕 우는 소리에 ~」의 개성

이 작품은 평시조에 비해 작품의 일부가 길다는 점에서 사실시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흔히 해학적, 풍자적 특성을 지닌다고 알려진 사실시조와는 달리, 대상에 대한 과장된 표현도 없고 사실이 강황하게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봄철로 짐작되는 계절을 배경으로 산이 가까운 민가에서 어울려 사는 삼대의 일상이 차분한 어조를 바탕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형식은 사실시조이나 작품 세계는 평시조에 가깝다는 점이 이 작품의 개성이라 할 수 있다.

개념 학습

2강

(다) 농부를 대신하여 읊다 - 이규보

EBS 수능특강 문학 013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농민들을 수탈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지배층에 대한 반감을 비교적 직설적으로 표현한 한시이다. 작가인 이규보는 고려의 무신 집권기에 관직에 진출하여 활약한 사대부로서 민중들의 고난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다. 이 작품은 특히 수탈당하는 농부를 화자로 설정하여 지배층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귀족 계층에 대한 농부의 원망

비 맞으며 논바닥에 엎드려 김매니

흙투성이 험한 꼴이 어찌 사람 모습이라만

설의적 표현을 통해 농부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냄.

왕손 공자들이 더 이상 알보지 마오

둔호법

그대들의 부귀 호사 우리 농부로부터 나오나니

왕손 공자들, 비판의 대상

화자로 농부를 제시하고 있음.

햇곡식은 푸릇푸릇 논밭에서 자라는데

아전들은 벌써부터 조세 거둔다고 성화롭게

비판의 대상

힘써서 경작하여 나라 부유케 한 건 우리들

농부들

어찌 이리도 극성스레 침탈하는가

帶雨鋤禾伏畝中
대우서화복무중
形容醜黑豈人容
형용추흑기인용
王孫公子休輕侮
왕손공자휴경모
富貴豪奢出自農
부귀호사출자농

●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제목과 '우리'라는 시어를 고려하여 시인이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빌리고 있는지 파악해야 함.

▶ 1연: 왕손 공자들이 자신들을 알보는 데 대한 농부의 항변

●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아직 '햇곡식'이어서 수확하기도 어려운데 벌써부터 '조세'를 거둔다고 성화를 부리는 아전들을 원망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함.

新穀靑靑猶在畝
신곡청청유재무
縣胥官吏已徵租
현서관리이징조
力耕富國關吾輩
력경부국관오배
何苦相侵剝及膚
何苦相侵剝及膚
하고상침박급부

●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어찌 ~ -ㄴ가'와 같은 설의적 문장을 통해 사상을 종결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함.

▶ 2연: 때가 되기 전부터 조세를 걷는 데 대한 농부의 항변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화자의 태도 및 시적 분위기의 형성 문항 1, 3 관련

흙투성이 험한 꼴	논에서 험한 일을 하는 농부의 모습 묘사	→	곡식을 가꾸기 위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농부 자신들의 고통을 드러냄.
햇곡식	농부의 노동으로 일군 성과물		
부귀 호사	왕손 공자가 누리는 풍족한 삶	→	아전을 통해 농부를 수탈하는 귀족층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드러냄.
조세	아전이 농부에게 걷는 세금		

포인트 2 화자와 청자의 형상화 문항 1, 2 관련

화자를 집작하게 하는 표현	현상적 화자	청자를 집작하게 하는 표현	현상적 청자
우리 농부, 우리들	농부	왕손 공자들이	왕손 공자들

EBS Q&A

Q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찾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문항 1 관련

A 문항 '1'은 특정 구절이 아닌, 작품 전체에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본격적으로 작품을 읽기 전에 작품 전체에서 표현상 특징에 대해 묻는 문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작품을 읽으면서 두드러진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표현상의 특징이 구현된 작품을 찾아야 하므로 시적 청자를 명시하는 표현, 청각적 심상의 반복, 의문형 어미를 통한 시상 종결이 각 작품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개념 학습

3강

징 소리 - 문순태

EBS 수능특강 문학 016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1970년대 수출 지구를 배경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 현실과 실향민들이 겪는 아픔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단편 소설이다. 칠복은 농촌 출신 빈민을 대표하는 인물로, 댐 개발로 인해 재산과 고향을 잃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다. 모든 것을 상실한 채 마을로 돌아온 칠복은 징을 울리면서 한과 슬픔을 토해 낸다. 그가 울리는 징 소리는 비인간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적 삶의 회복에 대한 염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주제 산업화로 인한 농촌 공동체의 붕괴와 실향민의 한

전체 줄거리 칠복은 낚시꾼들을 방해하며 징을 울리다 종종 매를 맞곤 한다. 마을 사람들은 댐 건설로 호수에 잠겨 버린 방울재를 떠나 매운탕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칠복을 동정하면서도 그를 내쫓으려 한다. 원래 칠복은 일찍 부모를 잃고 외가에서 머슴처럼 살다가, 도시에서 온 순덕과 결혼했다. 순덕은 곧 도시 생활을 원했고, 결국 부부는 광주로 시골셋방에서 어렵게 살아간다. 칠복은 농사 품팔이로 번 돈을 들고 집에 돌아와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후 징을 들고 방황하던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만, 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마을 사람들은 결국 칠복을 버스에 태워 쫓아낸다.

아내를 찾아다니느라고 시골에서 벌어들인 돈마저 모두 깨 먹어 버리고, 얼마 안 남은 산동네 사글셋방값마저

월세를 주고 빌려 쓰는 방

찾아 쓴 칠복이는, 방울재에서 나올 때 나눠 가진 굶물인 징 하나만 들고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 떠돌았다.

칠복이 딸아이를 두고 떠난 아내를 찾다님.

칠복이는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 떠돌면서도 방울재에서 가지고 나온 징을 마치 그의 딸아이만큼이나 애지중지

했으며, 밤에 잠을 잘 때는 그 징을 꼭 베고 잤다. 그런데 그 징을 베고 잘 때마다 이상하게 그 징에서 마치 방울재

징을 통해 수몰된 방울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림.

할미산 너털경이 와르르 허물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또 어찌 들으면 방울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아슬하게 들려오곤 했다.

그때마다 방울재에 살던 시절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칠복이는 징에서 고향 사람들이 그를 오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칠복이 방울재로 돌아온 이유

그 소리를 들은 뒤 딸아이를 업고 꼬박 하루를 걸어 방울재에 닿았다.

▶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 떠돌다가 징을 들고 방울재로 돌아온 칠복

[종락 부분 줄거리] 칠복은 수몰된 방울재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댐 인근으로 와서 징 울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낚시꾼들의 불만을 산다. 이에 낚시꾼들을 상대로 매운탕을 팔며 살아가게 된 방울재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기로 한다.

“강촌 영감님, 부탁입니다유. 지발 쫓아내지마 마셔유. 다시는 궤방 치지 않겠구먼유. 이렇게 빌게유.”

칠복이 방울재 사람들에게 애원하는 내용

징을 울려서 낚시꾼들의 불만을 사는 일

칠복이는 우르르 강촌 영감에게로 달려붙어 어쩔죽지며 팔을 붙들고 애원을 하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비대

발꺾* 빌었다.

이 모습을 본 봉구와 덕칠이, 강촌 영감까지도 목울대에 모닥불이 타오르면서 시율이 시큰시큰했다.

명석달이

울대배나 목청을 이르는 말

눈 언저리

“안 가겠다면 덕석뽀이를 혀서라도 내쫓을 꺼여!”

강촌 영감이 칠복을 강제로라도 마을에서 내보내려 함.

강촌 영감은 담배 연기를 허공에 토해 내며 결연히 말했다.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확고한 마음가짐이나 행동으로

“봉구, 덕칠이, 팔만이 나를 내쫓지 말어. 고향에서 내쫓기면 워디로 갈 것인감. 이보게덜 내 사정 좀 봐줘!”

도무지

칠복이는 무릎을 꿇은 채 친구들의 아랫도리를 두 팔로 덥석 껴안으며 통사정을 했으나, 방울재 친구들은 도시

딱하고 안타까운 형편을 털어놓고 말함.

말이 없었다.

칠복과 동년배인 방울재 사람들도 칠복을 쫓아내겠다고 마음을 굳힘.

칠복이는 소리 내어 울고 싶었으나 이를 응들물고 참아 냈다. 강촌 영감의 말마따나 고향이 없어져 버린 판국에

원래 방울재 사람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수몰되어 버린 상황

고향 사람들 남아 있을 리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칠복이 자신이 참 알 수 없는 일은 때때로 그의 눈에 방울재와 방울재의 옛사람들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가 영락없이 방울재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환각**에 정신을 가늠할 수 없게 된 거였다. 방울재를 삼킨 호수의 물도 거대한 댐도 보이지 않고 낮익은 하늘, 반갑게 맞아 주는 마을 사람들만이 눈에 가득 들어오고, 그럴 때는 정월 대보름날 밤 매귀굿을 할 때처럼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정중정중 춤을 추고 싶어져 징을 찾아 들고 나서는 거였다.

그러다가 온몸이 흠뻑 땀에 젖은 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방울재와 낮익은 사람들은 온데간데없고 호수의 물만이 그를 삼킬 듯 넘실거리고 댐은 더욱 하늘 닿게 높아지는 듯싶었다. ▶ 환각 속에서 방울재의 옛 모습을 보고 징을 울리던 칠복

“자네 정신 말짱하니까 허는 소리네만 좋은 얼굴로 헤어지세. 지발 부탁이니 지금 떠나도록 하여.”

강촌 영감이 불멘소리로, 그러나 약간은 사정 조로 말하고 나서 칠복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키려고 했다.

“넌 아침 떠나라 하고 싶네만. 정은 단칼에 자르는 게이 좋은거.”

칠복이는 아이를 업고 천천히 일어서서 희끄무레한 램프 불빛에 비춰 보이는 침울하게 가라앉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가슴속 깊이깊이 새기며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금방 눈물이 소나기처럼 주르륵 쏟아질 것만 같았다.

“핑 서둘러 나가면 광주 가는 버스를 탈 꺼여!”

강촌 영감이 앞서 술청을 나가며 하는 말이다. 강촌 영감을 따라 칠복이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고, 뒤이어 봉구와 덕칠이, 팔만이 차례로 몸을 움직였다.

봉구네 주막에서 나온 그들은 칠복이를 앞세우고 미루나무가 두 줄로 가지런히 비를 맞고 늘어선 자갈길 구신작로를 향해 어둠 속을 걸었다. 그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칠복이의 등에 업힌 그의 딸아이가 껌룩껌룩 기침을 하자, 바짝 뒤를 따르던 봉구가 잠바를 벗어 덮어씌워 주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호수를 훑고 온 물에 젖은 가을바람에 으스스 몸이 떨렸다.

이따금씩 고속 도로에서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로 녹녹한 어둠의 이 구석 저 구석을 쿡쿡 쭈셔 대며 바람처럼 내달았다. 자동차의 불빛이 길게 어둠을 가를 때마다 칠복이를 앞세우고 걷는 방울재 사람들의 가슴이 마치 충을 맞는 것만큼이나 섬찟섬찟했다.

신작로에 당도해서 조금 기다리자 읍으로 들어가는 현틸뱅이 버스가 왔으며, 그들은 서둘러 차를 세우고 칠복이를 밀어 넣었다.

“정헌 고향 다시는 오지 말어.”

봉구가 천 원짜리 두 장을 칠복이의 호주머니에 푹 쑤셔 넣어 주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칠복이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았으나 부르릉 버스가 굴러가는 바람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버스가 어둠 속에 묻히고 자동차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말없이 돌아섰다.

▶ 칠복을 마을에서 쫓아 보낸 방울재 사람들 한사코 가기 싫다는 칠복이 부녀를 억지로 버스에 태워 쫓아 보낸 그날 밤, 방울재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

●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환각’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해야 함.

환각

- ‘환각’으로 인해 칠복이 징을 들고 춤을 춘.
- 타향을 떠돌던 칠복이 고향에 돌아오면서 방울재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환각’을 겪음.
- ‘환각’에는 반갑게 맞아 주는 마을 사람들이 등장하는 등 방울재 사람들과의 유대에 대한 칠복의 그리움이 투영되어 있음.
- 칠복은 ‘환각’을 겪으며 방울재의 모습을 현재 상태와 다른 옛날의 모습으로 지각함.

었다. 후드득후드득 빗방울이 굵어지고 땅껍질 벗겨 가는 소리가 드세어질 무렵, 봉구는 잠결에 어슴푸레하게 들려오는 징 소리에 퍼뜩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징 소리당가?”

그는 마른기침을 토해 내고 빼그덕 방문을 열어, 송곳 하나 박을 틈

도 없이 짹 들어찬 어둠의 여기저기를 쑤셔여 보았다. 어둠 속 어디선가

딸을 업은 칠복이가 휘주근하게 비에 젖은 채 바보처럼 벌쭈벌쭈 웃으

면서 불쭉 나타날 것만 같았다.

▶ 칠복을 떠나보낸 데 대한 죄책감으로 인한 현상

그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자리에 들어 아내의 툭상스러운 허리를 꼭 껴안고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땅껍질

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사이사이로, 징 소리가 쉬지 않고 큰 항소음처럼 사납고도 구슬프게 들려왔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어찌면 바람 소리와도 같은 그 징 소리는 바로 뒤란의 아가시아 숲계에서 가깝게

들린 것 같다가도 다시 댐 쪽으로 어슴푸레 멀어져 가곤 했다.

“바람 소린지, 징 소린지.”

▶ 칠복을 쫓아낸 뒤 칠복의 징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방울재 사람들

*비대발괄: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간절히 청하여 빌.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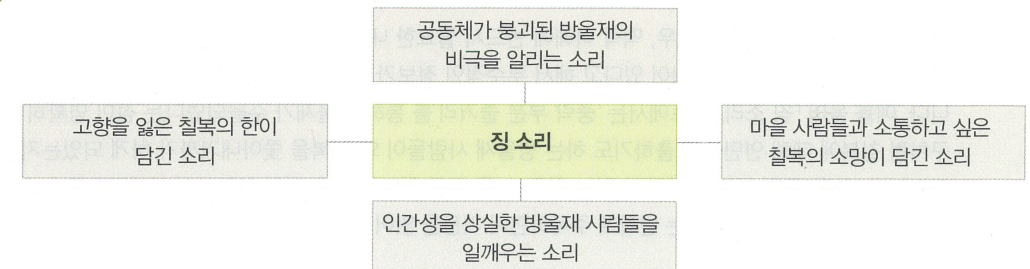
포인트 1 서술상의 특징 문항 3 관련

- 3인칭 전지적 시점을 취함.
- 특히 주인공 칠복의 내면 심리를 치밀하게 묘사함.
- 초점화자를 바꾸어 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부분이 드러남.
- 사투리(전라도 방언)를 통해 토속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전달함.
-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부각함.

포인트 2 인물 간의 관계 문항 1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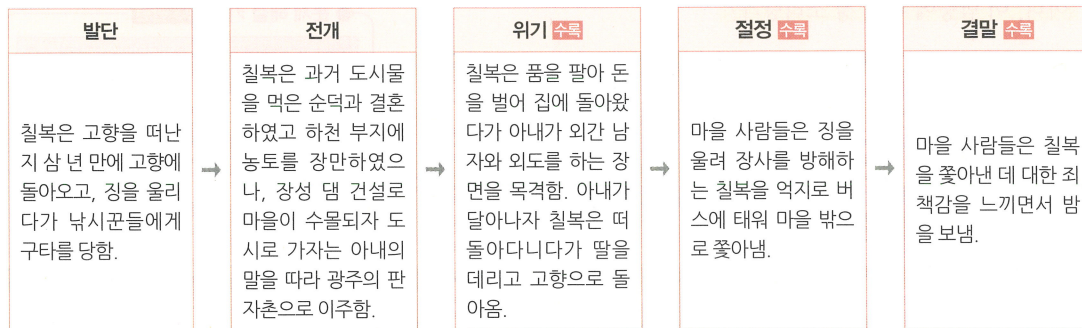
칠복	마을 사람들
• 도시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고서 어린 딸을 데리고 고향에 돌아옴. • 징을 치며 고향의 옛 모습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함.	• 수몰 지구 인근에서 낚시꾼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 감. • 징을 치는 칠복의 행위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자 칠복 부녀를 마을에서 쫓아냄.

포인트 3 ‘징 소리’의 상징적 의미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징 소리'의 내용 구성



■ '징 소리'와 1970년대 국토 개발 사업

「징 소리」의 댐은 1970년대 '경제 성장'이라는 구호 아래 이루어진 산업화와 국토 개발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특히 작품 속 댐의 실제 모델인 장성 댐은 1973년 영산강 유역 개발 사업으로 건설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주민이 강제 이주를 당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국토 개발의 이면에서 민중의 삶이 해체되고 황폐해지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다.

■ '징 소리' 연작

「징 소리」는 1978년 발표되었으며, 「저녁 징 소리」, 「말하는 징 소리」, 「무서운 징 소리」, 「마지막 징 소리」, 「달빛 아래 징 소리」 등과 연작을 이룬다. 이 작품들은 농촌 마을에 살아가던 이들의 삶이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해체되는 모습을 중심 제재로 다루고 있다.

EBS Q&A

Q 지문에 중략된 부분이 있을 경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A 지문에 중략된 부분이 있을 경우, 맥락 이해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중략 부분 줄거리'로 제시됩니다. 중간에 작은 글씨로 삽입되어 있다고 해서 부수적인 정보가 아니니, 주의를 기울여 꼼꼼히 읽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 소리」 세트에서는 '중략 부분 줄거리'를 통해 방울재가 수몰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봉구처럼 칠복에 대해 연민을 표출하기도 하는 방울재 사람들이 왜 칠복을 쫓아내기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략 부분 줄거리'가 없는 경우, 보통 지문 앞뒤의 내용 간의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중략된 내용의 앞뒤에 드러나는 변화에 주목하면서 지문을 읽어 나가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념 학습

4강

임진록_작자 미상

EBS 수능특강 문학 020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조선 시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조선의 정치 상황과 전쟁의 경과를 통해 일반 민중들과 이름난 전쟁 영웅들의 활약상을 보여 주는 역사 소설이다. 지문에는 여러 이본 중 경판본을 수록하였다. 봉당 정치로 인한 어지러운 정치상, 평수길의 조선 정벌 준비와 조선 침범, 이순신의 승리, 명나라 구원병의 참전, 그리고 사령당 등 여러 인물의 활약을 형상화하였다.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하면서도 설화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흥미를 더하는 한편 왜적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였다. 「임진록」 전체가 단일한 서사 구조로 응집되어 있지 않고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다수의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문에 주어진 내용은 평양성 전투에서 기녀 계월향의 도움을 받아 왜장 소서비의 목을 벤 장수였던 김응서에 대한 사실적 기록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한 대목이다.

주 제

왜적의 침입에 대응하는 김응서의 활약

전체 줄거리

왜국에서는 평수길이 태어나고 조선에서는 조헌이 왜란을 예언하나 갑산으로 귀양을 간다. 왜국의 장수들이 조선을 정탐한 데 이어 황윤길 등이 왜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후 곧장 왜국의 침범이 시작되고 조선은 패전을 거듭한다. 선조는 북쪽으로 피신한 채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고, 김응서와 이순신 등의 활약으로 왜군을 격퇴한다. 명나라 장수 이여송의 트집으로 선조는 굴욕을 당하게 되고 이순신은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며, 평수길의 죽음으로 전란이 끝나게 된다. 이후에도 진주성 싸움, 김덕령과 강홍립, 김응서의 활약이 계속되며, 사령당이 왜국으로 건너가 왜왕의 항복을 받는다.

이원익 왈, / “도적이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를 업수이여기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고, 이일을 선봉으로 삼아 고각을 울리며 나아가니, 왜장 평행장이 부장(副將) 종일로 하여금 먼저 싸우라 하니, 종일이 병사를 이끌어 내달아 십여 합을 싸우더니 이일이 패하여 달아나니, 종일이 따라 미치지 못하고 이원익의 진을 치거늘 원익이 대패하여 도망하더니, 문득 한 도사가 원익의 위태함을 보고 소매 안에서 복성화차*를 내어 두르며, 또 백옥 호리병을 공중에서 기울여 피 같은 물을 내어 적진에 뿌리니, 곧바로 도적이 손을 놀리지 못하고 발이 땅에 붙는지라. 이로 인하여 종일이 군사를 다 죽이고 황망히 성안에 들어가 굳이 지키고 나지 아니하는지라. 원익이 패군을 거두어 진을 치고 여러 장수더러 왈, / “종일의 적수를 얻어야 종일을 잡으리라.”

▶ 초월적 존재의 개입으로 인한 적군의 퇴각 종일을 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아군이 필요함. 이원익 스스로 종일의 적수가 될 수 없음을 알아차림. 하더니 문득 한 군사가 왈,

“소인의 동리에 한 양반이 있으니 성명은 김응서라. 용맹이 남다르더니, 일일은 큰 범이 담을 넘어와 개를 물고 도로 넘어가거늘, 응서가 몸을 솟아 범의 꼬리를 잡고 털미를 잡아 땅에 부딪쳐 죽이니, 이는 세상에 드문 장사 이더이다.” / 하니, 원익이 크게 기뻐 왈,

“네 동리가 어디뇨?” / 대답하여 왈,

“용강(龍岡)이라.”

지금의 평안남도 용강군. 현재에도 김응서의 집이 보존되어 있음.

하거늘, 원익이 즉시 용강에 이르러 김응서를 찾아보고, 종일의 용맹을 이르며 가기를 청하니 응서 왈,

“내 재주도 없을 뿐 아니라 이제 부친 상중(喪中)에 있으니 어찌하리오.” / 원익 왈,

능력의 부족과 상황의 곤란함을 들어 출전 제안을 거절함.

“비록 상중이나 방금 국세 위태하니 백성 된 자가 어찌 사사로운 정을 돌아보리오.”

부친이 상중에 있음.

하며 가기를 간청하니, 응서 할 수 없이 영전(靈前)에 통곡하고 평복을 갈아입고 원익을 좇아 진에 이르니, 원익 신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을 모셔 놓은 지리의 앞 상복에서 평상시에 입는 옷으로 환복함. ▶ 김응서의 조선군 진영 합류 이 사랑하며 보감을 주어 연습하라 하더니, 하루는 응서 왈,

“소장이 오늘 밤에 평양성을 넘어 들어가 종일을 베어 오리니 장군은 일지병*을 성외에 매복하였다가 소장의 형

세를 보아 접응하소서.”

순남을 맞아들어 접대함. 여기에서는 자신이 성을 나올 때 맞이하라는 뜻

각 궁궐이나 성의 문을 여닫고 통행인을 검속하던 군인

하고 비수를 끼고 성을 넘어 들어가니 순라군이 줄거늘, 응서 자취 없이 군막을 지나 관문에 다다르니, 주문군 십

조선 시대에, 도둑·화재 따위를 경계하기 위하여 밤에 궁중과 장안 안팎을 순찰하던 군졸

여 인이 큰 칼을 좌우에 세우고 잠이 들었는지라, 응서 칼을 빼어 차례로 베고 문을 넘어가니 관중(關中)에 등축이

응서에게 유리한 상황

휘황하고 인적이 고요한지라, 정히 주저하더니 마침 수청하던 기생이 소피보러 나오다가 응서를 보고 놀라 알,

“어떤 사람이관대 위태한 곳에 들어왔느냐?” / 응서 알,

“나는 이원익의 부장(副將)이러니 이제 적장을 죽이고자 하나니, 너도 조선 사람이라, 나라를 위하여 적장의 동정을 자세히 이르라.” / 그 기생 알,

“종일이 관중에 거쳐하되 사면에 비단 휘장을 드리워 장의 귀마다 방울을 달아 조금 요동하면 방울 소리가 요란

한지라. 이로써 불우지변을 방지하며, 삼경 전에는 귀로 자며 눈으로

보고 삼경 후는 눈으로 자며 귀로 듣고 사경이 되면 귀와 눈을 모두

자고 보지 아니하나니, 이제 천비 먼저 들어가 저의 잠들을 탐지하여

신분이 천한 여자 종을 이르는 말. 여기에서는 기생이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
방울을 숨으로 막고 나오거든 장군이 들어가소서.”

하고 들어가더니 이윽고 나오는지라. 응서 즉시 들어가 보니 종일이 술에 취하고 장창 보검을 좌우 손에 잡고 상

종일이 잠들었음을 확인하고 방울을 숨으로 막아 소리가 안 나게 하였음, 에 누워 자거늘, 응서 급히 칼을 들어 종일의 머리를 한 번 찌고 몸을 날려 들보 위에 앉으니, 종일의 머리 떨어지

며 분기를 발하여 일어서며 잡았던 보검으로 들보를 치니, 응서의 군복 자락이 맞아 떨어지며 종일의 머리와 몸이

상 아래 거꾸러지는지라. | 응서 내려와 종일의 머리를 들고 나오새, 그 기생이 울며 알,

▶ 김응서의 작진 침투와 기생의 조력에 힘입은 적장 차단
“장군이 소첩을 사지(死地)에 두고 가려 하느냐?”

하며 따라오거늘, 응서 불쌍히 여겨 데리고 나오더니, 장중이 자연 시끄러워

순라군이 일시에 불을 들고 창검을 두르며 고향하니, 응서 기생을 보고 알,

“네 손을 죽도록 놓지 말라.”

하고 칼을 두르며 나오더니, 성 밑에 다다라서는 왜장 평의지가 칼을 들고 크게 꾸짖으며 알,

“네 간계(奸計)로 우리 장수를 죽이고 감히 나가고자 하느냐.”

하며 달려들거늘, 응서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응서의 칼이 있는 곳에 도적의 머리 추풍낙엽 같으니, 평의지 당하지

못하여 물러가거늘, 응서 바야흐로 성을 넘으려 할새, 비록 용맹하나 기생을 업고 무수한 도적을 대적하매 기력이

기진한지라. 즉시 전대로 기생의 허리를 매어 성을 넘어가고자 하더니, 평수맹이 달려들어 한칼로 기생을 베고

돈이나 물건을 넣어 허리에 매거나 어깨에 두르기 편하도록 만든 자루, 민중의 무고한 희생
바로 응서를 취하거늘, 응서 대로하여 평수맹을 일 합에 베니 적병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달아나는지라. | 응서 도적

수십을 베고 성을 넘어 나오니, 부장 안일봉이 군을 거느려 매복하였다가 응서를 접응하여 진중으로 돌아와 전말

을 고하니, 원익이 크게 기뻐하여 응서의 공을 치하하고 종일의 머리를 기에 달아 호령하더라.

▶ 김응서의 귀환과 조선군의 사기 고양

*복성화차: 길한 별이 그려진 꽃 비녀.

*일지병: 한 무리의 병사.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편집자적 논평 [문항 1 관련]

고전 소설에서는 이야기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며 인물의 언행이나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한다. 이러한 평가를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데, 당대의 보편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가치 판단이나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독자가 서사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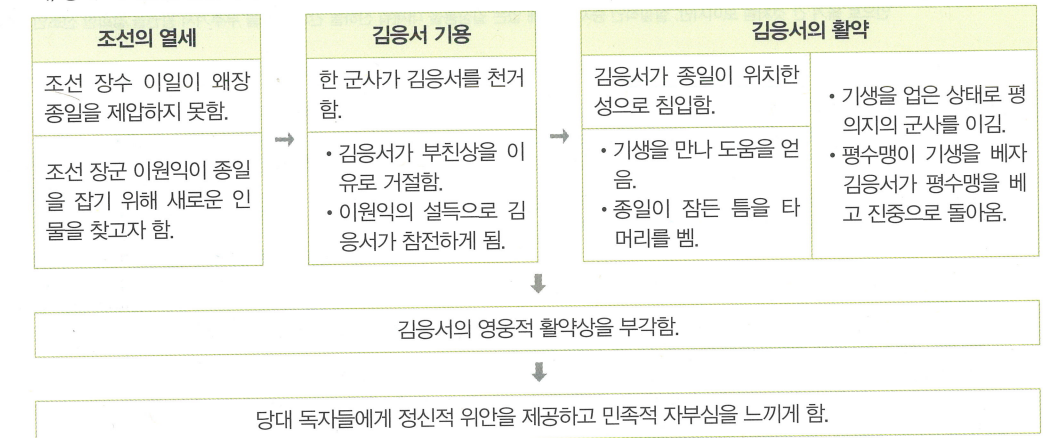
포인트 2 「임진록」의 조력자 [문항 2 관련]

「임진록」에는 주인공이 맞닥뜨리는 전쟁 상황에서의 고난을 극복하도록 돕는 조력자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도술을 부리거나 문제 상황에 핵심적인 지략을 제공하는 등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주인공은 우연한 사건이나 환경적 조건으로 인해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하기도 한다.

조력자	조력 대상	조력 방법		결과
도사	이일, 이원익	복성화차와 백옥 호리병으로 종일의 군사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도술	조선이 종일의 군사들을 죽이고 퇴각한 후 김응서를 찾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짐.
기녀	김응서	종일의 평소 행적과 성격을 알려 줌.	정보 제공	김응서가 종일을 쉽게 처단함.
		종일이 거처하는 방에 설치된 방울을 숨으로 막음.	지략	

포인트 3 「임진록」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 [문항 3 관련]

「임진록」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당시의 민족적 영웅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김응서는 실제 임진왜란의 공신인 김경서 장군의 다른 이름으로, 「임진록」에서는 충의와 용맹을 상징하는 영웅으로 각색되었다. 실제 김경서 장군은 선조 16년 무과에 급제했고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큰 전공을 세웠다. 김응서가 기용된 과정과 활약상은 사실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으며, 당대 독자들은 김응서의 활약상을 통해 정신적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또 다른 전란 배경의 소설, 「박씨전」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한 고전 소설에는 민중의 염원과 정신적 치유를 위해 허구적 요소를 가미하여 실제와는 다른 사건이 등장하기도 한다. 「임진록」은 임진왜란을, 「박씨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대표적 고전 소설로, 두 작품 모두 주인공들의 활약을 강조하는 한편 전란에 대응하는 지배층의 무능을 드러냄으로써 민중의 소망과 울분을 그려 내고 있다.

	「임진록」	「박씨전」
배경	임진왜란	병자호란
주인공의 활약상	• 김응서가 기생의 도움을 받아 왜장을 물리침. (수록 부분) • 이순신, 김덕령, 사명당 등이 비범하거나 초현실적인 능력으로 왜적을 제압함.	• 여성인 박씨 부인이 지략을 통해 적자를 쫓아냄. • 박씨 부인이 초능력을 바탕으로 청나라 장수 옹골대의 군대를 격퇴함.
지배층의 무능	일부 조정 대신이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감.	여성 영웅 박 씨와 대비되는 무능한 지배층 남성이 청나라 군사에게 패배함.

길삼봉전 김민정

EBS 수능특강 문학 024쪽

강상 포인트

이 작품은 조선 선조 때 일어났던 기축옥사를 배경으로 하여 역사적 사건에 허구를 덧붙여 창작한 희곡이다. 기축옥사는 1589년(선조 22), 정여립이 모반을 꾀한다는 고변에서 촉발되어 2년 남짓한 기간에 동인 쪽의 수많은 선비들이 처벌된 사건이다. 기축옥사를 배경으로 실체가 모호한 '길삼봉'이라는 존재를 이용하여, 죄 없는 정적들을 억적으로 몰아 죽이는 위정자들의 모습과 신하들의 갈등을 부추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왕의 모습, 이익과 권력 다툼에 혈안이 되어 민생은 뒷전인 왕과 위정자들 탓에 민중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극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를 통해 정치권력의 비정함과 정쟁이 야기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비판적 주제 의식을 잘 나타냈다. 극 중 인물 중 선조, 정철, 이산해, 최영경은 실존 인물이다. 작가는 김혼의 장편 소설 '칼의 노래'에 나오는 '길삼봉'에 관한 내용을 착안하여,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한다. '칼의 노래'는 임진왜란 작전 사회적으로 불길하고 흉흉한 분위기가 팽배하던 시기를 다루고 있어 두 작품은 시대적 배경 면에서 서로 이어진다. 2009년에 극단 연우무대(연출: 안경모)에 의해 남산예술센터에서 초연되었다.

주 제

정치권력의 비정함과 정쟁이 야기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조선 전역에서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늘에서는 변란을 예고하는 천문 현상이 일어나 민심이 흉흉하다. 한양에서는 백성들이 밤낮없이 남산골에 모여 '동중국'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해괴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서인과 동인이 극심한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 동인의 선비 정여립이 역모를 꾀했다는 혐의로 죽게 된다. 길삼봉이란 인물은 정여립과 함께 거론된 반란의 우두머리인데, 그가 누구인지 아니면 그가 실재하는 인물인지도 불분명하지만 선조는 정철을 시켜 길삼봉을 찾게 하고, 그 과정에서 정여립과 관련이 있는 수많은 동인의 선비들이 길삼봉으로 의심받아 죽임을 당한다. 서인인 정철은 위관(재판장)이 되어 길삼봉을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어 동인의 선비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고, 급기야 재야의 명망 있는 선비인 최영경마저 붙잡아 신문(재판)을 한다. 동인인 이산해는 교활하고 냉혹한 인물로 최영경을 돕는 척하면서 몰래 그에게 독주를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 후 정치적 야욕 때문에 죄 없는 선비를 죽였다는 죄목으로 정철을 고발한다. 이에 선조는 정철을 쫓아내고 이산해에게 위관의 자리를 맡기지만, 정철불령의 길삼봉을 잡아들이라는 어명을 더욱 매섭게 내림으로써 역모를 구실로 자행되어 온 공포 정치를 계속 이어 간다. 결국은 권력의 축이 정철의 서인에서 이산해의 동인으로 옮겨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승자는 실재 없는 길삼봉을 내세워 신하들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왕권을 강화한 선조인 것이다.

반역을 꾀함, 또는 그런 일

[앞부분 줄거리] 동인인 정여립이 역모죄로 죽게 되자, 선조는 정여립과 함께 거론된 반란의 주모자 길삼봉을 잡기 위해 서인인 정철에게 조선 시대의 봉당 가운데 서인과 대립한 당파, 또는 그 당파에 속한 사람, 선조 때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 수사와 재판을 맡긴다. 무수한 동인의 선비들이 죄 없이 죽임을 당하나 길삼봉은 잡히지 않고, 심지어 그가 누구인지, 실존하는지조차 불확실하다. 그러던 중 정철은 처사 최영경을 길삼봉으로 의심해 체포한다. 벼슬을 하지 아니하고 궁벽한 시골에 묻혀 살던 선비

국정*
무대의 배경

최영경이 자리해 있다. 코르스*들이 최영경을 둘러싼다. 술병을 손에 쥔 정철, 잔뜩 취해 있다. 지시문(= 지문). 지시문은 희곡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등장인물의 동작이나 표정, 어조나 심리 또는 배경, 무대 장치, 음향 효과 등을 설명함. 정철: 길삼봉 상장군의 물결이 형편없이 상했구려. 역시 그대의 역당은 그 뿌리가 깊소이다. 무고(無辜)*를 주정하 최영경을 반란의 주모자인 길삼봉으로 의심하는 데에서 비롯한 표현 역적의 무리 임금에게 아뢰어 청하던 일은 상소가 끝이 없으니 말ियो.

최영경: (호탕히 웃으며) 하하하. 없는 죄를 엮는 일이 여간 쉽지는 않으리다.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당대인 성격을 드러냄. 정철: 생사 앞에서 그리 담대한 것은 그대의 성품이오 기질이오? 역적으로 몰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정의 동요를 겪지 않는 인물의 모습을 드러냄. 최영경: (울조리듯) 생사를 잊은 지 이미 수십 년이라. 살고 죽는 일에 연연해하지 않게 된 지 오래됨. 정철: (비웃음) 과연 죽림중에 은거하는 현자라는 소리 들을 만하구려. 이황종의 서찰에 줄줄이 시국에 대한 비분 강개의 글이 난무하던데, 그대 또한 그와 뜻을 같이하는가? (서찰을 내보인다.) 동인과 서인 사이의 정쟁 슬프고 분하여 마음이 북받침.

최영경: (타령을 읊듯 태평하게) 혹은 옳고 혹은 아니 옳고, 그대들의 쓸개 빠진 당파 싸움에 비분강개하는 마음은 옳고 그름의 판단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냄으로써 자기편은 절대적으로 옳고 상대편은 반드시 틀리다는 편협한 태도에서 비롯한 당파 싸움을 비판함. 그의 것이 나의 것이나, 벼슬을 물린 것은 나의 도량이 그에 미치지 못함이오.

정철: 죽림에 묻혀 현실 정치가 봉당의 패싸움임에 더러운 오물이네 하고 말하기는 쉬운 법이오.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단지 말로만 현실 정치에 대해 근심하고 비평하는 최영경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함. 최영경: (정색하며) 허면 화려한 복색으로 껌을 출입하며, 사탕발림으로 임금의 귀를 즐겁게 하고 당쟁만 일삼는 그 자신을 비판하는 정철의 말에 대한 최영경의 부정적 심리 반응을 드러냄. 대들은 들뜬 곡식을 일구는 농부의 땅을 알려, 배꽃이 죽어 가는 아이, 병들어도 약 한 번 써 보지 못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철과 같은 정치인들의 모습에 대한 비판 노복의 처지를 아는가? 아니, 밤마다 피를 토하며 세상 끝날 날을 노래하며 똥구는 백성의 울부짖음에는 왜

최영경은 여러 차례 관직에 제수되었지만 모두 사양하였는데 그 이유로 자신의 능력 부족을 언급함. 그러나 이는 권력의 유혹을 통해 관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부족을 언급함. 그러나 이는 권력의 유혹을 통해 관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부족을 언급함.

대답이 없는가? 두 귀가 멀었는데 왜 귀를 치막고 있는가?

최영경의 정치 비판을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말뿐인 비판이라고 폄하하는 정철의 생각이 드러남. 정철: 뜻만 있으면 무엇 하오? 행함이 없으면 다 헛것인 것을.

최영경: 그대가 헛것을 논하다니 허허. 헛것을 핑계 삼아 선비 정철이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선비들을 억적으로 몰아 박해를 가하는 일이 실제적 근거 없이 이의 목을 치는 그대가. 루어지는 정치적 모략이라는 최영경의 생각이 드러남.

(중략) ▶ 국청에서 최영경을 신문하는 정철

선조: (화를 내며) 대체 길삼봉이 어떤 자이길래 최영경의 목숨 최영경이 길삼봉이라는 무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일을 문제 삼고 있음. 까지 앓아 간단 말시오!

정철: 송구하옵니다. 최영경이 길삼봉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미 힘이 적은 령한 인물이온데, 옥사(獄死)에까지 이르렀으니 신을 벌 갑옥살이를 하다가 감옥에서 죽음. 하시옵소서. 다만, 수많은 고변*을 밝히고자 그리한 충정 정철의 자기 변론. 최영경의 죽음은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반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 헤아려 주시옵소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이며,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님을 주장함.

이산해: 최영경을 길삼봉이라 무고(誣告)한* 이들이 모두 정철 대감의 수하임을 눈여겨보소서. 이 모든 것이 정철 정철의 자기 변론에 대한 이산해의 반론. 최영경을 포함한 이들이 모두 정철의 수하임을 근거로 들어, 최영경의 죽음이 의 계략이옵니다. 정철의 정치적 모략에서 비롯한 억울한 죽음이라고 주장함.

정철: 천부당하옵니다. 신, 충심으로 옥사(獄事)를 진행하였을 뿐, 죄 없는 자를 무고한 바 없사옵니다. 최인을 신문할 때에, 의정대신 가운데서 임시로 뽑아 임명한 재판장 최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던 일, 또는 그 진술 관직에서 물러나게 함. 이산해: 충심을 다한다는 위관이 어찌 술에 취해 공조를 진행하였겠사옵니가? 정철을 당장 파직하옵소서. 본문 서두의 '술병을 손에 쥔 정철, 잔뜩 취해 있다'라는 지시문에 정철이 술에 취해 최영경을 신문하려 온 모습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일을 지적하고 있음. 정철: 전하, 신의 사사로운 허물을 들추어 어의를 흐리고자 하는 간계이옵니다. 술에 취한 채로 공조를 진행한 일 임금의 생각(판단) ▶ 최영경의 옥사(獄死)에 대한 책임을 놓고 선조 앞에서 대립하는 정철과 이산해 이산해: 이 서찰 앞에서도 그런 무례한 말을 한단 말ियो? 역적 길삼봉의 정체가 최영경이었다고 모함하도록 누군가에게 사주하는 내용의 서찰(편지)로, 필적을 근거로 정철이 쓴 것으로 짐작됨. 이산해는 정철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생 매항을 시켜 이 서찰을 정철의 서재에서 훔쳐 오게 함. 이산해, 선조에게 서찰을 건넨다. 선조, 필적 들고 보다 안색이 묘연해진다. 서찰을 보면서 정철을 의심하게 되는 선조의 심리 변화를 드러냄.

이산해: 최영경이 즉 길삼봉이라고 상소하면 벼슬 격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송강의 필체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사옵니다. 서찰에 담긴 내용 정철의 호

정철: 아니옵니다, 전하. 모함이옵니다. 여기서 정철은 '일찍이 이산해는 역적 정여립의 사건에 그 이름이 올라 있던 인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산해를 역적의 무리로 몰아세우고, 자신은 곤경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중간에 말을 멈춤. 작품의 배경이 되는 기축옥사 당시에는 정여립과 사소한 관계라도 있는 사람, 특히 동인의 선비들은 모두 역적으로 내몰리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음. 이산해: 어릴 적 문우였던 제가 어찌 송강의 필체를 모르겠나이까? 글씨에 사건 정철: 필체를 도색하는 것은 일도 아니옵니다. 일찍이 이산해는 정여립의 서간. 사전적 의미는 '색깔이 나게 칠을 함.'이나 여기서는 남의 필체를 비슷하게 꾸며서 흉내 낸다는 뜻으로 쓰임.

정철과 이산해의 눈이 불꽃이 될 듯 부딪친다. 두 인물 사이의 고조된 갈등을 지시문을 통해 드러냄. ▶ 정철의 것으로 추정되는 서찰을 근거로 정철이 무고한 최영경을 억적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하는 이산해 선조: 위관, 그런데 정여립은 동인인가 서인인가? 정철이 주도해 온 신문과 재판이 역적을 찾아내 벌주고 나라의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인이 동인을 몰아내는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에서 비롯한 질문임.

정철: (머뭇대다) 전 우의정 정언신의 혈족이니 동인이라 할 만하옵니다.

선조: 최영경은 어떠하오?

정철: (사에) 초야에 은거하는 이가 동서의 구분을 알겠습니까? 동인, 서인과 같은 어떤 당파에도 소속되지 않음.

선조: 그대를 동인 백성이라 하던데 어찌 생각하오? 정여립의 역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인인 정철이 동인 쪽 사람들을 무수히 죽였던 데에서 비롯한 표현 정철: 천부당만부당하옵니다. 역모를 막고자 한 소인의 충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정철과 최영경은 서로 논쟁하는 과정에서 둘 다 '헛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같은 표현을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헛것		
발화자	정철	최영경
같은 점	부정적 의미로 사용함	
다른 점	- 지시 대상: 최영경의 바른 말 - 표현 의도: 현실 정치에서 멀리 벗어나, 세상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말로만 세상을 근심하고 현실을 비판하는 최영경의 태도에 대한 비판	- 지시 대상: 정철이 동인의 선비들을 억적으로 몰아 신문하고 처벌하는 근거 - 표현 의도: 정적을 무고하게 잡아들이는 정철의 잔인함에 대한 비판

사이,

선조: 이산해 대감, 그대가 위관을 맡게. (지엄하게) 정철의 관직을 폐하고, 사가에서 위리안치*하게 하라. 또한 최영경을 무고한 이들을 반좌율*로 다스리라.

이산해: 어지를 받들겠나이다.

정철: 전하, 이는 모함입니다. 전하, 전하!

선조, 이산해에게 웃음을 보인다. 이산해, 기쁨에 함께 웃는다.

선조: (갑자기 웃음을 거두며) 위관은 무얼 하는가? 길삼봉이 날뛰고 있지 않은가! 해가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서 길삼봉을 잡아들여라!

이산해: (놀라) 햇불을 밝혀라. 인두를 달구고, 고변된 자들을 끌고 와 형틀에 묶어라. 길삼봉을 잡으라는 어명이 정국의 주도권이 실제로는 선조에게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위관이 된 이산해 또한 정철이 보여 온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 줄 수밖에 없을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사

선조, 여유롭게 웃는다.
현 상황에 대한 선조의 만족감을 나타냄.

▶ 정철이 물러났지만 혼란스러운 정국은 계속되고, 동인과 서인의 당쟁을 이용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는 선조

- *국창: 조선 시대에, 역적 등의 중죄인을 신문하기 위해 설치하던 임시 관아.
- *코러스: 연극에서 극 중 특수한 기능과 효과를 담당하는 역할을 이르는 말.
- *무고: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이 없음.
- *고변: 반역 행위를 고발함.
- *무고한: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함.
- *위리안치: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 두던 일.
- *반좌율: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한 사람에게 고발당한 사람이 받은 처벌과 같은 형벌을 가하던 제도.
- *해가림: 여기서는 '일식'을 뜻함.

●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허깨비 같은 길삼봉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선조의 태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선조는 새로 위관이 된 이산해에게 웃음을 보이지만 이내 웃음을 거두고 역모에 관한 잔인한 조사를 다시금 시작하도록 매설게 재우침. 처사 최영경이 역모한 죽임을 당했음에도 길삼봉을 구실로 공포 정치를 이어 나가는 선조의 태도에서, 길삼봉은 선조가 자신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며 길삼봉을 통해 선조가 신하들을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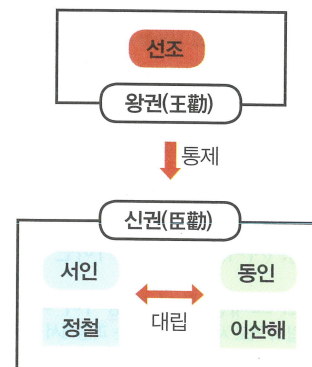
▶ 정철을 벌주어 쫓아내고, 정철 대신 이산해를 위관으로 삼는 선조

정철이 쫓겨나고 이산해가 위관이 되었지만, 정철이 위관이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실제가 없는 길삼봉을 찾는다는 구실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등의 정치적 박해와 공포 정치가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사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길삼봉면」의 갈등 구조 문항 3 관련

작품에서 표면화된 갈등은 서인인 정철과 동인인 이산해 간의 대립, 즉 신하와 신하 사이의 갈등이다. 이 맥락에서 보면 장면의 서사는 정치권력이 서인에서 동인으로 넘어가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권력의 중심은 선조에게 있으며, 장면에 제시되는 모든 사태를 주도하는 것은 결국 선조라는 점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핵심 요소가 된다. 선조는 길삼봉이라는 실제 없는 인물을 구실로 신하들 간의 정쟁을 부추기고, 그 과정에서 신권이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작품에서 서사 전개의 추동력이 되는 핵심 갈등은 정철과 이산해로 대변되는 신하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선조와 신하들 사이의 대립, 즉 왕권과 신권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포인트 2 「길삼봉면」의 역사적 배경, 기축옥사(己丑獄事) 문항 1, 3 관련

16세기 전반 거둬진 사회(士禍)로 피해를 입은 조선 정치는 선조 즉위 이후 훈척 세력의 약화와 사림의 대두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사림 내부에서도 동인과 서인이 갈라지며 봉당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들이 갈등하는 가운데 선조 22년(1589),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불리는 기축옥사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황해도 관리들이 정여립의 역모를 고변하며 시작되었으며, 정여립이 실제 반역을 계획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그가 보여 왔던 사상적 급진성과 거침없는 행동은 의심의 여지를 남겼다.

정여립은 원래 서인의 중심인물인 이이, 성혼과 교유했으나 동인으로 돌아섰다는 비판을 받았고, 선조와의 갈등 끝에 낙향해 향촌에서 동인과 연계하며 재기를 노렸다. 그러나 당시 조정은 동서 간 분열이 격화된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여립이 역모로 고변당한 일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여립이 도주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아들 정옥남이 반역 사실을 자백하면서 역모는 사실로 확정되었다. 기축옥사가 벌어지면서 동인 선비 1,000여 명이 역적으로 몰려 화를 입었다. 길삼봉이라는 인물은 정여립과 함께 거론된 반란의 주모자인데 그 정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여립과 관련이 있는 많은 인물들이 길삼봉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최영경처럼 비판적 시국관을 가진 인물들도 길삼봉으로 몰려 처형되었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코러스'의 역할

본래 코러스는 그리스 비극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품의 극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리스 비극의 기본 구조는 배우와 코러스 사이의 대화와 노래, 연기와 춤의 교차로 이루어져 있다. 코러스는 보통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다중적인 기능을 하는데, 극이 시작할 때 극의 상황과 등장인물에 대한 개요를 알려 주기도 하고 극의 진행 과정에서 춤을 곁들인 노래를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나 극 중 상황의 분위기를 암시하기도 한다. 아울러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등장인물과 사건에 대한 정치적·윤리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청중의 입장에서 배우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줄거리를 설명하는 해설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길삼봉면」의 코러스는 무용이 수반되는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인물의 심리와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그리스 비극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리스 비극의 코러스와 달리 극 중 인물의 역할을 맡기도 하는데 극 중 인물이 될 때에는 인물의 가면을 쓰고, 코러스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때에는 가면을 내려놓는 식이다. 아울러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해 논평을 하거나 줄거리를 설명하는 해설자 역할을 하지 않는 것도 「길삼봉면」의 코러스가 그리스 비극의 그것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 「길삼봉면」의 다른 대목 읽어 보기

정철: 서재에서 서찰을 빼간 게 너인 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매향, 감춘 칼을 꺼내 정철을 겨누다. 그러나 정철 겁내지 않는다.

정철: 내 네게 정을 주었더니 넌 내게 칼을 겨누는구나. / 매향: 이 칼의 주인이 그대 가슴을 뚫으라 명하였소.

정철: 하하. 수우당의 목숨이 내 목숨마져 거둬 가는구나. 아계가 끝내 내 생명줄을 끊어 놓는구나. (태연히 자리에 앉아 술을 따라 마신다.) 한데, 그 칼끝이 바른 곳을 향하고는 있느냐? 수우당이 고초를 못 이겨 죽었다고? 하하하 그럼, 수우당의 술엔 누가 독을 탔을까? 자기를 지켜 줄 이가 자기를 버렸으니 최영경이 어리석다. 어리석음을 지킨다는 별호가 제격인 사내다, 바보 최영경이다. / 매향: 무슨 해괴한 요설이나?

정철: 수우당의 시신을 보거라. 입안에 핀 푸른 반점이 내 짓이더냐? 수우당의 죽음이 형세를 바꿔 놓았다. 누가 그것을 가장 바라겠느냐?

매향: (흔들리는 마음을 잡으며) 내 아버지와 오라비의 죽음에도 요설이 가할 것 같습니까? 정여립의 서간에 이름이 올랐다 하여 제일 먼저 처형된 이현 부자를 기억하시오? 냉혹한 얼굴로 망나니의 칼에 목이 떨어지는 걸 그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보고 있었소.

정철: 본디 정치란 냉혹한 것이다. 네 아버지와 동인들은 주상의 눈을 막고, 귀를 멀게 했다. 백성의 소리를 잃고 어찌 왕이 서고 정치가 서겠느냐?

매향: 칼부림의 작란 앞에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구려.

정철: 어린것의 가슴에 깊은 한을 남겼나니. 과연 내가 백정이란 소릴 들을 만도 하구나. 하하하하하. 그래, 정치란 냉혹한 것이다. 네 숙부는 정여립의 서간에 오른 자신의 이름을 대신해 네 아버지 이현 이름자를 따 놓았다. 또한 나를 위관으로 내 세워 자신을 보위했고, 나를 위관에서 폐하여 동인을 다시 복권시켰다. 그것이 정치다. 허허허.

매향: …….

정철: (술을 마시며) 매향아, 이제 내 목숨은 니 것이다. 이제 내 너를 향한 마지막 연정이다.

(노래하듯) 한잔 먹세그려. 또 한잔 먹세그려.

꽃 꺾어 씹으며 무진무진 먹세그려. 이 몸 죽은 후에 지게 위 거적 덮어 졸라매어 지고 가나. 오색실 화려한 상여에 만인이 울어 예나. 역새풀 속새풀 떡갈나무 백양 숲에 가 이르면 누른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눈, 회오리바람 불 제 뉘에게 한잔 먹자 할고. /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휘파람 불 제 뉘친들 어찌하리.

-「장진주사」

매향, 정철에게 겨누었던 칼을 거두고 뛰어나간다.

본문에 제시된 장면의 뒤에 이어지는 장면으로, 여기서는 정철과 매향의 대화를 통해 이산해의 실체가 드러난다. 이제까지 정철은 역모를 조사한다는 구실로 동인을 마구 해치는 무자비한 인물로, 이산해는 정철을 견제하여 국가의 혼란을 바로잡으려는 정의로운 인물로 그려졌다. 그러나 이산해는 서인 중심의 정국을 역전시켜 동인이 권력을 쥐게 하려고 자신의 조카인 매향을 속여 정철에게서 서찰을 훔쳐 오게 하고 또 매향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한 교활하고 잔혹한 인물이었다. 이 장면에서 관객들은 정철과 이산해 모두 정치권력에 눈이 먼 무자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위 장면에서 '수우당(守愚堂)'은 최영경의 호로 '어리석음[愚]을 지킨다[守]'는 뜻이다. '아계'는 이산해의 호이다.

EBS Q&A

Q 극 갈래의 작품을 읽을 때 중점을 두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문항 2 관련]

A 서사 갈래와 극 갈래는 모두 이야기를 전달하고, 다양한 양상의 갈등을 다루는 문학 갈래라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지만, 서사 갈래는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내면과 작중 상황, 사건과 배경을 설명하는 반면 극 갈래는 서술자 없이 주로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극 갈래의 작품을 읽을 때는 대사와 행동에 집중해야 하며, 인물의 표정과 어조, 음향 효과와 조명, 무대 장치 등에 대해 설명하는 지시문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지시문이 설명하는 요소들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심리, 작중 상황과 분위기 등이 보다 세밀하게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작품이 시나리오라면 촬영 기법이나 편집 방식에 관한 지시문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극 갈래는 희곡의 경우 무대 공연을, 시나리오의 경우 영상 매체 촬영을 전제로 한 문학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자신이 연출가 또는 감독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작품이 구현된 무대 또는 영상을 상상하며 읽는 것도 극 갈래의 작품을 읽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예컨대 등장인물을 어떤 표정과 어조로 연기하게 할지, 인물의 동선과 무대 장치의 이동은 어떻게 할지, 장면 전환과 조명 변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극 갈래는 출제 빈도는 높지 않지만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희곡보다 시나리오가 좀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이후 수능과 모평, 학평(1~3학년)에 출제된 극 갈래 작품을 살펴보면 희곡 3편, 시나리오(방송극 대본 포함) 12편, 민속극 1편이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출제되었던 극 갈래의 문제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련사가 어머니의 손길을 피하고, 의사와 형사의 말을 외면하는 것에서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엿볼 수 있군. (24학년도 3월 고1 학평 선지 / 이미지, 희곡「그게 아닌데」)
-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무대 장치의 이동으로 극 중 공간을 좌우로 분리시킨다. (17학년도 수능 문제와 선지 / 이강백, 희곡「느낌, 극락 같은」)
- (나)의 S#18과 S#24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S#18은 인물들의 행동을 보여 주는 장면들을 연결하여, 마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22학년도 9월 모평 문제와 선지 / 오영수 원작, 시나리오「갯마을」)
- (나)를 영화로 제작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전우치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게 하려면, 지상을 내려다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며 촬영해야겠군. (21학년도 6월 모평 문제와 선지 / 최동훈, 시나리오「전우치」)

개념 학습

6강

울정설 - 백문보

EBS 수능특강 문학 029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글쓰기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한 윤택(尹澤)이 자신이 지은 정자의 이름을 '울정'이라 하자, 이에 대해 글쓰기가 써 준 한문 수필이다. 늦은 나이에 급제하고 그보다 더 늦은 나이에 벼슬길에 나아간 윤택의 삶이 가진 가치를 밤나무의 생태적 속성을 바탕으로 칭송하고 있다. 설(說) 갈래에 속하는 글의 일반적인 구조와 약간 다르지만, 밤나무가 가진 속성과 윤택의 삶을 유추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 갈래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

늦더라도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는 삶의 이치

윤 상군(尹相君)*이 일찍이 곤강(坤岡) 남쪽에 집터를 마련하였다. 집터 동서쪽에 밤나무 숲이 울창하여 그곳에 집을 짓고 '밤나무 정자'라는 뜻으로 '울정(栗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금 또 조금 서쪽으로 가서 새로 집을 짓는데 밤나무 숲이 더욱 무성하였다. 성안에 있는 주택에는 밤나무를 심는 사람이 드문데, 윤 공은 집을 사기만 하던 밤나무가 있는 곳을 선택하였다.

그가 일찍이 나에게 말했다.

"봄이면 성근 가지가 꽃과 서로 어긋거리고, 여름이면 잎이 우거져서 그 그늘에서 쉴 수 있으며, 가을이면 밤이 맛이 들어 내 입에 가득 채울 만하며, 겨울이면 껍질을 모아 내 아궁

이에 불을 땀다. 나는 이 때문에 밤나무를 선택한다."

내가 말했다.

"불이 마른 것으로 나아가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는 것은 같은 기운끼리 서로 찾아가는 것으로, 이치상 진실로 필연적인 것이다. 대개 그 숭상하는 바에 있어서 사물과 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러한가? 하늘과 땅 사이에 풀이나 나무가 나는 것은 모두 한 기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뿌리와 싹과 꽃과 열매가 나고 자라고 피고 맺히는 데 어려움과 쉬움, 빠름과 느림이 제각각 다르다. 유독 밤은 만물 중에서 가장 늦게 난다. 나무를 심기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자라기만 하면 쉽게 성장하며, 잎이 매우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쉽게 녹음을 이루며, 꽃이 매우 늦게 맺히지만 맺히기만 하면 쉽게 풍성해지며, 열매가 매우 늦게 열리지만 열리기만 하면 쉽게 거둘 수 있으니, 대개 사물이 이지러지고 채워지며 빠지고 더해지는 이치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윤 공은 나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그때 나이 이미 서른이 넘었다. 그러다가 마흔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갔으

므로, 사람들은 모두 늦었다고 하였으나 윤 공은 벼슬에 나아가 더욱 충실히 하였다. 그러다가 선대 임금께서 먼저 공을 알아보셨는데 크게 쓰이게 되어서는 하루 동안에 아홉 번 승진하여 높은 지위에 올라 중책을 담당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 나간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 기틀을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그 성취하는 것이 뒤에는 쉽게 된 것이니, 대개 이 밤나무의 꽃과 열매와 같은 점이 있다.

나는 이치로 설명하려 한다. 풀과 나무의 뿌리가 흙에 묻혀 있을 때에 그 싹이 깊으면 그 갈라져 올라오는 것이 늦고, 갈라져 올라오면 싹이 트고, 싹이 트면 가지가 생겨서 반드시 줄기를 이룬다. 샘물이 웅덩이에 가득 차면 그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다가 그 흐르는 것이 고이게 되고 고이게 되면 물이 돌아 흐르고, 돌아 흐르면 못이 되어 반

●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윤 공은 밤나무가 계절마다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나는 불과 물의 예를 들어 같은 기운끼리는 서로를 찾아간다고 반박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밤나무에 대한 윤 공과 '나'의 생각

● 문제 해결 키 문항 2, 3 관련

'나는 밤나무를 예로 들어 만물은 저마다 어렵고 쉬운 정도와 빠르고 쉬운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윤 공의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드시 바다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느린 것은 반드시 빨라지고 멈춘 것은 반드시 먼 곳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지러지면 가득 차게 되고 빠지면 더해지는 것과 또한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 가지 사물에 나아가 보더라도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것이다.

▶ 이지러지면 가득 차게 되고 빠지면 더해지는 이치

또한 사람이 숭상하는 바를 관찰하건대, 곧 불이 마른 것으로 나아가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듯이 사물과 나 같은 기운은 서로를 찾아가기 때문임. 앞에서 언급한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넣음.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윤 공의 영달은 곧 밤의 생장(生長)이고 밤을 거두어 간 지위가 높고 고귀하게 됨. ▶ 윤 공의 생애와 밤나무의 생애가 지닌 공통점

▶ 밤의 생장 및 수확에서 깨닫는 삶의 이치

*윤 상군: 글쓴이의 지인인 윤택을 가리킴. '상군'은 재상을 높여 부르는 말.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울정설'의 구조 문항 1, 2 관련

한문 수필 '울정설'은 글쓴이가 타인의 삶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얻은 삶의 이치를 재구성한 글이다. 글쓴이는 '윤 공(윤택)'과 '밤나무'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 경험에서 얻은 삶에 대한 통찰을 설명하고 있다.

- 윤 공은 일찍이 밤나무 숲 근처에 집을 짓고 '울정'이라는 이름을 붙임.
- 윤 공이 밤나무 숲 근처에 집을 새로 삼.

윤 공은 밤나무가 쓰임새가 많다고 생각함.

'나'는 윤 공과 밤나무가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밤나무			공통점	윤 공
잎이 늦게 핼.	꽃이 늦게 맺힘.	열매가 늦게 열림.	시작이 오래 걸림.	서른 넘어 과거에 합격하고 마흔이 넘어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감.
↓	↓	↓	↓	↓
쉽게 녹음이 지.	꽃이 쉽게 풍성해짐.	열매를 쉽게 거둘 수 있음.	성취를 빨리 이룸.	하루 동안 아홉 번 승진하여 높은 지위에 오름.

삶의 이치

느린 것은 반드시 빨라지고 멈춘 것은 반드시 먼 곳에 도달함.
이지러지면 가득 차게 되고 빠지면 더해짐.

'울정설'을 지음.

포인트 2 역설적 이치 문항 3 관련

역설적 표현은 겉보기에는 모순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의미한다. 표면적 진술은 논리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뒤에 숨은 진리를 추론할 때 실제로 그 타당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울정설'에서는 이러한 역설적 표현을 통해 '나'가 얻은 삶의 이치를 표현하고 있다.

이지러지면 가득 차게 되고 빠지면 더해진다

이지러지면 가득 차게 된다

빠지면 더해진다

이지러지다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없어지다.)

가득 차다

빠지다

더해지다

모자람이 있을 때 더해짐이 있을 수 있음.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설(說)

설(說)은 일반적으로 글쓴이가 체험하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글이다. 크게 나누면 대부분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앞부분에서는 체험이 드러나며 뒷부분에서는 이와 관련된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난다. 교술 갈래에 해당하는 설은 다른 갈래에 비해 주제가 명시적으로 제시된다.

전반부	구체적인 경험이나 일화, 예화 등 독자의 이해를 돕는 이야기
후반부	전반부의 내용과 관련된 글쓴이의 생각, 느낌, 깨달음 등을 풀어내어 주제를 심화함.

'울정설'은 자연물의 이치로부터 인간의 삶의 이치를 유추하는 설의 일반적인 구조를 지니면서도 글쓴이(백문보)와 윤 공(윤택)의 대화를 직접 드러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윤 공의 입장에서 글쓴이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것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으며, 밤나무를 바라보는 윤 공과 글쓴이의 관점 차이가 한층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EBS Q&A

Q 문맥을 고려하여 특정 부분에 대한 글쓴이의 반응을 파악하는 문항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문항 1 관련

A 고전 수필 중에는 두 인물 간의 대화로 구성된 작품이 많습니다. 이때 한 사람은 글쓴이 자신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두 인물 사이에 대립적인 의견이나 관점이 대화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축이 됩니다. 이런 작품은 대개 글쓴이가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글쓴이의 의견을 상대방이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특정 부분에 대한 글쓴이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화제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이나 관점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글쓴이의 관점이나 태도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는 유랑민과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화자는 고향이 아닌 서울로 향하고 있는데, 이들이 열차의 지붕 위에서 함께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은 변화기의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저마다 품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유랑민이 품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 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굳게 잠긴 화물 열차의 문을 검은색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나타냄으로써 고단한 현실에 놓인 유랑민들의 처지를 드러냄.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열차의 객석에 타지 못하고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올라타서 간신히 고향에 가고 있는 유랑민과 화자의 처지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 1연: 귀국하는 화물 열차 지붕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유랑민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일제의 억압 때문에 조국을 떠났다가 다시 귀국하는 사람들 ①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일제의 억압 때문에 조국을 떠났다가 다시 귀국하는 사람들 ②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조국을 떠나서도 가난하고 고단한 현실에 시달려 옴.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열차의 객석에 타지 못하고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올라타서 간신히 고향에 가고 있는 유랑민과 화자의 처지

남도 사람들과, /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떡이랑

서로 다른 처지와 사연을 가진 유랑민들이 서로 요깃거리를 나눠 먹으며 의지하는 모습

나눠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열차의 객석에 타지 못하고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유랑민과 화자의 처지

푸르른 바다와 거리 거리를

열차의 객석에 타지 못하고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유랑민과 화자의 처지

설움 많은 이민 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짜기 골짜기를

갈 때와 마찬가지로 /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요

일제의 억압을 피해 북쪽으로 유랑을 떠났으나 그곳에서도 가난하고 고단한 현실을 겪었을 사람들에게 느끼는 화자의 동질감

나라에 기쁜 일 많아 /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

조국의 광복 화자의 고향은 함경도이고, 현재는 서울에 가기 위해 열차를 탔음을 알 수 있음.

▶ 3연: 광복의 기쁨과 동시에 느끼는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

총을 안고 뿔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열차의 객석에 타지 못하고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유랑민과 화자의 처지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 4연: 희망을 품고 바라보는 저마다의 별

* 자무스[佳木斯]: 중국의 송화강 상류에 있는, 러시아와의 국경 가까이에 있는 도시.

* 뿔가: 폴카(polka), 보헤미아 지방의 경쾌한 무곡(舞曲).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동일한 시구의 반복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을 첫 연과 마지막 연에서 반복하여 주제를 부각함.
색채어의 활용	'검은 문'의 색채는 유랑민의 고단한 현실을 떠올리게 하고, '푸르른 바다'는 서러운 유랑민의 처지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조국의 모습으로 비애감과 연결됨.
소재의 나열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떡'은 각자 가져온 요깃거리를 나눠 먹는 장면을 제시한 것으로, 어려운 처지에도 서로를 생각하는 동질감과 애정을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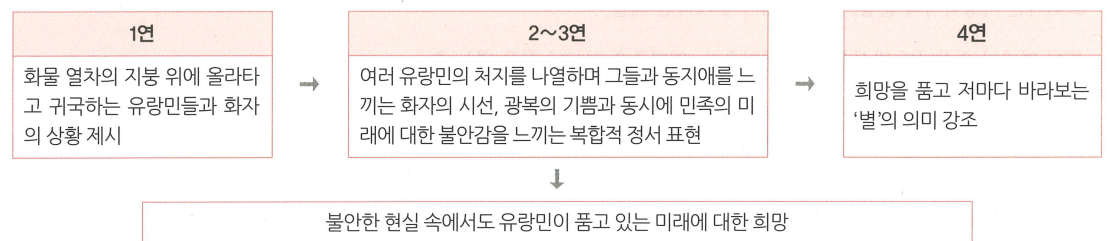
포인트 2

화자의 처지 문항 3 관련

- '함경도 사내'인 '나'가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가는 것은, 열차를 탄 사람들과는 달리 이향을 하고 있는 처지를 드러냄.
- 귀향하는 사람들과 이향하는 자신의 상황은 다르지만, 객지에서 고생하며 비참한 삶을 살았을 유랑민의 처지를 떠올리며 그들의 삶에 애정 어린 시선을 보냄. 그들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화물 열차의 지붕에서 동지애를 느끼는 화자의 시선이 잘 드러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하나씩의 별」의 사상 전개



■ 화자와 유랑민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 시는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는 유랑민과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화자는 고향이 아닌 서울로 향하고 있는데, 객지에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다는 점은 공통적이며 동지애와 민족의식을 저변에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광복을 맞이한 조국의 상황이 즐겁고 기쁘긴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놓인 저마다의 사정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열차의 지붕 위에서 함께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은 광복 이후 변화기의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저마다 품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EBS Q&A

Q '독자 맥락'이란 무엇이며, 이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문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문항 3 관련

A 문항 '3'은 독자 맥락, 즉 독자 자신의 입장에서 문학 작품을 감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일제 강점기에 살고 있지 않은 우리에게 이 작품이 어떤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는지 파악해 보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작품에서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 '남도 사람들과'를 나열하며 그들이 서로 요깃거리를 나눠 먹으며 의지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오는' 처지이고, 화자 자신 역시 '마찬가지로 헐벗은' 처지이므로 동질감을 느낍니다. 이런 서로 다른 사정 속에서 고향과 미래를 떠올리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 역시 각자의 처지에서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자 맥락에서의 감상이란 자신이 처한 시대와 상황에 적용해서 감상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카인의 후예 - 황순원 원작, 이상현 각색

EBS 수능특강 문학 036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동명의 장편 소설을 각색한 시나리오로, 지주들에 대한 재산 몰수와 숙청이 이루어지던 북한의 토지 개혁 전후를 배경으로 해방 직후의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 평생 지주를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지주를 고발하는 데 앞장서는 옛 마을,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제 것을 행하는 데에 혈안이 된 마을 사람들, 지주의 아들이지만 땅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마을 학당의 교사로 헌신하는 주인공 박훈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려 내어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이기적 생존 본능과 탐욕, 불의를 지켜보는 지식인의 고뇌, 신분 제약을 넘어서서 사랑 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 제

이념 대립의 비극과 금기를 넘어서는 사랑

전체 줄거리

고향 마을 양자굴에서 마을 학당을 열고 젊은이들을 가르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박훈은 마을 지주의 아들로, 광복 후 들어선 공산 정권의 타도 대상이다. 지주의 재산을 몰수하여 무산(無産) 계급에게 나눠 주고 반동 지주는 숙청하기까지 하는 토지 개혁이 각 마을에서 실제로 진행되기 시작하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을을 떠날 마음을 먹고 있다. 박훈 아버지를 지주로 모시고 헌신했던 마을 도섭 영감은 박훈이 홀로 있는 처지를 돌봐야 한다며 딸 오작녀를 박훈 집에 기거하게 하기도 하였었지만 이제는 박훈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오작녀에게도 그와의 관계를 끊기를 종용한다. 오작녀는 비록 다른 이와 결혼한 후 소박을 맞아 마을로 돌아온 신세지만, 어린 시절부터 연모해 온 박훈의 곁에서 그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자 한다. 인민재판이 진행되고 박훈의 집으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들 앞에서 오작녀는 무산 계급인 자신이 박훈과 부부가 되었음을 말하여 박훈을 구한다. 한편 박훈의 사촌 혁은 도섭 영감이 갈수록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를 죽여 응징하려 하는데, 이것을 알게 된 박훈은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사촌과 도섭 영감을 모두 위하는 길이 된다고 생각한다. 도섭 영감과 난투를 벌이지만 그를 죽이지 못한 박훈은 결국 오작녀를 데리고 남쪽으로 떠나기로 한다.

S#32. 훈의 방 안

장면 번호와 배경 공간 제시 - 시나리오의 형식적 특징

남쪽불에 불이 났겨진다.

드러나는 사방탁자와 문갑, 그리고 서가에 가득한 책들.

문이 열리며 오작녀가 밥상을 들고 들어온다. 엉거주춤 일어나 상을 받는 훈-.

그의 손이 실수로 오작녀의 손과 겹쳐진다. 놀란 듯 바라보는 오작녀.
두 사람이 서로를 대할 때 느끼는 감정을 행동과 시선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지시문
 훈, 어색하니 상을 받아 놓는다. 그 바람에 그릇의 숭늉이 흔들린다.

나가는 오작녀를 보고.

훈: 저…… 거기 좀 앉으요. / 오작녀: ?

조심스레 앉는다.

훈: …… 인제 오작녀도 자기 일을 좀 생각해야 할게요.

오작녀: …… / 훈: 남편도 돌아오고.

겨우 말을 내뱉고 시선을 돌 데 없어 남쪽불을 멍하니 바라본다. / 오작녀도 그쪽을 본다.

내뱉은 말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지시문

찍찍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남쪽불. / 오작녀의 눈에 웬지 모를 물기가 부풀어 오른다.

▶ 자신을 돌봐 주던 오작녀에게 훈은 이제 그만둘 것을 제안함.

오작녀: …… 제 일은 걱정 마시라우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갓시오.

훈의 제안에 거절을 표하는 오작녀

훈: …… 아무래도 난 여기를 떠나야 될 것 같소…… 그렇다고 당장 여기를 떠난다는 건 아니요. 무어 농토에 애착
훈이 살고 있던 고향 마을

이 있어서가 아니라 웬지 지금 떠나고 말면 영원히 고향을 버리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 사람들이 내쫓지
토지 개혁이 진행되고 있어 인민 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지주가 땅과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킴.

않는 이상 여길 떠나고 싶진 않소…… 처음 오작녀가 여기 와서 살림을 돌봐 줄 때부터 나는 내가 지주요 오작

녀는 소작인의 딸이란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소…… 조금도 의리 관계 같은 것에 얽매어 행동을 자유롭게 못 한

훈이 오작녀 집안을 부리던 지주라고 해서 살림을 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음을 말함.

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소.

오작녀: 저두 처음부터 선생님이 우리 집 지주라고 해서 와 있는 게 아니야요. …… 그리구 버릇없는 말 같지만 앞으로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저더러 나가라는 말씀만은 말아 달라우요.

훈: 아무래도 오작녀를 위해서 좋지 않을게요. 그리구 또 오작녀가 여기 있고 싶어 한대도 오작녀를 데려갈려는…….

오작녀: (똑바로 보며) 선생님 아무 말씀 마시라우요…… 선생님이 나가라는 말씀만 았으신다든…… 나가라는 말씀만…….

말을 못 맺고 격정에 못 이겨 뒹겨나듯 밖으로 뛰어간다.

훈에게 연모의 감정을 직접 표현할 수 없는 내적 갈등을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지시문

훈: (눈을 감는)

●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 시나리오에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방법
 시나리오는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 상태를 서술자가 설명하지 않음. 인물의 행동과 표정, 대사를 통해 보여 주도록 지시되어 있는 인물의 심리에 주목해야 함.

▶ 오작녀는 훈의 제안을 거절하며 감정이 폭발쳐 오름.

S#33. 과수원

과목 사이로 허둥지둥 달려오는 오작녀. / 어느 나무 기둥에 이마를 부비며 흐느낀다. / 먼 뺨꾸기 소리.

오작녀, 눈을 들어 집 쪽을 본다. / 불이 밝은 훈의 방, 봉창. / 먼 뺨꾸기 소리…….

F.O.

▶ 훈과의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는 오작녀의 모습

[종락 부분 줄거리] 농민 대회가 열리고 토지 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정되어 농민들은 지주들의 집을 차례로 찾아가 재산을 몰수하고, 결국 훈의 집에도 재산 몰수를 위해 찾아온다.

S#101. 마당

훈, 눈을 감는다.

개털: (다시) 우리 민주 혁명에 불평을 품고 매일같이 술로써 소일하는 한편 순진한 청년들을 유혹하여 학당을 받
훈이 청년들을 가르치던 공간

판으로 반동 결사를 조직해 가지구 우리 면 농민 위원당 동무를 살해하게 한 사실 그리고 지주의 권력으로
훈과 청년들이 하던 공부 모임을 가리킴. 공산주의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도하기 위한 말
소작인의 딸이자 남의 유부녀인 여성 동무를 유린한 사실 이런 사실을 보아…….

오작녀를 가리킴.

“여보!” 새된 소리에 모두 놀라 그쪽을 본다. / 오작녀다.

머리는 형클어지고 얼굴은 열에 뜬 오작녀가 곧 쓰러질 듯이 하여 방문을 잡고 나서 있다.

오작녀: 누가 그런 허튼소릴 적었소?

개털: (분노의) 여성 동무 말을 삼가오. 이것은 농민 대회의 결정이요. 우리는 시방 여성 동무를 해방시키러 왔소!

오작녀: 해방이구 뭐구 다 일없소. 돌아들 가시오.

▶ 훈의 재산을 몰수하려 온 사람들을 오작녀가 제지하고자 함.

도섭: 아니 데 에미나이가 열병을 앓고 나더니. (개털에게) 동무 용서하시우. 데 에미나이가 앓구 나더니 속이 허해

데서 데렘네다. (오작녀에게) 썩 들어가디 못하간!

오작녀: 난 벌써 아버지의 딸이 아니야요. / 도섭: 각!

토지 개혁에 앞장서게 된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오작녀

달려들려는 도섭 영감을 제지하는.

개털: 진정하오! 가사 싸움을 할 때가 양이요. 자 그러든 다시 계속해서…… 이러한 모든 사실로 보아 우리 농민 대회는 지주 박훈을 악질 반동 지주로 규정하는 동시에 그의 모든 사유 재산을 몰수하는 데 이의가 없음.

그리고는 훈에게.

개털: 이 집 열쇠를 이리 내오.

훈, 오작녀를 본다.

훈: 오작녀가 말아 있소. / 오작녀: (한 발 나서며) 안 돼요! 남의 집 열쇠는 왜 달래는 거야요?

개털: 동무! 이 이상 우리 공작을 방해했다간 어떤 처벌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소?

오작녀: 이 집은 내 집이야요.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누구 하나 이 집에 손을 못 대요.

개털: (짐작이 간다는) 내 동무가 이 집에서 여러 해 고된 종살이를 했다는 걸 아요. 그런 사실은 중앙에 보고하겠소. 오늘 이 공작은 우리에게 맡기요. 다 알아서 처리할게니…….

오작녀: 당신네는 아무것도 몰라요! / 개털: 모르다니? 뭘 모른단 말이오?

오작녀: 당신네는 아무것도 몰라요! / 개털: 아니 도대체……. / 오작녀: 우리는 부부가 되시요!

말하고 그녀는 온몸의 맥이 빠지는 듯 눈을 감는다.

훈: (놀라는)

개털 오바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아연해서 웅성거린다.

▶ 농민 위원회 사람들 앞에서 오작녀는 훈과 부부가 되었다고 하며 훈을 구해 주려고 함.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카인의 후예」의 등장인물과 갈등 구조 ■ 문항 1 관련

지주 세력

- 박훈: 마을 대지주였던 아버지를 두었으나 평양에서 공부하고 마을로 돌아온 후로는 마을 야학을 열어 소작인들을 가르치는 일로 소박하게 지냄. 토지 개혁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함.
- 박용제: 박훈의 삼촌. 아들 혁과 함께 마을에서 지주로서 내물릴 처지에 처해 있음.
- 오작녀: 박훈을 어린 시절부터 사랑해 왔으나 신분의 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감. 그로부터 소박을 맞아 마을에 돌아와 있다가 박훈의 살림을 돌봐 주게 되면서 그에 대한 감정을 이어 가고, 지주들이 재산 몰수 위기에 처하자 소작인인 자신이 박훈과 부부를 이루는 것으로 박훈을 구하려고 함.

↔
갈등

농민 위원회 세력

- 개털 오바: 공산당에서 파견한, 마을 농민 위원회를 주도하는 인물. 도섭 영감 등의 인물들의 결단력 있는 행동을 요구함.
- 도섭 영감: 박훈 집안의 마음으로 평생 살아온 인물. 오작녀의 아버지.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토지 개혁이 시작되자 자신의 앞가림을 위해 박훈 집안을 등지고 토지 개혁에 앞장섬. 오작녀를 보내 박훈을 돌봐 주라고 지시했었던 적이 있었으나 토지 개혁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딸에게 박훈을 배신할 것을 요구함.

포인트 2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련 사건 ■ 문항 2 관련

북한 토지 개혁

해방 직후 북쪽에 들어선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는 1946년 3월 토지 개혁 법령을 발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노동자,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거나 국유화하는 방안을 추진함. 이 과정에서 지주들과 유산가들을 학살하거나 추방하는 숙청 과정이 동반되어 많은 사람들이 월남을 선택하기도 함.

- 지문에서 박훈의 집에 농민 위원회 사람들이 몰려와 재산을 몰수하게 되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장면
- 박훈이 월남을 선택하는 소설의 결말

반공 이데올로기

분단과 전쟁 이후 남한에서는 북한이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 되면서 반공을 국가 제일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공산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배타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였음. 여수·순천 10·19 사건, 제주 4·3 사건, 광주 민주화 운동 등 현대사의 수많은 비극이 반공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1950~1990년대 전 세계 냉전과도 연관이 있음.

- 원작 소설은 월남 작가 황순원이 1954년 창작. 토지 개혁 과정의 잔혹함을 다루어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의도가 담김.
- 지주인 박훈과 마름 집안의 오작녀의 사랑을 다루어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서서 휴머니즘을 지향함.

포인트 3 시나리오의 특징 ■ 문항 3 관련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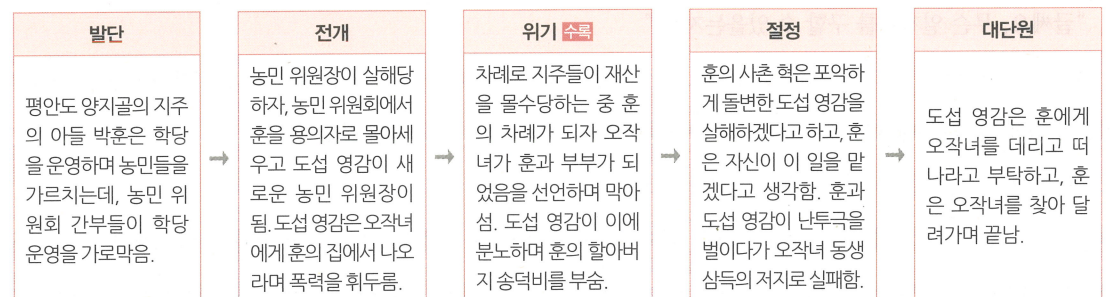
- 해설: 인물, 배경, 촬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한 글
- 대사: 등장인물이 하는 말. 극 갈래에서 사건은 대사를 바탕으로 전개됨.
- 지문: 배경, 장면 연출에 필요한 여러 효과, 등장인물의 행동과 표정, 어조 등을 지시하고 설명하는 글
- 장면 번호: 시나리오는 장면 단위로 구성되므로, 장면 번호가 필요함.

소설과의 차이

- 장면 단위로 구성됨. 배경이 되는 장소, 시간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장면으로 구성함.
- 흔히 과거형으로 서술되는 소설과 달리,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음.
- 서술성이 중시되기보다는 간결성, 시각성이 중시됨.
- 사건의 전개, 인물의 내면 묘사 등이 서술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대사과 행동, 각종 화면 효과와 음향 효과를 통해 표현됨.
- 영화·드라마 등의 제작을 위한 글로, 촬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표현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시나리오 「카인의 후예」 전체 구성



■ 북한 토지 개혁을 배경으로 한 다른 소설 - 황석영, 「손님」

한국 전쟁 시기 황해도 신천의 학살 사건(1950)을 소재로 한 소설. 미국에서 활동 중인 류요섭 목사가 형 요한의 유골을 들고 고향 신천에 방문하게 되면서, 과거에 대한 속죄를 하는 과정을 다룬다. 북한 토지 개혁이 단행되면서 당시 황해도의 기독교 세력과 공산당 세력이 크게 부딪쳐 일어난 사건을 다루며, 외래로부터 온 두 이념이 민족을 비극으로 몰고 갔음을 그린다.

■ 원작 소설 「카인의 후예」와 영화 「카인의 후예」

영화 「카인의 후예」는 지주와 농민들의 갈등, 공산주의의 폭력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개작 과정에서 몇 가지 수정을 거쳤다. 원작과는 달리 용제 영감이 살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그 장면을 잔혹하게 그린 점, 도섭 영감의 폭력성을 강조하는 시각, 청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한 점, 재산 몰수 과정을 다룬 장면에서 폭력적 언어들을 원작보다 많이 삽입한 점 등에서 이런 점이 드러난다. 전쟁 직후 이데올로기 갈등에 예민하던 시기에 제작된 이 영화는 우수 반공 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그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가 나중에 제목을 바꾼 소설로, 일제의 수탈 때문에 농촌 공동체가 황폐해진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서술자인 '나'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그'의 얼굴이 일제 강점기에 고통받은 조선 민중의 전형적인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에게 연민과 동정,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극적인 사건의 전개나 인물 간의 갈등 관계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액자식 구성을 통해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고발하는 사실주의적 경향을 보여 주는 이 소설은 결말 부분에 신민요를 삽입하여 주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주 제

일제 강점기 조선 민중의 참혹한 삶에 관한 폭로

전체 줄거리

'나'는 대구발 서울행 기차에서 기이한 옷차림과 행동을 보이는 '그'와 우연히 함께 앉게 된다. 처음에는 못마땅하게 여겨 '그'를 외면하려 하지만, 일제의 식민 지배로 고향에서의 삶이 피폐해지면서 시작된 '그'의 파란만장한 유랑 생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는 먼 객지에서 부모님을 잃고 떠돌다가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예전에 자신과 혼담이 있었으나 부모에 의해 유곽에 팔려 가고 말았던 여인을 다시 만나서 들은, 비참한 그녀의 인생 이야기도 '나'에게 들려준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일제에 대한 분노와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며, 어릴 때 부르던 노래를 같이 부른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 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서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油紙)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발은 감발을 하였는데 짚신을 신었고, 고부가리*로 깎은 머리에 모자도 쓰지 않았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양을 버선이나 양말 대신 발에 감는 좁고 긴 무명천 주로 먼 길을 걷거나 막일을 할 때 씀. 꾸미는 것이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차간에는 공교스럽게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이었으니,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의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말로 곧잘 철철대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 동양 삼국의 옷을 입고 동양 삼국의 말을 하는 '그'를 서울행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남. (중략)

노동 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묻고 나서,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지요?” / 라고 그는 매어달리는 듯이 또 재쳤다.

재우치다. 빨리 돌아오거나 재촉하다.

“글쎄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는지요.”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 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데서 오시는 길입니까?” / “홍,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 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 척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마는, 소위 중간 소작인이

란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굽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所出)의 삼수탈을 당하고 논밭에서 나는 곡식. 또는 그 곡식의 양

●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 일제 강점기의 농민 수탈
역둔토 농사를 지으며 비교적 넉넉하게 살던 '그'의 마을 사람들이 점차 생활고를 겪다가 고향을 떠나게 된 까닭은, 일제가 세운 동양 척식 회사에 소작료를 무는 것은 물론 중간 소작인에게 또 한 번 착취를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김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쳐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이러쿵저러쿵 남의 흉을 보는 입의 놀림

▶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자 수탈로 인해 고통받게 된 '그'의 고향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 가는 이의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田野)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형세로 적어도 일 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 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밭전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역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 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아홉 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악으로 모진 목숨 을 이어 가던 중, 사 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치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 간도에서 '그'가 경험한 비참한 삶

“모친께정 돌아갔구마.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자셨구마.”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함은 눈물이 쏟아졌음이라.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이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에 친구들이 사 준 정종병 마개를 빼었다. 차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시었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 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다섯 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벌이를 찾아 가게 되었다.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대판*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 보았다. 벌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올화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점*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리기도 하여서 홀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돌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구경도 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 오랜 방랑 끝에 고향에 들렀다가 서울로 향하는 '그'의 사연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무원기요. 고향이 통 없어졌드마.”

“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이면 펍 변했겠지요.”

“변하고 무어고 간에 아모것도 없드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앓드마.”

폐허가 된 고향 마을의 모습

“그러면, 아주 폐동(廢洞)이 되었던 말씀이요?”

“홍, 그렇구마. 무너지다가 담만 즐비하게 남았드마. 우리 살든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지요. 암만 찾아도 못 찾겠드마. 사람 살든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지요?”

하고 그의 찌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설움이 북받침.

“씩어 넘어진 새까래, 뽕풀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드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지요? 백여 호 살든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지요?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 “참! 가슴이 터지드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싶었다.

‘그’의 모습이 당대에 고통받는 조선 민중의 전형이라고 느끼는 ‘나’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 패허가 된 고향 마을을 보고 절망감을 느낀 ‘그’와, ‘그’에게서 조선 민중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나’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친척 되시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마. 한 이웃에 살든 사람이구마.”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진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드마.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는 사람인데…….”

‘인연’, ‘사연’ 정도의 의미로 쓰인 말임.

“까닭이라니?” / “나와 혼인 말이 있던 여자구마.”

“하—.” /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닫혀지지 않았다.

닫히지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고나.” /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여자’의 고단한 삶에 관한 이야기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두 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그가 열네댓 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 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그런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게

데 그 처녀가 열일곱 살 된 겨울에 별안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버지는 자가 이십 원을 받고 대

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리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

매매춘 영업을 하는 집

로는 물론 피차에 한 번 만나 보지도 못하였다. 이번에는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덕과 마주치게 되었다.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궤녀*는 이십 원 몸값

을 십 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육십 원이나 남았었는데, 몸에 몸을 병이 들고 나이 늙어져서 산

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 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준 것이었다. 궤녀도 자기와 같이 십

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 거기에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이

었다. 하루해를 울어 보내고 읍내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십 년 동안에 한 마디 두 마디 배워 두었던 일본말 덕

택으로 그 일본 집에 있게 된 것이었다.

▶ ‘그 여자’의 비참한 삶의 내력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찌 그렇게도 변하는지요? 그 술 많은 머리가 홀렁 다 벗어졌드마. 눈은 폭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든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하드마.”

끼얹은

“서로 붙잡고 많이 울으셨겠지요?”

“눈물도 안 나오드마.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돌이서 정종만 한 열 병 따려 누이고 헤어졌구마.”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은 이들의 동병상련을 짐작할 수 있음.

하고 가슴을 찌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치었

음이더라. / “이야기를 다 하면 무얼 하는지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나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

‘나’가 ‘그’에게 깊은 연민과 슬픔을 느낀.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한뼘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 ‘그’에게 깊은 동정과 연민을 느끼는 ‘나’

* 고부가리: 머리를 약 1.5센티미터 길이로 자르는 것을 가리키는 일본말 ‘고부까리’.

* 역둔토: 역토(驛土)와 둔토(屯土)를 아울러 이르는 말. 나라의 경비를 마련할 용도로 농사짓던 땅을 가리킴.

* 사삿집: 개인이 살림하는 집.

* 남부여대(男負女戴):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신신하다: 마음에 들게 시원스럽다.

* 구주, 대판: 일본의 규슈, 오사카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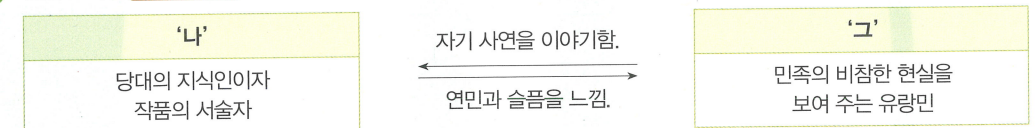
* 주접(住接): 한때 머물러 삶.

* 궤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아닌 여자를 이르는 삼인칭 대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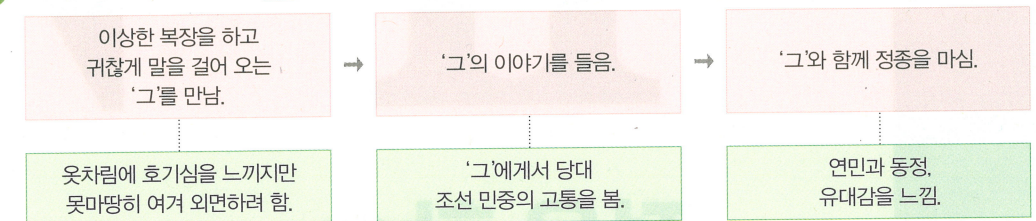
* 유산: 황산. 무색무취의 끈끈한 불휘발성 액체.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인물 관계도 문항 1, 3 관련



포인트 2 ‘그’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 문항 1, 3 관련



포인트 3 동양척식회사와 일제의 수탈 문항 2 관련

동양척식회사는 공식 명칭이 ‘동양척식주식회사’이며, 줄여서 ‘동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회사는 1908년에 일본이 조선의 경제 독점과 토지·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책 회사이다.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하면서 문을 닫을 때까지 주로 토지를 강점, 강매하여 높은 비율의 소작료를 징수하고 많은 양곡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일을 하였다.

EBS Q&A

Q 소설을 읽을 때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A 소설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맥락은 당대의 이념이나 사상, 사회 제도나 문화적 관습, 사회 질서에 대응하는 인물의 삶의 방식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작품 속 모든 요소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인물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사건을 겪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관에 준거해 사건을 바라보는가 하는 설정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반영되지요. 따라서 작품 속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속에서 인물들이 어떤 심리를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가) 원가 - 신충

EBS 수능특강 문학 046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신라 효성왕 때 신충이 지은 향가이다. 『삼국유사』에 배경 설화와 함께 원문 8구가 전해진다. 후구는 소실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원래 10구체 형식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 작품을 잣나무에 걸어 놓자 잣나무가 말라 버리고, 신충의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잣나무가 다시 소생되었다는 배경 설화에 의거해 「해성가, 처럼 주술적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 약속을 어긴 임에 대한 원망과 소외감, 괴로움과 좌절감이 작품 전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원망의 언어가 주술적 힘을 얻게 된 것으로 설명한다. '잣', '달', '물'의 비유를 통해 시적 정황과 이별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서정성을 인정받는다. 제시된 자료는 김완진의 향찰 해독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주제

약속을 저버린 임을 원망하는 마음

질(質) 좋은 잣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사물)

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매,

계절적 배경(잣이 맺힌 채 남아 있음.)

너를 중(重)히 여겨 가겠다 하신 것과는 달리

화자에게 임이 했던 약속(임의 장담)

낮이 변해 버리신 겨울에여,

겨울이 되어 변해 버린 처지와 상황(변해 버린 임의 태도)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 갖

시간적 배경, 어두운 밤

공간적 배경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

지나가는 물결을 바라보는 모래의 상황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임)을 바라보는 화자의 처지를 '모래'에 빗대어 드러냄.

세상 모든 것 여희여 버린 처지(處地)여,

화자의 처지를 '세상 모든 것 잃어버린' 듯한 상황에 빗대어 드러냄.

(변해 버린 임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

物叱好支栢史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

汝於多支行齊教因隱

仰嘆隱面矣改衣賜乎隱冬矣也

▶ 1~4구: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 하던 임이 변해 버린 상황

月羅理影支古理因淵之叱

行尸浪 阿叱沙矣以支如支

貞史沙叱望阿乃

世理都 之叱逸鳥隱第也

(後句亡)

(후구망), 10구체 향가의 9행, 10행, 즉 뒤 구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표시함.

▶ 5~8구: 지나가는 물결을 바라보는 모래처럼 안타깝고 괴로운 화자의 심정

●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화자가 주목하고 있는 '질 좋은 잣'이 배경 설화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이 누구일지 등을 떠올리며 읽어 내야 함. 또한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가진 분위기, '지나가는 물결'과 '모래'의 관계 등을 정리해 보는 것이 시적 상황과 주제 의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잣'을 바라보다가 떠올린 임의 약속 문항 1 관련

질 좋은 잣	가을이 되어 맺힌 잣	잣나무를 보며 화자와 임이 함께했던 시절을 떠올림.
	잣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화자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	임이 화자에게 했던 말(약속)	잣나무를 두고 임이 화자에게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을 떠올림.
	임의 말을 믿고 있던 화자	



'질 좋은 잣'을 바라보며 임이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떠올림.

포인트 2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문항 3 관련

낮이 변해 버리신 겨울	'겨울'처럼 차갑게(냉정하게) 느껴지는 임의 낮(얼굴, 모습, 태도)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	떠나가는 임(=물결)을 바라보기만 하고 따라갈 수 없는 화자(=모래)의 상황
세상 모든 것 여희여 버린 처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임으로 인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화자의 절망감(실망감)



• 화자는 실제로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임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임.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14편의 향가

신라 시대에 생겨나 고려 때까지 창작된 우리나라의 노래 중 향찰로 표기된 노래를 향가라 한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향가는 총 25수로 그중 14수가 『삼국유사』에 실려 전한다. 향가는 한 작품을 이루는 행수에 따라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사뇌가)로 나눈다. 향가의 형식에 따라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작품과 작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중 본문으로 제시된 「원가」는 원래 10구체 향가이지만, 9, 10행이 소실된 상태로 전한다.

구분	향가 제목 (창작 시기 순)
4구체 향가	서동요(서동), 풍요(작자 미상), 한화가(견우 노인), 도술가(월명사)
8구체 향가	모죽지랑개(득오), 처용개(처용)
10구체 향가(사뇌가)	해성가(웅천사), 원왕생가(광덕 또는 그 아내), 원가(신충), 제망매가(월명사), 찬기파랑개(충담사), 안민가(충담사), 도천수관음가(희명), 우적가(영재)

■ 「원가」의 배경 설화에 대한 이해

「원가」가 실려 있는 『삼국유사』 권5 피은(避隱) 제8 '신충과관'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효성왕이 잠저에 있을 때 어진 선비 신충과 더불어 궁정의 잣나무 밑에서 바둑을 두면서 일찍이 말하기를 “훗날 만약 그 대를 잇는다면 저 잣나무가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하니 신충이 일어나서 절했다. 몇 달 뒤에 효성왕이 왕위에 올라 공신들에게 상을 주면서 신충을 잊고 차례에 넣지 않았다. 신충이 원망하여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였더니 나무가 갑자기 말라 버렸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사람을 보내 살펴보게 했더니 노래를 얻어다 바쳤다. 왕이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정무가 복잡하고 바빠 각궁*을 거의 잊을 뻔했구나.” 이에 신충을 불러 벼슬을 주니 잣나무가 그제야 다시 살아났다. 그 노래는 이러하다. (노래는 본문과 같음.) 후구는 없어졌다. 이로써 신충에 대한 총애가 양조에 드러났다.

* 각궁: '신충'을 이르던 별칭. '몸을 삼가고 정성을 다한다.'라는 의미로 그의 성품이나 태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임.

삼국을 통일한 지 60여 년이 지난 8세기인 효성왕 대에 신라는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원시적 주술의 세계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훗날 「원가」의 절절한 상황을 들은 후대인들이 아마도 그렇게 되었으리라는 상상에서 나타난 변해진 설화의 모습인 것이고, 신이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삼국유사』의 편찬자인 일연 역시 채록한 설화를 그대로 전제한 것이라고 보인다. 효성왕은 15살쯤 즉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도와줄 사람 없이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천체의 변란이 나타나는 등 정치적 어려움이 많은 상태에서 신충을 불러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즉위 3년째인 739년에야 신충을 중시로 삼은 것이다.

EBS Q&A

Q 배경 설화를 잘 몰라도 향가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까요? 문항 1 관련

A 문항 '1'은 <보기>에 배경 설화를 제시하여, 제시된 작품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전 문학 작품 중에는 관련 배경 설화를 알면, 작품의 새로운 모미를 느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서정적 성격이 짙은 작품들은 관련 지식 없이도 화자의 처지나 상황, 화자가 대상에 대해 지닌 태도, 화자의 어조나 성격, 화자가 드러내려는 심리나 정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감상이 시작됩니다. '질 좋은 잣'이 왜 언급되었는지 몰라도, 해당 소재를 바라보며 임이 했던 말(약속)을 떠올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가 느낄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을'에서 '겨울'로 옮겨 가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화자에 대한 임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품 안에서 제시된 상황을 파악하고 화자의 정서를 중심으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포착하며 적극적으로 읽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 진중음 _ 이순신

EBS 수능특강 문학 046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큰 공을 세운 이순신이 지은 한시(오언 율시)로, '진중음'이란 제목으로 알려진 세 작품 중 하나이다.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바다를 지키던 화자는 높은 누각에 올라 하염없이 생각에 잠긴다.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고 있지만 난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자신의 명성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소망이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변방의 근심을 평정하고 '귀거래사'를 읊으며 자연과 함께 사는 것임을 고백한다. 태평한 나라를 염원하는 충신의 마음과 명성에 연연하지 않고 전원생활을 꿈꾸는 선비의 마음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주제 하루빨리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고 전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계절적 배경

한바다에 가을바람 불어오는 이 밤

매우 깊고 넓은 바다 시간적 배경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 하염없이 생각에 잠기네

공간적 배경, 화자 홀로(외로이) 앉아 있음,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의 고민, 국난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염려, 걱정)

어느 날에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

화자가 바라는 상황을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

지금 바로 큰 난리를 겪고 있는 때라네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임진왜란)

업적은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려 하건만

전쟁을 이끌어 낸 공적

이름은 오히려 온 세상이 알게 되네

화자의 이름, 명성(名聲), 세상에 알려진 좋은 평판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도연명의 귀거래사* 웅당 읊으리

전원생활의 즐거움, 상징적 의미, 관습적 표현

*귀거래사: 중국 진나라 도연명이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지은 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드러냄.

水國秋風夜
수국추풍야

수국추풍야

초연독자위

태평복하일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대란속자시

●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작품 전체에서 화자의 처지, 화자가 처한 외부 상황이나 역사적 사건, 화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화자가 지향하는 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함. 이 시를 지은 작가가 '이순신'임을 떠올리면서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나 배경지식을 떠올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시적 화자의 처지(상황)와 바람 문항 2 관련

시인 이순신	한바다	→	화자의 처지 (상황)	전쟁(임진왜란) 중에 바다를 지키는 장수로서 홀로 앉아 고민에 잠김.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			
	큰 난리		화자의 바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전원생활을 누리고 싶은 마음
	이 나라가 다시 태평			
	변방의 근심을 평정			
	귀거래사			

포인트 2 '많은 사람들' vs '온 세상' 문항 3 관련

많은 사람들	그가 세운 업적	온 세상
이순신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시기, 질투하여 업적을 깎아내리려 함.	이순신	이순신이 세운 업적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게 됨.
	그의 이름(명성)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한시의 구성 방식 - 「진중음」의 기승전결 중심으로

구성	단계	「진중음」
기	시상을 일으키는 단계	전란 중에 한바다 누각에 홀로 앉아 고민에 빠짐.
승	시상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는 단계	국난을 극복하고 태평한 시절을 회복하기 바라는 마음
전	장면과 시상을 새롭게 전환하는 단계	자신의 업적과 명성이 알려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떠올림.
결	전체를 묶어 여운과 여정이 깃들도록 끝맺는 단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평화로운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 염원

→ '기승전결'은 동양의 전통적 시 작법(作法)의 하나로, 절구나 율시처럼 4개의 의미 단락으로 구분되는 한시(漢詩)를 지을 때 주로 사용된다. 소설이나 희곡 등 창작 서사물에서 그 줄거리나 구성을 고안하는 방식으로 자주 활용된다.

■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 임진왜란(정유재란)* 중 이순신의 백의종군

임진왜란(정확하게는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의 백의종군은 그의 나이 53세 때(1597년)에 있었다. 그가 백의종군한 것은 당시 선조의 자의적인 판단과 일본군의 간계, 당쟁에 따른 조정 일부 신료들의 모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는 그 해 2월 26일에 한산도에서 체포되어 4월 1일에 풀려났고 초계(합천 울곡)에 있던 도원수 권율의 진영에 가서 백의종군을 하게 된다. 그가 다시 삼도 수군통제사로 임명되는 8월 3일까지 약 4개월간이 그의 백의종군 기간이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순신에게는 조정을 속이고 임금에게 무리한 죄, 적을 치지 않고 나라를 저버린 죄, 남의 공을 가로채고 남을 모함한 죄 등이 적용되었다고 한다.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1592년부터 7년간의 전쟁 시기를 역사적으로는 임진왜란(1592~1596)과 정유재란(1597~1598)으로 구분함.

EBS Q&A

Q 특정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문항 3 관련

A 문항 '3'은 (가)와 (나)에 사용된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고 비교하는 문항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나 '온 세상'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사물이나 수많은 대상들을 떠올리게 하지만, 앞뒤 맥락에서 조금 다른 의미로 파악됩니다. (가)의 경우, 화자가 스스로를 두고 '세상 모든 것'을 '여혀버린 처지'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이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임에게 버림받은 듯한 자신의 처지와 그 상실감이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만큼 크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의 경우 '온 세상'은 '온 세상 사람들'의 의미로 파악해야 합니다. 화자의 이름, 즉 명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시어나 소재는 화자가 처한 상황과 전후 맥락을 통해 그 의미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표현 의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 만전춘별사 _ 작자 미상

(나) 내 영혼 술에 섞여 ~ _ 김삼헌

(다) 창밖에 가마솔 때우라는 장사 ~ _ 작자 미상

EBS 수능특강 문학 048쪽

감상 포인트

- 이 작품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고려 가요 중 대표작으로 꼽힌다. 임과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정이 진솔하게 나타난 작품으로, 과장된 표현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남녀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 이 작품은 추상적 대상인 '영혼'을 술에 섞을 수 있다는 참신한 발상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을 잊고 다른 이를 마음에 두고 있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평시조이다. 임의 마음속을 찾아다니며 다른 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다 태우겠다는 화자의 말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그리움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 이 작품은 대화체의 형식을 통해 이별의 고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실시조이다. 화자는 '이별 나는 구멍'을 막을 수 있는지를 장사에게 묻고 있는데, 장사는 천하의 영웅호걸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그들도 '이별 나는 구멍'을 막을 수 없다고 답하고 있다. 이에 화자는 임과 오랫동안 이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한탄하고 있는데, 임과의 이별을 때울 수 있는 구체적 대상으로 사물화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과 이별의 슬픔을 드러낸 참신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주 제

- 임과의 영원한 사랑 기원
-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임의 사랑을 얻겠다는 의지
-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한탄

가) 얼음 위에 맺인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좋지 않은 점자리, 임과 화자의 사랑을 방해하는 냉혹한 현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가운 속성'에 해당 → '정 둔 오늘 밤'

얼음 위에 맺인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정(情) 둔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임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뜨거운 속성'에 해당 → '얼음 위에 맺인 자리'

▶ 1연: 임에 대한 사랑의 의지

경경(耿耿) 고침상(孤枕上)*에 어느 잠이 오리오

임과 이별한 상황을 의미함.

서창(西窓)을 열어하니 도화(桃花)*가 발(發)하도다

열어젖히니

도화는 시름 없어 소춘풍(笑春風)*하도다 소춘풍하도다

화자와 대비되는 감정. '도화'가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시어

▶ 2연: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복숭아꽃. 근심 없이 봄을 즐기는 존재라는 점에서 임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됨.

넋이라도 임을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현실에서는 화자가 임과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함.

넋이라도 임을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고려 가요 '정과정'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나타남.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 3연: 임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에 대한 원망

오리*야 오리야 아련 비오리야

관점에 따라 '연약한'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얼룩진'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됨.

여울은 어디 두고 소(沼)에 자리 오느냐

연못. 오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곳 ①

소마저 얼면 여울도 좋으니 여울도 좋으니

강이나 바다 따위의 바닥이 얼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 오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곳 ②

▶ 4연: 임에 대한 기다림

* 경경 고침상: 근심에 싸여 있는 외로운 잠자리.

* 소춘풍: 봄바람을 희롱함.

* 벼기더시니: 부기시던 이가. 또는 어기신 이가.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각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과 표현 효과가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파악해야 함.

물음의 방식, 동일 문장 반복, 속성 나열	주제나 시적 상황을 강조하는 데 주로 활용함.
말을 건네는 방식	화자 또는 대상의 정서 전달에 효과적임.

나) 내 영혼 술에 섞여 임의 속에 흘러들어

▶ 초장: 자신의 영혼을 술에 섞어 임의 마음속에 들어감.

불가능한 일, 추상적 대상인 '영혼'을 '술'과 섞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창의적 발상이 드러남.

굽이굽이 창자를 다 찾아다니랴

▶ 중장: 임의 마음속을 굽이굽이 찾아다니.

여러 개의 굽이. 또는 휘어서 굽은 곳임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은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나타냄.

날 잊고 남* 향한 마음을 다 태우려 하노라

▶ 종장: 다른 이를 생각하는 임의 마음을 태우려 함.

'임'이 화자 대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음을 나타냄. 화자의 영혼이 술에 섞여 임의 속으로 흘러들어 가겠다고 생각한 이유에 해당함.

'이별' 상황을 수선했을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한 창의적 발상이 드러남.

다) 창밖에 가마솔 때우라는 장사* 이별 나는 구멍도 때우는가

▶ 초장: 이별 구멍을 때울 수 있느냐는 '나'의 물음

화자가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인물

장사의 대답하는 말. '진시황 한 무제는 천지를 호령하되 위엄으로 못 막고 제갈량의 천하 경영하는 재주

『』: '장사'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화자의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함.

로도 막았다는 말 못 들었고 하물며 서초 패왕의 힘으로도 능히 못 막았으니 이 구멍 때우라는 말이 아마도

우스워라.

▶ 중장: 이별 구멍은 그 누구도 때울 수 없다는 '장사'의 대답

진실로 장사의 말과 같을진대 긴 이별인가 하노라

▶ 종장: 임과 오랫동안 이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나'의 한탄

임과의 이별을 막을 수 없다는 화자의 절망적 현실 인식이 드러남.

중국 진(秦)나라 말기의 무장인 '항우'를 가리킴. 이름은 적(籍), 우는 자(字)로 숙부 항량(項梁)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유방(劉邦)과 협력하여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스스로 서초(西楚)의 패왕(霸王)이 되었음. '힘이 매우 센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이며, 문학 작품의 주요 소재로 활용됨.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상황에 주목하여 시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함.

도화	'경경 고침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화자와 대조됨.
오리	'여울'을 두고 '소'에 지려 음.
남	임이 '나'를 잊게 된 원인
장사	'이별'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가)~(다)의 표현상 특징 문항 1 관련

(가)	•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며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강조함. •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임과 이별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냄. • 객관적 상관물인 '도화'를 활용하여 임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를 드러냄.
(나)	• 독백적 진술을 통해 자신을 잊고 남을 생각하는 임의 마음을 태우고 싶다는 화자의 바람을 드러냄. •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냄.
(다)	•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바람을 드러냄. • 역사적 인물들의 능력을 나열하며 임과의 이별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

포인트 2 (가)~(다)에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 문항 3 관련

만남	(가) '정(情) 둔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일정하게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에 변화를 주고 싶음. → 임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은 바람을 드러냄.
이별 상황	(다) '이별 나는 구멍도 때우는가'	이별 상황을 수선했을 수 있는 대상으로 사물화함. → 임과의 이별을 원하지 않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냄.
그리움	(가) '넋이라도 임을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나) '내 영혼 술에 섞여 임의 속에 흘러들어, '남' 향한 마음을 다 태우려 하노라'	추상적 대상인 '넋'은 임과 함께할 수 있음. → 임과의 이별로 인한 힘겨움과 그리움을 드러냄. 추상적 대상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물리적인 변화로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사물화함. → 자신을 멀리하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냄.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만전춘별사」의 뒷부분과 전체 구성

(1) 5연 및 6연

남산(南山)에 자리 보아 옥산(玉山)을 베고 누워 / 금수산(錦繡山) 이불 안에 사향(麝香)각시*를 안고 누워
남산에 자리 보아 옥산을 베고 누워 / 금수산 이불 안에 사향각시를 안고 누워
약(藥) 든 가슴을 맞추옵사이다 맞추옵사이다

▶ 5연: 임과 함께 지내고 싶은 욕망과 상상

아소 님하 / 원대평생(遠代平生)에 여윌 줄 모르옵세

▶ 6연: 임과의 영원한 사랑 기원

*사향각시: 사향이 든 주머니. 사향은 사향노루의 사향샘을 건조하여 얻는 향료로, 상대방을 유혹할 때 쓰는 재료.

(2) 전체 구성

1연	임에 대한 사랑의 의지	3연	임에 대한 원망	5연	임에 대한 욕망과 상상
2연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4연	임에 대한 그리움	6연	임과의 영원한 사랑 기원

→ 2연과 5연은 다른 연에 비하여 한자어가 많고, 3연은 고려 가요 「정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당시 유행하던 노래를 합성하여 「만전춘별사」라는 노래로 만들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 「만전춘별사」의 4연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

(1) 임이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함의 표현: 이 관점에서는 '비오리'의 습성에 주목한다. 비오리는 여름에는 산간 계류에서 지내다 겨울이면 연못이나 강가로 서식지를 옮기는데, 비오리가 소에 날아오는 이유는 소가 얼어서가 아니라 소가 어는 때가 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때문에 이 관점에서는 '여울도 좋으니'를 '소가 여울만큼도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소마저 얼면 여울도 좋으니'를 '소가 얼 만큼 추워지면 소가 여울만큼도 좋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이 표현을 화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이 좋은 곳으로 오십시오.'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4연은 화자가 비오리의 입을 빌려 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 이 관점에서는 3연의 '넋이라도 임을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에 주목하여, 임은 부인이 있음에도 화자와 정을 통하는 남성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4연의 '여울'을 오리가 있어야 하는 곳, '소'는 오리가 기웃거리고 있는 곳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본다면 화자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 탄 곳을 기웃거리고 있는 오리에게서 자신을 외롭게 만든 임의 모습을 발견한 후, 비오리를 향해 있어야 할 곳인 여울(부인)은 어디 두고 소(화자)에 자러 오느냐고 묻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소마저 얼면 여울도 좋으니'는 '소가 제 기능을 못하면 '여울'이 좋아할 텐데, 화자는 결코 '소마저 얼'어 버리는 단계에 가지 않을 것이기에 '오리'는 자신의 곁에 머물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Q 여러 작품을 비교하며 소재의 기능이나 역할을 묻는 문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문항 2 관련

A 문항 2는 「만전춘별사」의 '도화'와 '오리', 그리고 (나) 시조의 '남'과 (다) 시조의 '장사'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문항 형태로는 마치 (가)와 (나), (가)와 (다), 그리고 (나)와 (다)에 사용된 각각의 소재의 기능과 의미를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별 작품 내에서만 각 소재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면 되는 문항입니다. 즉, (가)의 '도화'와 '오리'는 (나), (다)와 상관없이 (가)의 작품 속 맥락을 통해 파악하고, (나)의 '남' 역시 다른 작품과 상관없이 (나)의 작품 속 맥락만을 고려하여 파악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각 작품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 그리고 화자의 상황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에서는 '경경 고침상에 어느 잠이 오리오'를 통해 임과 이별한 화자가 외로움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으며, '도화는 시름 없어 소춘풍'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처지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도화'는 자연물이기에 의지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자를 조롱하거나 놀리거나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은 화자의 심정을 조롱하는 대상'이라는 ㉠번 선지와 ㉡은 화자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자연물'이라는 ㉡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한다면, 어렵지 않게 문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전 시가

03

월곡답가_정훈

EBS 수능특강 문학 051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전체 10수의 연시조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일관되게 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인 '월곡'은 작가가 존경하는 인물로, 작가는 대상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자신의 심회를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정계에 진출하지 못한 향촌 사족으로서 현실에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때 '월곡'은 속세에 초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되며 작가의 이상적인 지표로 설정되어 나타난다.

주 제

'월곡'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

옛사람 이제 사람 이목구비 같건마는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고

옛사람에 대한 그리움

이제도 옛사람 계시니 괴 내 벗인가 하노라

옛사람과 같은 '월곡'

'월곡'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

<제1수>

▶ 제1수: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

내 양자* 하 험하니 비누 성적* 아니하네

교언영색(아첨하는 말과 일랑거리는 태도)하지 않는 화자

분 바른 각시님께 다 웃고 다니거든

<제2수>

▶ 제2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를 알아봐 주는 벗

엇그제 지나간 한 분이 혼자 곱다 하노라

다른 사람들과 대조되는 '월곡' 화자를 알아주는 '월곡'의 면모

청송으로 울을 삼고 백운으로 장 두르고

강호 안에서 유유자적하는 '월곡'

초옥 삼간에 숨어 계신 저 내 벗님

자연은 속세와 차단된 공간으로 형상화됨.

홍중에 진념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속세의 번다한 잡념이 없음.

<제4수>

▶ 제4수: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벗에 대한 예찬

●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화자가 그리워하는 '월곡'은 '홍중에 진념이 없는' 인물로서 화자에게는 흠모와 존경의 대상으로 나타남.

벗님 사는 땅을 생각코 바라보니

용추동 밖이오 구름다리 위로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있음을 나타냄.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월곡'에 대한 흠모의 마음

<제5수>

▶ 제5수: 벗을 찾아가고 싶은 화자의 간절함

● 문제 해결 키 문항 2, 3 관련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달이 밝은 제는 잔을 들고 생각하고 / 시절이 좋은 제는 경을 보고 그리노라', '마음만 길 알아 두고 오락가락하노라' 등 화자가 '월곡'을 그리워하는 모습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

달이 밝은 제는 잔을 들고 생각하고

시절이 좋은 제는 경을 보고 그리노라

사람이 털 괴운* 탓으로 잊힐 적이 적어라

잊을 수가 없음.

<제6수>

▶ 제6수: 벗에 대한 흠모

뫼는 침침하고 구름은 잿았으니

□: '월곡'과 화자 사이의 장애물

고인의 집 땅이 바라도 볼 성 없다

마음만 길 알아 두고 오락가락하노라

'월곡'에 대한 흠모의 마음

<제7수>

▶ 제7수: 벗에 대한 그리움

상산에 채지하러* 부디 넷이 가리런가

쫓을 이 없는데 우리 둘이 가사이다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들도 보도 마사이다

속세를 비판적으로 인식함.

<제9수>

▶ 제9수: 벗과 함께 세상을 초탈하고 싶은 마음

방장산 기슭에서 신선님네 만나신가
 속세와의 단절감이 신선 모티프를 통해 드러남.
 얼핏이 보아든 내 말씀 전하소서

산중에 타시는 청학을 나도 타다 어퍼하리 <제10수>

신선이 살고 있는 자연: '월곡'이라는 친우와 함께 그리는 이상적 세계에 대한 표상

▶ 제10수: 선계에 대한 동경

- *양자: 모습. *성적: 화장. *괴운: 사랑하는.
- *상산에 채지하라: 상산으로 지초를 뜯으려. 고사 상산사호를 두고 한 말. 상산사호는 중국 진시황 때 난리를 피해 산시성 상산에 들어 가서 숨은 네 사람을 이름.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월곡'과 화자 간의 물리적 거리감이 나타나는 표현 **문항 2, 3 관련**

<제5수> 벗님 사는 땅을 생각해 바라보니 / 용추동 밖이오 구름다리 위로다
 <제7수> 뉘는 첩첩하고 구름은 잣았으니 / 고인의 집 땅이 바라도 볼 성 없다

→ 화자와 '월곡'과의 물리적 거리감을 드러냄.

포인트 2 속세와의 단절감 **문항 3 관련**

- 화자가 흠모하는 '월곡'은 자연 속에 머물고 있음.: <제4수>
- 속세와 자연 간의 단절감이 신선 모티프를 통해 드러남.: <제10수>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월곡'은 누구일까?

'월곡'이라는 인물에 대해 임진왜란 당시 대구 지방 최고의 의병장이었던 월곡 우배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작가는 궁극적으로, 당대 의병장으로서 시대의 현실에 맞서 싸우고 백성들을 보살폈던 충의지사로서의 '월곡'의 삶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시대에 대한 이해

조선 중기는 외적의 침입에 의한 임병양란의 대외적 혼란과 계해반정으로 대표되는 당쟁으로 인한 대내적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대부들은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였는데 이 현상은 지방의 경우 더 심각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지방의 사대부들은 관리로서 출세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평범한 선비로 지내거나 현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며 일생을 보내기도 했는데, 향촌 사족으로서의 제반 규범과 가치 의식을 고수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많은 시가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EBS Q&A

Q '상산사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문항 1 관련**

A 「월곡답가」 제9수에서 화자는 상산이라는 공간을 제시하며, 월곡에게 사호의 뜻을 좇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산사호는 진나라 말에 혼란한 정국을 피해 상산에서 은거했던 네 노인을 뜻하는데, 이러한 상산사호가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어 중요하게 언급된 것은 한고조 유방이 후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한고조는 한미하던 시절 부부의 연을 맺어 자신이 황제가 되는 데 큰 힘을 보탠 여후의 소생인 당시 태자 유영을 폐위하고 척 부인의 소생인 조왕여의를 태자로 책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장량의 계책으로 왕실로 초청된 상산사호가 태자를 보좌하고, 이 일을 계기로 태자의 자리가 보전됩니다. 이후 상산사호는 여러 문학 작품에서 등장하는데, 「월곡답가」에서와 같이 세상과 멀어져 강호 자연에서 은거하려는 뜻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고전 시가

04

(가) 두류산 양단수를 ~ _조식

EBS 수능특강 문학 053쪽

감상 포인트 두류산은 지리산의 다른 이름으로, 이 작품은 지리산의 뛰어난 경치를 무릉도원이라는仙境(仙境)에 빗대어 그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주 제 두류산(지리산)의 절경에 대한 예찬

두류산 양단수를 예 듣고 이제 보니

시각적 이미지 옛날에

도화 뜬 맑은 물에 산영* 조차 잠겼어라

무릉도원의 약칭으로 이상향을 의미함. 영탄법

아희야 무릉이 어디오 나는 예가 하노라

시적 청자 물음에 대해 화자가 스스로 답함.

▶ 초장: 두류산 양단수를 봄.

▶ 중장: 두류산 양단수의 아름다움

▶ 종장: 두류산 양단수를 무릉도원으로 여김.

*산영: 산의 그림자.

현대어 풀이 지리산 양단수를 옛날에 듣고 이제 와 보니
 복숭아꽃이 떠내려가는 맑은 물에 산그림자까지 잠겨 있구나.
 아이야 무릉도원이 어디냐?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시간과 공간의 표현으로 본 화자의 지향 **문항 2 관련**

시간	'예'	'이제'
	두류산(지리산) 양단수에 대해 들음.	두류산 양단수를 직접 보게 됨.
공간	'엔가 하노라'	
	지리산을 직접 보고 난 후 선경의 대명사인 무릉도원이 바로 '이곳'인가 여긴다고 하며 그 경치의 아름다움을 예찬함.	

포인트 2 이상향으로서 무릉도원 **문항 3 관련**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말로, '이상향', '별천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중국 진(晉)나라 때 호남(湖南) 무릉의 한 어부가 배를 저어 복숭아꽃이 아름답게 핀 수원지로 올라가 굴속에서 진(秦)나라의 난리를 피하여 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하도 살기 좋아 그동안 바깥세상의 변천과 많은 세월이 지난 줄도 몰랐다고 한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작가의 삶과 가치관

조식(1501~1572)은 조선 전기의 학자인데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처사로 살면서 학문 수양에 전념했다. 학자로서 명망이 높아지면서 수차례 관직 천거가 있었음에도 끝내 응하지 않았다. 바르지 못한 정치에 대한 비판의 상소를 올리기도 하는 등 실천 위주의 학문을 강조하며 투철한 선비 정신을 보여 주었다.

■ '두류산 양단수'는 어디일까?

'두류산'은 지리산을 가리키고, '양단수'는 서로 다른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두 갈래의 물줄기를 의미한다. 지리산 천왕봉 아래 산청군 시천면 사리에는 조식이 학문을 닦기 위해 지은 집인 산천재가 자리하는데, 앞으로는 지리산 덕천강이 흐른다. 덕천강은 지리산 동쪽 자락에서 발원한 대원사 계곡과 중산리 계곡의 물줄기가 덕산 일대에서 합류하여 흐르는 강으로, 옛사람들은 이 두 갈래의 물이 모이는 곳을 '양단수'라 불렀다. 조식은 이곳을 무릉도원으로 생각하고 만년에 이곳에 은거하면서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생애를 바치었다.

(나) 요일월 순건곤은 ~ 김천택

EBS 수능특강 문학 053쪽

감상 포인트 요순시절은 태평성대를 의미한다. 요순시대의 일월과 건곤(천지)은 그대로인 것과 달리 세상은 많은 것이 달라졌고, 화자는 늦게 태어난 것을 탄식하고 있다. 작가의 삶을 반영하여 평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주 제 혼란스러운 시대에 대한 탄식

요(堯)일월 순(舜)건곤은 옛날대로 있건마는
하늘과 땅을 아울러 이르는 말
세상 인사는 어이 저리 달라졌고
옛날과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이 몸이 늦게 난 줄을 못내 슬퍼하노라
감정의 직접 제시

▶ 초장: 요순시절의 자연은 그대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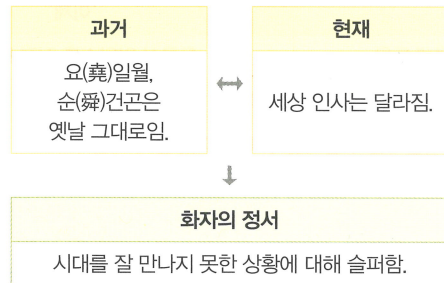
▶ 중장: 변함없는 자연과 달리 인세는 달라짐을 탄식함.

▶ 종장: 불우한 시대에 태어남을 슬퍼함.

현대어 풀이 요임금 시절의 일월, 순임금 시절의 건곤은 옛날 그대로 있건마는
세상 인사는 어이 저리 달라졌는가.
이 몸이 늦게 태어난 줄을 못내 슬퍼하는구나.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대비를 통한 사상 전개 문항 3 관련



포인트 2 요순시절과 태평성대 문항 3 관련

요순시절은 태평한 시절을 상징하는 고대 중국의 시대로,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이 이상적으로 나라를 통치한 시기를 이른다. 백성들의 생활은 풍요롭고 여유로워 심지어는 군주의 존재까지도 잊고 격양가를 부르는 세상이었다고 한다.

(다) 대장부 공 이루고 ~ 작자 미상

EBS 수능특강 문학 053쪽

감상 포인트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이다. 대장부가 공을 이룬 후에 물러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열거의 방식으로 보여 주며 지극한 충만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 제 대장부의 즐거운 삶에 대한 만족감

국가와 사회를 위해 충과 의를 실천하며 유교적 이상에 부합하는 삶을 완성함.

대장부 공 이루고 물러난 뒤에

▶ 초장: 대장부가 공을 이룬 후의 상황

임천에 초당 짓고 만권 서책 옆에 쌓고 천금준마 솔질하여 보라매 길들여 두고 노복 시켜 밭 갈리고 절대가인
자연 속에서 초가를 짓고 은거하는 삶을 살. 순(舜)임금이 오현금(五絃琴)을 타며 즐겨 불렀다는 시
옆에 두고 금준*의 술을 부어 벽오동 거문고 새 줄 엮어 무릎에 얹고 남풍시 화답하여 강구연월*에 누웠으니
푸른 오동나무로 만든 거문고를 연주하며 풍류를 즐기는 삶의 모습 ▶ 중장: 임천에 초당 짓고 순임금이 지은 남풍시를 노래하며 평화로운 세월을 보낸.
보고 듣기 좋음과 마음의 즐거움은 이뿐인가 하노라 ▶ 종장: 평화로운 삶에 대한 지극한 만족감
대장부가 공을 이루고 물러나 자연에서 은거하는 삶에 대한 지극한 만족감이 드러남.

* 금준: 금으로 만든 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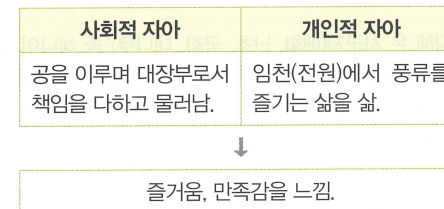
* 강구연월: 변화한 거리에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 또는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 또는 태평한 세월.

현대어 풀이 대장부 공 이루고 물러난 뒤에

전원에 초당 짓고 만 권 서책 옆에 쌓고 천금의 값이 나갈 만큼 좋은 말을 솔질하여 보라매 길들여 두고 노복 시켜 밭 갈게 하고 절대가인 옆에 두고 금으로 만든 술통에 술을 부어 벽오동으로 만든 거문고 새 줄 엮어 무릎에 얹고 남풍시 화답하여 강구연월에 누웠으니
보고 듣기 좋음과 마음의 즐거움은 이뿐인가 하노라.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화자가 보여 준 사대부의 지향 문항 2, 3 관련



포인트 2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 대장부가 공을 이루고 물러난 이후의 삶의 모습을 순행적으로 드러냄.
 - 행위의 열거: 화자의 만족감을 강조함.
- 공을 이룸. → 자연에 초당을 지음. → 책 쌓아 놓고, 준마 솔질하여, 보라매 길들여 두고, 노복에게 밭 갈리고, 술을 기울이며 여유를 즐김.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대장부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노래한 또 다른 사설시조

앞 눈에 올벼 베어 백화주를 빚어 두고
뒷동산 송정(정자) 전통 위에 활 지어 걸고 종 시켜 밭 갈리고 보라매 길들이고 천금준마 앞에 매고 조대에 고기 낚고 절대가인 앉았는데 오현금 빚겨 안고 백설 한 곡을 풍월로 섞어 노니
아마도 보고 듣기 좋음과 마음의 즐거움은 이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Q 시적 청자는 누구인가요? 문항 1 관련

A 시적 청자는 시적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입니다. 시적 청자가 작품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가) 조식의 「두류산 양단수를 ~」은 (나), (다)의 작품과는 달리 시적 청자가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종장의 '아하야'라는 표현을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시적 청자를 확인할 수 있지요. 이를 통해 시적 화자가 느끼는 경치에 대한 만족감을 대화적 어투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Q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문항 1 관련

A 운문은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갈래입니다. 이때 화자의 정서는 특정 시어를 통해 직접 제시되기도 하고, 시적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되기도 합니다. 감정을 직접 제시한다는 것은 '슬프다', '기쁘다', '두렵다'와 같이 정서를 나타내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김천택의 「요일월 순건곤은 ~」에서는 '슬퍼하노라'라는 서술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 눈 맞아 휘어진 대를 ~ 원천석

EBS 수능특강 문학 055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사군자 중 하나인 대나무를 소재로 하여, 굽힘 없는 곧은 절개를 노래한 평시조이다. 화자는 한겨울 눈을 맞아 휘어지면서도 꺾이지 않고 푸르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를 보며, 시련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곧은 절의를 노래하고 있다. 작가는 고려의 유신(遺臣)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무리의 회유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두 왕조를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유학자로서의 지조를 끝까지 지켰다. 이 작품은 그러한 작가의 절의를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주 제 대나무의 절개 예찬(고려 왕조에 대한 절의)

고난과 시련, 조선 건국 세력인 이성계 일파

변절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누라서 굽다던고

회유와 압제의 영향 지조와 절개를 상징, 고려 유신(충신)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푸를 쏘냐' '백색과 청색의 이미지 대비 → 대나무의 푸름(지조, 절개) 강조

쉽게 꺾어질 절개라면 '푸르겠는가?' 반문 → 푸를 수가 없다는 뜻(설의적 표현)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예찬적 태도

대나무(의인법)

▶ 초장: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

▶ 중장: 눈 속에서도 푸른 대나무

▶ 종장: 대나무의 절개 예찬

●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시적 배경이자 소재로서 '눈'이 무엇을 상징하며 화자의 정서와 태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함.

* 세한고절: 추운 계절에도 혼자 지키는 절개.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소재의 속성과 내포적 의미 문항 3 관련

소재	속성	시적 의미	역사적 의미
눈	차가움, 대를 눌러 휘게 함.	시련, 고난	→ 새 왕조의 압제
대	곧고 푸름.	지조, 절개	→ 충신, 고려의 유신

포인트 2 문학적 표현과 효과 문항 1, 3 관련

관습적 상징 (상징법)	전통적으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해 온 사군자(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중 하나이자 소나무, 매화와 더불어 세한삼우(겨울의 추위를 견디는 세 친구) 중 하나인, 대(竹)의 관습적 상징을 활용하여 시의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냄.
의인법	대에 인격을 부여하여 '너뿐'이라고 지칭하고 그 대가 마치 사람이 지녀야 할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굳게 지키는 것처럼 나타냄.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절의가(節義歌)

임금이나 나라에 대한 충절과 의리를 주제로 한 시나 시조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국문학사에서는 고려 말 충신들이 옛일을 회상하며 지은 회고가와, 조선 시대 세조의 왕위 찬탈에 저항한 사육신과 생육신 등이 남긴 시조가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몸이 죽어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 백골이 진토가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 정몽주

→ 고려 말기의 충신인 정몽주가 고려에 대한 충절을 노래하고 있다.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한 답가로 알려져 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 주려 죽을진들 채미도 하는 것인가 / 비록에 푸새엿 것인들 귀 뉘 땅에 뉘더냐
- 성삼문

→ 조선 전기 사육신 중 한 사람인 성삼문이 고사 숙 백이와 숙제의 절의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지조와 충절을 노래하고 있다.

(나) 연못에 비 오는 소리 ~ 작자 미상

EBS 수능특강 문학 055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자 미상의 평시조이다. 현실에서 만나지 못한 임을 꿈에서 만나 보려고 했으나 연잎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어 임과의 만남이 좌절되었다는 것이 전체적인 설정이다. 빗소리, 연잎, 물방울과 같은 자연적 소재들이 어우러져 시적 상황과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임과 만나지 못하는 화자의 아쉬움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주 제 사랑하는 임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과 슬픔

청각적 이미지

연(蓮)못에 비 오는 소리 그 무엇이 놀랍관데

임과 만날 수 있는 비현실적 방법 의문사와 쓰여 어떤 사실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강조하는 말

임 보러 가던 꿈이 못 보고 깨듯던고

▶ 중장: 꿈에 임을 만나려 했으나 빗소리에 잠에서 깨어남.

꿈속에서 임과의 만남이 좌절됨.

앞 위에 구슬만 담겨 눈물 든듯 하더라

▶ 종장: 임을 만나지 못한 슬픔

임 위에 떨어진 빗물을 비유함. 앞 위에 구슬처럼 떨어진 빗물을 눈물에 빗대어 표현함. → 애상적 정서를 나타냄.

●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시적 배경이자 소재로서 '비'의 속성이 화자의 정서와 태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이때 비와 꿈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야 함.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소재의 특징과 시적 의미 문항 3 관련

소재	특징	시적 의미
비	액체, 떨어짐(하강 이미지)	슬픔, 눈물
	연못 또는 연잎에 떨어지는 소리로 화자의 잠(꿈)을 깨움.	방해물, 장애물
꿈	임을 보러 가는 비현실적 통로	임과의 만남

포인트 2 문학적 표현과 효과 문항 1, 3 관련

청각적 이미지 활용	비 오는 소리에 의해 잠에서 깨어난다는 발상을 활용하여 임과 꿈에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연출
비유적 표현	연잎 위에 고인 빗물을 눈물에 빗대어 화자의 슬픔과 애상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고전 시가의 소재나 배경으로서 '꿈'의 역할 문항 3 관련

고전 시가에서 꿈은 비현실적 속성을 토대로 하여 현실의 한계를 넘거나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소망을 이루는 통로가 됨으로써 현실의 결핍과 갈망을 드러내는 장치로 빈번하게 사용된다. 연정가의 경우 현실에서 만나지 못하는 임을 꿈에서 찾아가 만나는 설정을 통해 임을 향한 연모의 정을 품격 있게 표현한다.

EBS Q&A

Q 문학 작품에서 상승 또는 하강 이미지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기능을 할까요? 문항 3 관련

A 문학에서 상승 이미지는 위로 오르거나 하늘을 향하는 방향의 이미지를 통해 희망, 이상, 자유, 기쁨, 정신적 고양 같은 긍정적 정서와 태도를 나타내 주며, 하강 이미지는 아래로 떨어지거나 지하로 향하는 모습을 통해 절망, 추락, 침감,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나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는 인물이나 화자의 심리와 정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작품의 주제를 강화하며, 상승과 하강의 대립 구조를 통해 시적 의미 체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하지요.

(다)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 _이정보

EBS 수능특강 문학 055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임에 대한 사랑을 오래도록 간직하고자 하는 화자의 다짐을 담은 사실시조이다. 임과 화자가 각각 오리나무와 칙령쿨로 모습을 바꾼다는 상상을 통해, 어떤 시련이 닥쳐도 임과 결코 헤어지지 않겠다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현실을 초월한 변신의 상상은 임에 대한 애정을 더욱 절실하게 드러내며, 그 사랑이 끝없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임과의 사랑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강원도의 실제 지명 제시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나는 삼사월 칙령쿨이 되어

변신 모티프

통사 구조 반복

▶ 초장: 오리나무가 된 임과 칙령쿨이 된 화자

「그 나무에 그 칙이 납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외오 풀어 옹게 감아 얹어지고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 굵이 나게 (휘휘) 감겨 주야장상(晝夜長常) 뒤틀어져 감겨 있어, 한겨울(매서운 추위) → 시련과 고난의 시기 ○ 음성 상징어(의태어) 반복 → 의미 강조 및 운율감 조성 ▶ 중장: 임과 결속되어 항상 붙어 살고 싶은 심정 동(冬) 선달 바람비 눈서리*를 아무리 맞은들 떨어질 줄 있으랴 ▶ 종장: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임을 향한 사랑 결속을 느슨하게 만드는 외부적 조건 → 방해, 시련과 고난 설의법 → 결합의 의지를 강조함.

●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의 시적 배경이자 소재로서 바람, 비, 눈, 서리 등의 기후가 화자의 정서와 태도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함.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자연물의 속성에서 비롯된 소재의 문학적 의미 문항 2 관련

		소재	속성	시적 의미	
임 화자	변신	오리나무	뿌리가 깊고 곧게 높이 자라남.	임과 화자의 강력한 결합	↓
		참(넝쿨)	줄기가 길게 뻗어 나가면서 오리나무를 감고 올라감.		
↓ 비유: 유사한 속성이 나타나는 자연물에 빗대어 의미 강화					
		납거미	나비를 그물로 감싸안아 사로잡음.	임과 화자의 강력한 결합	↑
		나비	거미에게 감기는 대상		

임과의 강력한
결합이
지속되기를
바람.

임과의 강력한 결합이 지속되기를 바람.

포인트 2 변신 모티프 사용 문항 2 관련

자연물로의 '변신'을 통해 한계적 상황을 극복하고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지속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의 화자의 태도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에서 「~ 떨어질 줄 있으랴」를 보면 의문형 종결 어미가 나타나는데, 이는 설의적 표현으로서 「임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사실시조의 형식과 주제 의식

- 형식: 평시조의 3장 6구 형식에서 벗어나 중장의 첫 구만 3글자이고 초장, 중장에서 글자 수가 제한 없이 늘어난 시조 형식이다. 장형 시조라고도 한다.
- 주제 의식: 서민의 현실적 삶에서 소재를 취하였고, 남녀의 애정이나 시정의 일상생활을 주로 다루면서 재담, 욕설까지도 재치 있는 입담으로 담아내어 서민층의 회로애락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면앙정가 _ 송순

EBS 수능특강 문학 058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작가가 고향에 내려와 면앙정을 짓고, 정자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자신의 생활을 노래한 은일 가사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면앙정 주변의 자연 풍경을 근경과 원경으로 그려 내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정경 등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 풍류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결사 부분의 「역군은 이삿다」와 같은 관습적 표현을 통해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정국인의 「상춘곡」의 영향을 받은 이 작품은 면앙정에서의 풍류 생활을 노래하면서도 유학자 본연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철의 「성산별곡」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강호가도를 확립한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제

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무등산 한 줄기 동쪽으로 뻗어 있어 / 멀리 펼쳐 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 하느라 / 일곱 굵이 한데 모아서 문득문득 벌였는 듯
「우뚝우뚝」 또는 「무더기무더기」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가운데 굵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 일곱 개의 산봉우리 중 가운데 봉우리를 잡아서 막 깨어난 용의 머리 모습에 비유하고 있음.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엮었으니, / 너럭바위 위에 송죽(松竹)을 헤치고

정자를 엮었는데 구름 탄 청학이 /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였는 듯

면앙정 원관남: 면앙정

면앙정의 지붕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음이 펼친 듯이
끊임없이

넓거든 길지 말든지 푸르거든 희지 말든지

대구와 대조의 기법을 활용하여 면앙정 앞에 흐르는 사냇물의 모습을 표현함. 정철의 「관동별곡」에 나오는 「늙거든 쉬다 마나 섯거든 솟다 마나,」 「늙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뭍다 마나」라는 구절에 영향을 줌.

쌍룡이 뒤흔드는 듯 긴 비단을 펼친 듯

쌍룡과 비단에 비유하여 옥천산과 용천산에서 내려오는 사냇물을 표현함. 대구법 활용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 바빠서 / 내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가의 모래밭은 눈같이 펼쳤는데 /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사랑하노라

앉았다 날았다 모였다 흩어졌다 / 갈대꽃 사이 두고 울면서 따르는가

기러기들의 모습을 운율감을 갖춰서 생동감 있게 표현함. 「울면서 따르」는 점에서 화자와 자연이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엿볼 수 있음.

넓은 길 바깥이요 긴 하늘 아래에 / 두르고 꽃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 면앙정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병풍」과 「그림」에 비유함. 근경에서 원경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음.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 끊는 듯 잇는 듯 숨겨니 띄게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두려워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이루고 / 용귀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느니 / 원근의 푸른 절벽에 머문 것도 많기도 많구나

「불」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②

▶ 본사 1: 면앙정의 근경과 원경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것은 산람(山嵐)」이라

안개와 노을. 「불」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①

수많은 바위 골짜기를 제집으로 삼아 두고 /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늘로 떠나거니 /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질으락 / 석양과 섞이어 가랑비마져 뿌리네

가마를 굵히 타고 술 아래 굵은 길로 / 오며 가며 하는 때에

임이 푸른 버드나무, 「여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①

「독양에 우는 피꼬리」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풀 우거지어 녹음이 짙어진 때 / 기다란 난간에서 긴 줄음을 내어 펴니

「여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②

물 위의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을 모르는가 / 뒤서리 갠 후엔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수놓은 비단. 여기서는 단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임. 「가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①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쳤는가

두런 빛깔의 구름. 여기서는 누렇게 익은 곡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임. 「가을」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②

●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구름 탄 청학	면앙정의 비유적 표현.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였는 듯」이라는 구절을 통해, 「면앙정」을 「청학」에 비유한 것을 알 수 있음.
녹양에 우는 피꼬리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 「교태 겨워하는구나」라는 구절을 통해,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정서가 이입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서사: 제월봉의 형세와 면앙정의 모습

어부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문혔거늘
'겨울'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①
조물주 헌사하여 빙설로 꾸며 내니
'겨울'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②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 눈 아래 별였구나
'겨울'이라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③
천지가 풍성하여 간 데마다 승경(勝景)이로다. 『』: 계절적 소재를 활용하여 면양정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상 전개 ▶ 본사 2: 면양정의 사계절 풍경

인간 세상 떠나와도 내 몸이 쉴 틈 없다
속세, '면양정'이 있는 자연과 대비되는 장소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화자가 즐기거나 하는 것 ① 화자가 즐기거나 하는 것 ②
밤일랑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고 / 사립문 뉘 닫으며 진 꽃일랑 뉘 쏠려노
화자가 즐기거나 하는 것 ③ 화자가 즐기거나 하는 것 ④
아침 시간 모자라니 저녁이라 싫을쏘나 /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라
실의적 표현을 통해 자연을 즐기면서 보내는 면양정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냄.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 / 번거로운 마음에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다

설 사이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라 /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
자연의 즐거움과 바빠 사람들에게 면양정에 오는 길을 전할 여유조차 없다는 의미로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에서 한가롭게 지내겠다는 화자의 자족(自足)적 태도가 드러남.
술이 익었으니 벗이야 없을쏘나 / 부르며 타이며 허이며 이아며*
●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면양정의 위치를 나타내는 구절, 화자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 구절, 면양정에서의 화자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구절, 임금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구절을 통해 작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아 함.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웠다가 앉았다가 굶었다가 젖었다가 / 읊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노니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여 취흥을 드러냄.
천지도 넓디넓고 세월도 한가하다 /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
자연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그로구나 / 강산풍월 거느리고 내 백 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의 이백이 살아온들
호탕한 회포는 이보다 더할쏘나
이백은 '여하십이등악양루(與夏十二諫岳陽樓)'라는 시에서 '누각 경치로는 악양루가 최고이니, 강물 아득히 흐르고 동정호가 탁 트였네. 기러기는 내 마음속 근심 풀고 날아가고, 산은 둥근달 머금고 다가서네. 구름 사이에 잠시 머물고, 하늘 위에서 술잔 주고받네. 취하니 또 서늘한 바람이 일어 너를 너를 추는 사람 옷소매 휘두르네.'라고 노래하며, 악양루에서 바라보는 경치의 아름다움을 찬양함.

이 몸이 이리함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이렇게 지내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로구나. ▶ 결사: 풍류 생활의 만족감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 산람: 산 아지랑이.
* 경궁요대: 아름다운 구슬로 장식한 집과 누각. 여기서는 눈 덮인 산천을 아름답게 표현한 말임.
* 옥해은산: 옥같이 맑은 바다와 은빛의 산. 여기서는 눈이 내려 산천이 하얗게 변한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말임.
* 부르며 타이며 허이며 이아며: 노래를 부르게 하며, 약기를 타고 또 켜게 하며, 약기를 흔들며.
* 악양루: 중국 동정호(洞庭湖)에 있는 누각으로, 당나라 시인 이백이 시를 지으면서 풍류를 즐긴 곳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면양정가'의 구성과 주요 소재 문항 1, 3 관련

서사	제월봉의 위치, 면양정의 모습	봄	안개, 노을, 아지랑이
본사 1	면양정 주변의 근경과 원경의 풍경	여름	버드나무, 푸른 숲
본사 2	면양정의 사계절 풍경	가을	누렇게 익은 곡식, 단풍
결사	면양정에서의 풍류 및 군은(君恩)에 대한 감사	겨울	눈 덮인 집과 누각, 눈 덮인 산

포인트 2 '면(俛)'과 '앙(仰)'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면양정가' 문항 4 관련

	면(俛)	앙(仰)
시선	• '면양정'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풍경 - 정자 앞 넓은 들 - 물가의 모래밭을 날고 있는 기러기	• '면양정'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풍경 - 병풍처럼 펼쳐진 봉우리 - 푸른 절벽에 벌여 있는 산들
시간	• '면양정'에서의 현재의 삶 - 바람을 쐬고 달을 맞이하는 삶 - 고기를 낚으며 사는 삶 - 벗들과 풍류를 즐기는 삶	• 과거의 인물과 비교한 현재의 삶 - 악양루 위의 이백과 비교하며 자신의 회포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삶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면양정'과 관련된 송순의 작품

면양정잡가(俛仰亭雜歌)	면양정가삼언(俛仰亭歌三言)
추월산 가는 바람 금성산 넘어갈 제 들 넘어 정자 위에 잠 못 이뤄 깨었으니 일어나 앉아 맞은 기쁜 정이야 옛 임 본 듯하여라 <제1수> → 정자 위에서 바람을 맞는 경취	굽어보니 땅이요 우러르니 하늘이라 그 가운데 정자 있어 호연한 흥취 일어나네 바람과 달을 불러오고 산과 내를 끌어당겨 명아주 지팡이 짚고 백년을 보내리라 →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펼치고 싶은 소망
십 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지어 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 청풍 한 간 맡겨 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돌려 두고 보리라 <제2수> → 자연에 묻혀 사는 물아일체의 삶	俛有地 (면유지) 仰有天 (앙유천) 亭其中 (정기중) 興浩然 (흥호연) 招風月 (초풍월) 挹山川 (읍산천) 扶藜杖 (부려장) 送百年 (송백년)

■ 누정 가사(樓亭歌辭)란?

누정 가사란 누각과 정자가 위치한 자연에서의 삶을 노래한 가사로, 강호 가사의 한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강호 가사는 정극인의 '상춘곡'에서 시작되었지만 누정 가사가 나옴으로써 그 맥을 크게 형성할 수 있었다. 조선조 최초의 누정 가사는 송순의 '면양정가'이다. 정자 주변의 풍경과 풍류 생활, 사계 묘사 등은 후대 작품에서도 두루 나타난다는 점에서 '면양정가'는 누정 가사의 전형 을 만들어 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누정 가사는 가사 문학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정철이 식영정을 중심으로 '성산별곡'을 지음으로써 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어 16세기 말에 이현의 '백상루별곡'이 나왔고, 17세기에는 김득연의 '지수정가' 등 다수의 작품이 나타나는 등 19세기까지 창작이 이어졌다. 자연으로 물러나 그 지역 풍경을 완성하면서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노래한 '상춘곡'류의 작품과 누정을 중심으로 한 누정 가사가 강호 가사의 주류를 이루며 오다가 18세기에 이르면 강호 가사가 쇠퇴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향촌 사족을 중심으로 한 가사들이 등장하면서 변모 양상을 보였다.

EBS Q&A

Q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하는 문항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문항 3 관련

A 문항 '3'은 '면양정가'와 김득연의 '지수정가'의 특정 구절을 비교하여 감상한 후, 두 구절의 표현상의 특징과 화자의 태도 및 정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당황하지 말고 작품별로 선지에서 묻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①와 달리 <보기>는 구체적인 지명들을 언급하며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①번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면양정가'의 해당 구절에 '구체적 지명'이 언급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기>에 '구체적 지명'이 언급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보기>에서는 '곡구암 반타암'이라는 지명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기>의 '곡구암 반타암'이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이 맞는지 확인하면 ①번 선지가 적절 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한다면 어렵지 않게 문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_이상화

EBS 수능특강 문학 082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창작된 시이다. 화자는 '빼앗긴 들'로 표상되는, 지금은 남의 지배를 받게 된 국토에 진정한 '봄', 즉 광복이 찾아올지 물으면서, 국권 상실의 아픔과 국권 회복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주 제 국권 상실의 울분과 국권 회복에 대한 소망

조국의 광복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식민 치하의 국토

▶ 1연: 국권 침탈에 대한 인식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지평선. 희망을 환기함.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곧게 쪽 뻗은

몽환적 분위기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 의인화된 청자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국권 상실의 비애감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위라 말을 해 다오.

▶ 2, 3연: 아름다운 봄 경치에 이끌리지만 답답한 심정

자기만의 의지로 이 들판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는 화자가 '하늘'과 '들'에게 말을 해 달라며 던지는 물음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 의인화된 존재

한 자옥도 썼지 마라* 웃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 '한 자옥도 썼지 마라'의 의미
'바람'이 화자의 웃자락을 흔들면서 하는 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봄날 국토의 아름다운 풍경에서 받은 화자의 감격을 표현하기 위한 시구임.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대지의 생명력을 환기하는, 의인화된 청자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보리들이 비에 깨끗이 씻긴 보리밭의 산뜻한 모습을 시각화한 의인화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도랑이 흐르는 모습을 시각적, 역동적으로 표현함.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청각적 이미지로 모성(母性) 부여

나비 제비야 **깎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김매던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전통적 한국 여인의 이미지

●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 '깎치지 마라'의 의미
나비와 제비에게, 너무 재촉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것으로, 봄날 국토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고 싶은 화자의 감흥을 노래한 시구임.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 살찐 젃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모성적 이미지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팍조차 흘리고 싶다.

국토에 대한 애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함.

▶ 4~8연: 봄을 맞은 국토의 활기찬 모습과, 그에 대한 애정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철없는 행동에 빠져 있는 화자 자신을 빗댄 표현

짚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담은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자조적 태도

나는 온몸에 꽃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 봄날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과 일제 강점으로 인한 암담한 현실 인식이 공존함으로써 빚어진 부조화를 환기하는 표현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켰나 보다.

▶ 9, 10연: 암담한 현실에 대한 깨달음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1연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자 위기의식의 반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 11연: 조국의 현실에 대한 재인식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 비유(의인법, 직유법 등)와 상징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으로 정서를 구체화함.
- 향토적 소재의 사용으로 국토에 대한 사랑을 강조함.

포인트 2 시상의 전개 문항 3 관련

화자의 정서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식함. → 아름다운 봄 경치에 끌려 몽상의 상태에 빠짐. → 국토의 아름다움에 대한 애정을 표출함. → 현실을 재인식하며 위기의식을 느낌'과 같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대칭적 구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즉 1연과 11연을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고, 2연과 10연, 3연과 9연을 각각 대칭되게 구성함으로써, 질문에서 대답에 이르는 인식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이상화의 시 세계

한국 문학사에서 시인 이상화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에 자리한다. 하나는 퇴폐와 관능의 세계이다. 이 세계에 자리하고 있는 이상화의 대표작은 「나의 침실로」이다. “네 손이 내 목을 안아라, 우리도 이 밤과 함께 오랜 나라로 가고 말자.” 흑여 날이 새까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돈나’가 자신의 침실에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화자의 달뜬 숨결엔 분명 관능의 흔적이 담겨 있다. 다른 하나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담긴 투쟁과 저항의 세계이다.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마치 선문답과도 같은 느낌을 주는 첫 시행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긴밀하게 조응함으로써 한 문장에 담기 어려운 묵직한 의미를 담아낸다. (중략) 이처럼 이상화의 시 세계에서 확인되는 ‘퇴폐’와 ‘저항’은 모두 현실에 대한 강한 부정을 전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완전히 분리된 대립적 시 세계로 인식하는 것은 두 세계의 관계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퇴폐’와 ‘저항’은 저 깊은 곳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 이종원, 「환상 속에서 길을 찾다」

(나) 초토의 시 1_구상

EBS 수능특강 문학 082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6·25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바탕으로 창작한 열다섯 편의 연작시 중 첫 번째 시이다. 초토(焦土)는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땅을 이르는 말인데, 이는 6·25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우리 조국을 의미한다. 화자는 초토와 같은 조국의 현실에 낙담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려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주 제 전쟁으로 인한 상처의 극복에 대한 희망

판잣집 유리막지에

전쟁 후 피란민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질려 있다.

누추한 공간과 대비되는 천진한 아이들의 모습을 직유법으로 표현함.

▶ 1연: 전후의 폐허 속 천진한 아이들의 모습을 봄.

●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 '나도 돌아선다'라는 사구에 담긴 화자의 정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공간과 대비를 이루는, 티 없
이 환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화자가 슬픔, 미안함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임.

내려쪼이던 햇살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아이들의 천진한 모습이 눈부서 햇살마저 돌아선다는 뜻임.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상

▶ 2연: 전쟁의 비극을 인식하며 괴로움을 느낌.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전쟁의 참화로 폐허가 된 국토

개나리가 땅울졌다.

암울한 현실을 극복할 의지와 관련된 생명력을 환기하는 소재

▶ 3연: 젓더미 속에서 개나리를 발견함.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역동적 이미지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순진무구한 모습을 한 관찰 대상

죄 하나도 없다.

▶ 4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순수한 미소를 봄.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화자의 정서에 변화가 생김.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2연과의 대비를 통해 현실 극복의 희망을 환기함.

▶ 5연: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낌.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대조적 이미지를 지닌 대상 문항 2, 3 관련

판잣집, 젓더미	개나리, 소녀의 미소
전쟁의 참상으로 인한 절망과 비애	비극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과 관련된 기대와 희망

포인트 2 '그림자'의 기능 문항 3 관련

'그림자'는 화자의 분신이자, 화자의 내면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는 대상이다.

울상이 되어 '나'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2연)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절망적 인식을 대변함.
웃으며 앞장을 서는 그림자(5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한 화자가 지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환기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연작 시집 『초토의 시』

시집 『초토의 시』는 1956년 청구출판사에서 발간한 시집으로, 「초토의 시 1」에서 「초토의 시 15」까지 연작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작들은 구상 시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작품이라고 평가받는데, 특히 전쟁을 소재로 한 많은 시들이 반공 이데올로기로 점철되어 있거나 허무적 감상에 그친 것에 비해, 이 연작은 민족의 비극을 나름의 역사의를 가지고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대척적인 위치에 서게 한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

■ 「초토의 시」 연작 중 다른 작품 읽어 보기

오호, 여기 출지어 누웠는 녀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워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떼마져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 너그러운 것이로다.

이곳서 나와 너희의 녀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 땅은 삼십(三十) 리면
가로막히고

무인공산의 적막만이
천만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람 속에 깃들어 있다.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 북(北)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올려오는 포성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恩怨)의 무덤 앞에
목 놓아 버린다.

— 구상, 「초토의 시 8— 적군 묘지 앞에서」

(가) 오월 소식_정지용

EBS 수능특강 문학 084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편지를 보낸 이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낸 시로, 1927년 6월 '오월 소식'을 발표할 당시 시의 말미에 '1927. 5. 경도'라고 써여 있었던 것을 통해 정지용이 일본 경도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쓴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래어나 외국어의 사용,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 비유적 표현 등을 통해 정지용만의 모더니즘적인 감성을 엿볼 수 있다.

주 제 편지를 보낸 그리운 이에 대한 그리움

오동나무꽃으로 불 밝힌 이곳 첫여름이 그림지 아니한가?

의문의 방식: 그리움의 정서 강조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그리운 이에 대한 기억이 꿈, 행복으로 느껴짐.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거리는구나.

그리움의 대상인 '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함.

▶ 1연: 그리운 사람에 대한 화자의 기억

모처럼 만에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리어

화자의 정서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설거리나니.

편지를 읽으며 느끼는 '너'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

▶ 2연: 편지를 읽으며 느끼는 화자의 정서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편지를 보낸 이에 대해 달려가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 말줄임표를 활용한 정서 강조

▶ 3연: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

쾌활한 오월 벚타이가 내쳐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

어떤 일 끝에 더 나아가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우에 솟은,

그리운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

외따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나.

'너'가 있는 공간.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기에 낭만적인 공간으로 인식함.

●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외딴섬에 대한 배경 묘사와 이러한 섬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을 통해, 멀리 있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파악해야 함.

▶ 4연: 편지를 보낸 이를 찾아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

일본 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려 간

화자가 '너'를 그리워하는 이유

찌그만 이 페스탈로치야, 피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그리운 대상을 비유함.

날마다 밤마다 섬 돌레가 근심스런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은은히 밀려오는 듯 멀멀리 우는 오르간 소리.....

들릴 듯 말 듯한 멀리 - 시적 허용

▶ 5연: 편지를 보낸 이에 대한 그리움

●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화자는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는 먼 곳으로부터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인식함. 이는 파도 소리를 비유한 표현일 수도, 실제로 화자에게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음. 그리운 이로부터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화자가 경험하게 되는 소리임을 파악해야 함.

*종선: 큰 배에 딸린 작은 배.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오월 소식」의 모더니즘적 경향 문항 3 관련

오동나무꽃으로 불 밝힌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거리는구나
밤마다 섬 돌레가 근심스런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갈매기 같은 종선
페스탈로치야, 피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 감각적 이미지, 회화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함.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그리움, 애정을 드러냄.

포인트 2 화자의 정서 문항 2, 3 관련

- 모처럼 만에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리어
- 외따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나
- 이곳 첫여름이 그림지 아니한가?
-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거리는구나

반가움, 설렘

→ 대상에 대한 그리움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감각적 이미지

감각은 눈, 코, 귀, 혀, 피부와 같은 감각 기관을 통해 외부의 자극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를 읽을 때, 그 이미지가 어떤 감각을 통해 느껴지는지를 파악하면 감각적 이미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색, 명암, 모양, 움직임 등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 귀로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리나 의성어 등을 통해 제시하는 청각적 이미지, 코로 인식할 수 있는 냄새를 나타내는 시어나 시구를 통해 떠올릴 수 있는 후각적 이미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촉감을 나타내는 시어나 시구와 연결하여 제시하는 촉각적 이미지, 혀로 맛을 느낄 수 있는 시어나 시구를 통해 떠올릴 수 있는 미각적 이미지가 대표적이다. 또한 하나의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동시에 늘어놓는 복합적 이미지와,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하여 표현하는 공감각적 이미지 역시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감각적 이미지는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고, 대상을 구체화하기도 한다. 또 시적 정서나 분위기를 환기하는 역할도 한다.

■ 정지용의 문예 활동

휘문고등보통학교 1학년 때부터 문예 활동을 시작한 정지용은 졸업과 동시에 일본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에 입학했다. 6년간 일본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한국 문단과 일본 문단에 등단하여 시인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1929년 3월, 도시샤 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9월 모교인 휘문고보 영어 교사로 취임한 정지용은 1930년 『시문학』 동인에 가담하게 되면서 문단의 중심권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문학 잡지인 『문예 월간』과 『문학』에 연이어 작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정지용은 시문학사에서 자신의 첫 시집인 『정지용 시집』을 발간하게 된다. 1930년대 시단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정지용은 『문장』지의 시 분야 추천 위원으로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과 같은 청록파 시인을 비롯해 이한직, 박남수 등의 시인을 추천하였다. 정지용의 추천사는 당시 추천을 받으려는 시인 지망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지용 시인에 대해, 1930년대 그와 함께 한국 문단을 풍미한 김기림은 “지용은 조선 신시사상(新詩史上)에 새로운 시기를 그으려 한 선구자이며, 한국의 현대시가 지용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나)와사등* 김광균

EBS 수능특강 문학 084쪽

감상 포인트 이 시는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등장한 가스등을 소재로 현란한 도시의 야경 속에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화자의 내면을 그리고 있다. 참신한 비유와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현대인의 비극적이고 공허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도시의 밤을 배경으로 삶의 방향을 상실한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를 잘 드러내고 있다.

주 제 도시 문명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과 불안 의식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차단한—시적 허용 빈—시적 허용

내 호울로 어쩔 가라는 슬픈 신호나

홀로—시적 허용 의문의 방식 → 방향성을 상실한 화자의 비애감 강조

▶ 1연: 삶의 방향을 상실한 화자

긴—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해가 지는 장면을 날개를 접는 새에 비유함, 활유적 표현

늘어난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늘어난 고층 빌딩을 묘석에 비유함으로써 현대 문명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가 드러남.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도시의 야경을 어지럽게 늘어뜨린 잡초에 비유함으로써 현대 문명의 무질서함을 드러냄.

사념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차가움, 무질서한 도시 문명 속에서 어떠한 생각도 할 수 없게 됨.

근심하고 염려하는 따위의 여러 가지 생각

●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늘어난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를 통해 시의 배경이 되는 도시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음.



이를 통해 도시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해야 함.

▶ 2연: 도시 문명의 무질서함과 무생명성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공감각적 이미지: 시각의 촉각화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온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낮선—시적 허용 청각적 이미지

까닭도 없이 눈물겹거나

낮선 도시 문명 속에서 느끼는 비애, 절망감

▶ 3연: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비애와 절망감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군중 속에서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화자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화자의 주된 정서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고독한 현대인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표현함.

▶ 4연: 고독하고 쓸쓸한 현대인의 모습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1연과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

→ 삶의 방향을 상실한 현대인의 고독 반복, 강조

▶ 5연: 삶의 방향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

●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은 도시의 밤거리로, 도시 문명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고독감과 비애감이 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함.
- 1연과 5연에 유사한 시구를 배치하여 안정감을 주고, 반복을 통해 화자의 상실감을 강조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함.

*와사등: 석탄 가스를 도관에 흐르게 하여 불을 켜는 등.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와사등」에 사용된 표현 방식 문항 3 관련

감각적 이미지	-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 작가의 개성과 모더니즘적 경향이 드러남.
회화적 이미지	-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비유적 표현	- 늘어난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포인트 2 도시 문명과 화자의 정서 문항 1, 3 관련

도시 문명	화자의 정서
차단—한 등불	도시의 풍경을 차갑게 인식하여 쓸쓸함을 느낌.
늘어난 고층	'창백한 묘석'처럼 죽음의 이미지를 연상하고 삭막함을 느낌.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처럼 무질서함을 느낌.
슬픈 신호기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고독함을 느낌.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김광균 시인의 시적 경향

1926년 말부터 시를 발표하기 시작한 김광균이 문단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35년 비평가 김기림의 추천을 받은 이후부터이다. 김기림이 그해의 신인으로 김광균을 추천하면서 그의 시「오후의 구도」를 소개하였는데, 그의 데뷔작이 된 이 시를 김광균은 자신의 첫 시집인 『와사등』의 첫 작품에 배치할 정도로 많은 애착을 갖고 있었다. 김광균 시인의 시에 나타나는 시어의 독특한 표기법, 애상적 정서의 처리, 그리고 풍경화적 방법 등은 이후 그의 시의 특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는다. 김광균은 1982년 『계간 미술』지에 실린 '30년대의 화가와 시인들'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고흐의 「수차가 있는 가교」를 처음 보고 두 눈앞이 빠지는 것 같은 감동을 느낀 것도 그 무렵이다. 그때 느낀 유럽 회화에 대한 놀라움은 지금도 생생하다. 세계 미술 전집을 구하여, 거기 침몰하는 듯하여 나는 급속히 회화의 바다에 표류하기 시작했다. 시집보다 화집이 책상 위에 쌓이기 시작하였고, 내 정신세계의 새로운 영양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 같다.”

■ 와사등

와사등은 가스등을 일본어로 표현한 말로, 1830년대 일본에서 막부 시대부터 교류하던 네덜란드의 과학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gas'를 소리가 비슷한 한자어 '와사(瓦斯)'로 음차한 뒤, 여기에 '등(燈)'을 붙여 만들어졌다. 그리고 19세기 말 우리 국어에도 차용되어 현재 '석탄 가스를 도관에 흐르게 하여 불을 켜는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앞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드러내는 시이다. 화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서른 남은 해'가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덧없음을 느낀다. 큰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활력을 잃고 연륜만 쌓이는 초라한 삶을 살아왔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에 화자는 '육지'로 상징되는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열렬한 삶을 살기 위해 '섬'이라는 이상적 공간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주 제 초라한 삶에서 벗어나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휘날려 발아래 깔리는

하강의 이미지

서른 남은 해야.

화자의 지나온 삶

●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화자가 살아온 '서른 남은 해'를 '발아래 깔리는' '무너지는 꽃이파리'에 비유하여 표현함으로써 하강의 이미지가 환기되며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초라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음.

▶ 1연: 지나온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화자가 바라는 것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 2연: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한 채 쌓여 가는 연륜

갈매기처럼 꼬리 펴며

청유형 어미 사용(화자의 의지가 드러남)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 공간

▶ 3연: 이상적 공간으로 가려는 소망과 의지

비췌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지는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이상적 공간의 아름다운 자연물

●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비췌빛', '눈빛'이라는 시각적 이미지의 사용을 통해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공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형상화함.

▶ 4연: 아름다운 이상적 공간의 모습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 버리고

과거의 삶과의 단절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열정적 삶의 의지

▶ 5연: 과거와 단절한 채 열렬한 삶을 살하고자 하는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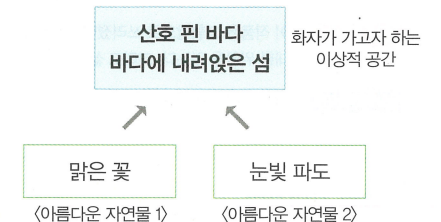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연륜」의 표현상 특징 문항 1 관련

비유법	'꽃이파리처럼', '구름같이', '갈매기처럼', '불꽃처럼'
감각적 이미지	'비췌빛 하늘', '맑기도 하리라',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의지적 어조	'섬으로 가자', '열렬히 살리라'

포인트 2 「연륜」에 제시된 이상적 공간 문항 3 관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지나온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새로운 삶의 의지

지나온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

- 1연: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발아래 깔리는'
- 2연: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 5연: '초라한 경력', '주름 잡히는 연륜'

지나온 삶에 초라하게 침잠했던 삶, 희망이 없는 삶으로 인식함.

새로운 삶의 의지

- 3연: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 5연: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아름다운 이상적 공간에 가려는 의지와 과거와 단절한 채 열렬히 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냄.

EBS Q&A

Q 시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항 1, 3 관련

A 비유적 표현은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 원관념이나 원래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도록 해 주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 시에서 초라하게 쇠락하는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 화자가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나, 자유롭고 풍성하게 피어나기를 바랐던 화자의 꿈을 '구름같이 피려던 뜻'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통해 비유적 표현의 목적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시에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하였다면, 비유적 표현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나 원관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그 의미와 효과를 파악하며 시를 감상해야 합니다.

(나) 정릉 살면서 - 박재산

EBS 수능특강 문학 087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고혈압으로 쓰러졌던 시인이 건강을 회복한 후 정릉에 살면서 쓴 시이다. 화자는 바람, 햇빛, 실개천과 같은 자연을 통해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위안을 얻는다. 그리고 삶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자연 속에서 얻게 되는 삶의 위안과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

솔잎 사이사이

아주 빗질이 잘된 **바람**이 □ **의인화된 자연물(화자를 위안하고 보살피는 소중한 존재)**

내 뇌혈관에 새로 닿아 와서는

그동안 허술했던

성찰 ①

목숨의 운영을 잘해 보라 일러 주고 있고...

시인이 고혈압으로 쓰러졌던 상황을 반영

▶ 1연: 목숨의 운영을 잘해 보라는 바람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1연의 '바람', 2연의 '햇빛', 3연의 '실개천'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을 파악해야 함.

살 끝에는 온통

금싸라기 햇빛이

시각적 이미지

내 잘못 살아온 서른여섯 해를

성찰 ②

뒹어서 **쓰다듬어 주고 있고...**

촉각적 이미지

▶ 2연: 잘못 살아온 삶을 뒹고 쓰다듬어 주는 햇빛

문제 해결 키 문항 3 관련

2연의 '금싸라기', 3연의 '말갈계'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의 사용이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파악해야 함.

그뿐인가,

시름으로 고인

성찰 ③

내 간장(肝臟) 안 웅덩이,를

세월의 동생 **실개천**이

말갈계 씻어 주며 흐르고 있고...

시각적 이미지

▶ 3연: 간장 안 웅덩이를 씻어 주는 실개천

친구여,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이 눈물 나게 넘치는 자산(資産)을

자연물(바람, 햇빛, 실개천 등)

혼자 아껴서 곱게 가지리로다.

화자의 의지가 드러남.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화자의 심리가 드러남.)

▶ 4연: 소중한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정릉 살면서」의 표현상 특징 문항 1 관련

동일한 종결 표현 반복	'~고 있고...'
감각적 이미지	'금싸라기 햇빛', '쓰다듬어 주고', '말갈계 씻어 주며'
의인법	'바람이 ~ 일러 주고 있고', '햇빛이 ~ 쓰다듬어 주고 있고', '세월의 동생 실개천이 ~ 씻어 주며'
의지적 어조	'혼자 아껴서 곱게 가지리로다'

포인트 2 과거의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 문항 3 관련

1연	목숨을 허술하게 관리해 옴.
2연	서른여섯 해를 잘못 살아옴.
3연	시름 속에서 살아옴.

→ 지금까지 살아온 서른여섯 해 동안 건강을 돌보지 않고 걱정과 고민 속에 잘못 살아옴.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정릉 살면서」에 사용된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 문항 2 관련

빗질이 잘된 바람	화자에게 목숨의 운영을 잘해 보라고 일러 준다고 인식함.	→	화자의 주관적 인식 자연물(자연 현상)을, 화자의 삶을 보살피며 주고 걱정해 주며 위안하는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자 함.
금싸라기 햇빛	잘못 살아온 화자의 삶을 뒹어서 쓰다듬어 주고 있다고 인식함.		
실개천	화자의 시름을 말갈계 씻어 준다고 인식함.		

■ 「정릉 살면서」의 창작 배경

「정릉 살면서」는 1970년 발간된 박재산의 제2시집 『햇빛 속에서』에 수록된 작품이다. 시인은 정릉동에 거주하면서 화가 이중섭의 편지글을 모아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편의 시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고혈압으로 쓰러졌던 박재산은 병중에 겪은 고뇌와, 건강을 회복한 후 다시 햇빛을 우려러볼 수 있게 된 기쁨을 담아 여러 편의 시를 창작하였고, 이러한 시를 묶어 『햇빛 속에서』라는 시집을 발표하였다. 그중 「정릉 살면서」는 1968년 병세를 회복한 후 쓴 시로 정릉 배밭골의 정취를 그리고 있다. 특히 바람, 햇빛, 실개천과 같은 정릉의 자연은 화자를 보듬어 주는 존재로 등장하며,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자연을 소중한 삶의 자산이라고 여기며 감사함을 드러내고 있다.

EBS Q&A

Q 시를 효과적으로 감상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시인 관련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우리 현대시 중에는 시인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나, 시인을 둘러싼 사회·역사적 맥락을 알아 두면 감상이 용이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인이 살아온 삶이나 시인을 둘러싼 사회·역사적 맥락이 작품 해석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 시를 감상하며 시인에 대한 정보나 사회·역사적 맥락을 알아 두면 시인의 문학 세계와 작품 경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인과 관련하여 알아 두면 좋은 정보로는 시인의 고향과 성장 과정, 교육 경험, 병력, 가족사, 문학 활동 시기, 문학 작품 경향 등이 있습니다. 또 시인과 관련하여 알아 두면 좋은 사회·역사적 맥락으로는 시인이 살던 시기의 사회적·역사적 사건이나 변화 등이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극한의 현실 상황 속에서도 꽃이 피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비 한 방울 나리잖는', '북쪽 쓴도라'와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봄이 오면 꽃이 피어나리라는 희망을 '저바리지 못할 약속'으로 노래하여 극한적 상황이 극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꽃'은 봄날의 희망과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넘어서 자유가 있는 미래, 조국 광복의 희망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주 제 밝은 미래에 대한 신념과 의지

동쪽, 우리나라를 의미함.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극한의 공간, 희망이 사라진 부정적 현실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때에도

극한의 시간, 희망이 사라진 부정적 현실

오히려 꽃은 빨갭게 피지 않는가

설의법, 극한 상황에서 빨갭게 피는 꽃의 속성을 인식하도록 함.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어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색채어를 활용하여 '꽃'으로 상징되는 강인한 생명력과 현실 극복의 의지를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형상화함.

북(北)쪽 쓴도라* 에도 찬 새벽은

부정적 현실, 시련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자거려

밝은 미래, 희망, 화자가 품고 있는 희망, 현실 극복의 의지

제비 떼 까맣게 날라오길 기다리나니

색채어를 활용하여 '제비 떼'로 상징되는 희망의 정도를 색채 이미지로 구체화함.

마침내 저바리지 못할 약속(約束)이어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희망적 미래에 대한 믿음을 드러냄.

한 바다 북판 용솟음치는 곳

희망의 공간

바람결 따라 타고르는 꽃성(城)에는

나비처럼 취(醉)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아

미래의 시점에 희망을 이룬 존재, 조국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영탄적 표현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 '꽃'의 상징적 의미

시·공간적 배경

• 하늘도 다 끝남.

• 비 한 방울 나리잖음.

→ 불의한 현실에 처해 있는 화자에게 희망을 환기함.

꽃의 상태

빨갭게 피어남.

▶ 1연: 극한 상황에서도 피어나는 꽃

▶ 2연: 인고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를 기대함.

▶ 3연: 꽃이 피어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쁨

* 쓴도라: 툰드라(tundra). 스칸디나비아반도 북부에서부터 시베리아 북부, 알래스카 및 캐나다 북부에 걸쳐 타이가 지대의 북쪽 북극 해 연안에 분포하는 넓은 벌판.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 날이어, 약속이어, 불러 보노라

→ 영탄적 표현: 화자의 태도를 부각함.

빨갭게, 까맣게

→ 색채어 사용: 대상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냄.

나비처럼

→ 직유의 방식: 대상을 구체적 형상으로 제시함.

피지 않는가

→ 의문형 표현: 대상의 속성을 강조함.

포인트 2 화자의 현실 인식과 태도 문항 3 관련

일제 강점의 현실을 극한적으로 인식함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때

조국 광복을 염원함.

제비 떼 까맣게 날라오길 기다리나니

불의한 현실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함.

새벽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꽃」의 구성상 특징

이 시에서 각 연의 1~3행은 시적 상황을, 마지막 행은 시적 화자의 의지나 태도를 나타내는 선경후정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구조	1연	2연	3연
선경(1~3행)	극한의 상황에서 피는 꽃	인고 속에 새로운 생명 탄생 염원	꽃이 피어날 미래
후정(4행)	목숨을 꾸며 꽃을 피우려는 의지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쁨

■ 저항을 온몸으로 실천한 시인, 이육사

이육사를 흔히 저항 시인으로 부르지만, 그가 단순히 붓을 통해 일제에 저항 정신을 드러냈던 것은 아니다. 익히 알고 있듯 '육사'라는 필명은 그가 대구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의 수감 번호에서 따온 것이다. 그가 형무소에 수감된 이유는 항일 운동 때 문이었다. 그는 1925년에 형과 아우와 함께 대구에서 의열단에 가입하였다. 그러다 1927년에는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 대구 형무소에 투옥되었고, 1929년 광주 학생 운동, 1930년 대구 격문 사건 등에 연루되어 총 17차례 걸쳐 옥고를 치렀다. 이후에도 중국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이어 오다 1943년 서울에서 붙잡혀 베이징으로 송치되어 1944년 1월에 옥사하였다. 이처럼 치열하게 온몸으로 일본에 저항한 그에게 있어 일제 강점의 현실이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잖는'('꽃'), '서릿발 칼날진 그 위', '한 발 디딜 곳조차 없'('절정')는 극한의 상황으로 인식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EBS Q&A

Q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A 일반적으로 부정적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들은 단순히 부정적인 현실을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맞이하고픈 희망적 미래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에는 현실의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화자가 맞이하고 싶은 미래의 긍정적 이미지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반되는 두 이미지를 대조함으로써 현실의 부정성을 부각하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북쪽 쓴도라'나 '눈 속'과 같은 부정적 배경과 '새벽', '꽃 맹아리', '제비 떼'와 같이 희망적 이미지를 대조하여 일제 강점의 부정적 현실을 부각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희망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술을 빚을 때 쓰이는 발효제인 '누룩'을 의인화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역사를 진전시키는 민중의 저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누룩'은 알맞은 바람을 만나고 좋은 물을 만나면, 스스로 색이 문드러지지만 물과 함께 덩달아 끓어올라 '증', '기쁨', '해 솟는 얼굴'이 된다. 화자는 이런 누룩의 속성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억압적인 사회를 극복해 가는 민중의 모습을 구현하였다.

주제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민중의 저력

누룩 한 덩이가

술을 빚는 데 쓰는 발효제. 여기서는 민중을 상징함.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 의문형 표현의 반복 → 대상이 지닌 속성 강조, 운율 형성

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반복을 통해 시련을 강조함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연대의 중요성 강조

알맞은 바람 만나

누룩이 발효되기 위한 조건 ①

살며시 더운 가슴

누룩이 발효되기 위한 조건 ②

그 사랑을 알겠느냐

●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 대상을 지칭하는 대명사: '지'
사물인 '누룩'을 인격화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

▶ 1연: 누룩이 뜨는 까닭에 대한 인식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청각적 상상, 민중의 고난을 드러냄.

지 혼자서 찾는 길이

개인의 소망이 민중의 공동체적 소망이 됨을 드러냄.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희망

엄동설한 칼벌은 알고 있나니

엄酷的 현실, 군부 독재하의 현실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누룩의 자기희생적 모습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 2연: 누룩이 겪는 시련과 고통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누룩이 발효되는 시간, 민중의 인내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누룩이 발효되어 술이 되는 과정, 누룩의 자기희생적 모습

▶ 3연: 술이 되기 위한 누룩의 인내

지가 죽어 색이 문드러져

누룩이 발효되어 술이 되는 과정, 누룩의 자기희생적 모습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연대의 힘으로 희망을 여는 모습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누룩의 희생을 통해 얻은 긍정적 가치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 4연: 발효로 술이 되어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누룩

아 지금 감춰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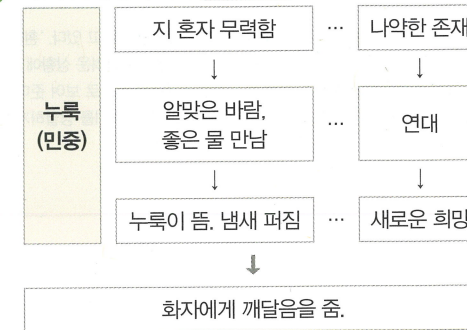
후각적 상상, 민중의 희생으로 얻어진 희망

▶ 5연: 발효되어 퍼지는 누룩과 술의 냄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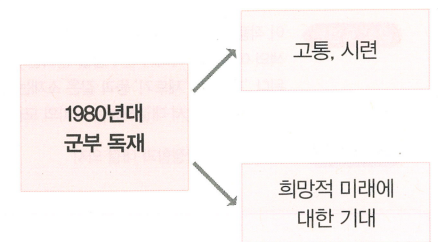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알아자

포인트 1 '누룩'의 상징적 의미 문항 2 관련



포인트 2 '누룩'에 담긴 시대 현실과 화자의 태도 문항 3 관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1980년대 군부 독재 속 민중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 최두석의 「성애꽃」

최두석의 「성애꽃」은 1980년대 군부 독재를 불의한 현실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애꽃」이라는 사물을 매개로 민중의 고귀함을 떠올리고 예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성부의 「누룩」과 엮어 읽을 만한 작품이다.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애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득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애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컥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애꽃」

EBS Q&A

Q 이 시에서 '-느냐'를 반복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나? 문항 1 관련

A 이 시는 마지막 연을 제외한 매 연에서 '알겠느냐', '들었느냐', '보았느냐' 등의 의문형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시에서 반복적인 표현은 시 전체에 운율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이 시에서 의문형 표현을 통해 묻고 있는 것은 '누룩'의 속성과 연관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청자에게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는 것은 청자로 하여금 '누룩'의 속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의문형 표현을 통해 청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누룩'의 속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가) 나비와 광장 - 김규동

EBS 수능특강 문학 093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나비와 나비를 둘러싼 냉혹한 현실을 통해 문명에 대한 비판과 인간성이 회복된 세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흰나비'가 환기하는 백색의 이미지는 나비가 순수함을 간직한 존재임을 보여 주며, 나비는 지치고 상처 입었으면서 어떤 희망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존재로 형상화된다. '활주로', '제트기' 등과 같은 소재는 현대 문명과 관련된 소재로 전쟁을 연상시키며, 나비가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마지막 연에서 이러한 현실에 맞서 대결하려는 나비의 모습은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절망 속에서도 순수함을 지켜 내고자 하는 의지를 강렬하게 보여 준다.

주 제 현대 문명의 비정함과 대결 의지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문명의 이미지

최후의 절정에서 흰나비는

연약하고 순수한 이미지

돌진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함.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굶어본다

현대 문명의 비극, 전쟁의 상흔을 암시함.

▶ 1연: 극한 상황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린 나비

뜨겁게 타오른

기계처럼 작열한 심장을 축일

나비가 한계 상황에 다다름.

한 모금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

생명력을 상실한 현대 문명의 삭막하고 절망적인 공간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건

눈알의 앞쪽 바깥쪽을 이루는 투명한 막 = 각막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나비의 방향 감각을 상실시킨 현대 문명

●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허망한 광장'의 성격

나비가 좌절감을 느끼는 공간임을 파악해야 함.

▶ 2연: 절망적 상황에 처한 나비

죽음, 절망의 이미지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흰 줄, 여기서는 전투기의 비행운을 가리킴.

숨 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현대 문명과 전쟁의 파괴적 이미지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磷光)의 조수에 밀려

나비가 한계 상황에 다다름.

흰나비는 말없이 이즈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다

현대 문명의 폭력성에 짓눌려 몸무림치는 모습

달, 태양 따위의 인력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바닷물

▶ 3연: 폭력적 현실에 짓눌려 날개를 파닥이는 나비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희망의 이미지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나비가 염원하는 희망적 세계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 4연: 희망적 미래에 대한 상상

신도 기적도 이미

신도 기적도 바랄 수 없는 나비의 절망적 상황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랜 유역—

강물이 흐르는 언저리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흰나비는

현대 문명의 파괴성이 소멸하는 지점

또 한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 본다.

현실에 맞서 대결하고자 함.

▶ 5연: 현실에 맞서 대결하려는 나비의 의지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나비의 순수함, 연약함 등과 같은 속성을 부각함.
- 직유법을 통해 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함.
- 의문형 진술을 통해 희망적 미래에 대한 기대나 회의감을 드러냄.

포인트 2 '나비'와 '광장'의 대립적 이미지 문항 2 관련

나비	VS	광장
'흰나비', '기계처럼 작열한 심장', '이즈러진 날개'		'현기증 나는 활주로', '한 모금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 '투명한 광선의 바다', '진공의 해안', '과묵한 묘지',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의 조수', '신도 기적도 이미 /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랜 유역'
극한 상황에 처한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의 훼손된 모습		삭막하고 파괴적인 성격을 띤 절망의 공간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김규동 시의 배경과 불안 의식

김규동 시의 주된 배경은 「나비와 광장」의 제목에서 이미 명시되어 있듯 도시이다. 여기서 광장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자 중심지라는 의미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이 거리에서 /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하늘과 태양만이 남아 있는 도시')에서 보듯, 광장 한복판에 선 시적 자아를 지배하는 감정은 불안이다. 이 불안함은 '불안한 세대의 기류 위에 떨어지는 불행한 저음'('화하(花河)의 밤')에서와 같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 곧 시대에 대한 불안과 연결된다. 전후의 황폐한 현실 앞에 마주한 주체의 심경을 권태와 서글픔, 허망함, 피로감 등으로 표현하는 김규동의 방식은, 주조된 피로한 주체의 형상 자체를 통해 시대를 문제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 오세영 외, 『한국 현대 시사』

EBS Q&A

Q 문명 비판이 무엇이고 「나비와 광장」은 어떤 점에서 문명 비판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항 3 관련

A 문명 비판이란, 현대 문명이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었지만 그 이면에 인간 소외와 정신적 빈곤이라는 어두운 측면이 있음을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명 비판 시들은 거대한 도시 문명 속에서 개인이 고유한 존엄성을 잃고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거나, 문명의 이기가 전쟁과 같은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인간성과 생명력의 회복을 모색합니다. 김규동의 「나비와 광장」도 이러한 문명 비판의 성격을 선명하게 보여 주는 작품입니다. '한 모금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 '또 한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고자 하는 '흰나비'는, 문명의 비정함에 맞서 순수성을 지켜 내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문명 비판 의식의 표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 민들레꽃 - 이형기

EBS 수능특강 문학 093쪽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민들레꽃을 통해 강인한 생명력과 허무에 맞서는 의지를 그려 내고 있다. 민들레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담담히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해 피어나는 존재로 묘사된다. 삶이 외롭고 덧없다 하더라도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허무를 삶의 한 부분으로 끌어안는 민들레의 태도는 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 준다. 화자는 민들레처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존재도 이러한 태도를 가진다면 '어떤 자로서도 켤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주 제 허무에 맞서 피어난 민들레에 대한 예찬

쪼그만 것이 / 노랗게 노랗게

민들레꽃 — 민들레의 생명력을 보여 줌.
전력을 다해 샛노랗게 피어 있다

▶ 1연: 전력을 다해 노랗게 피어난 민들레

아무 곳도 넘보지 않는다

자신의 한계를 수용함.
다만 혼자 /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아슬아슬

한 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

주어진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 2연: 주어진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피어난 민들레

바위 새를 비집거나 잡초 속이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음.
썩 뿌려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 / 터를 잡고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임.

● 문제 해결 키 문항 2 관련

'썩 뿌려진 그 자리'의 성격

↓
민들레가 수용적 자세를 드러내는 공간임을 파악해야 함.

▶ 3연: 주어진 장소를 자기 자리로 받아들이고 피어난 민들레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

어둠을 힘껏 밀어내는 떡잎

민들레가 꽃을 피워 내기 위한 과정

그리고 그것들이 한데 어울려

열심히 열심히 한 덧새

민들레꽃이 피어 있는 시간

▶ 4연: 뿌리 내리고 싹 틔우는 과정을 거쳐 덧새 동안 핀 민들레

세상에 그밖에는 할 일이 없어서

아주 노랗게 노랗게만 피는 꽃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꽃

민들레에게 주어진 숙명

▶ 5연: 노랗게 피었다가 질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민들레

쪼그만 것이지만 그 크기는

『』: 민들레꽃의 존재 가치, 역설법
어떤 자로서도 켤 수 없다 / 아 민들레!

『그래 봤자 /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

『』: 생의 허무조차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함.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

한 덧새를 집짓 영원인 양하고

최선을 다하여 생을 살아 내는 의지적 태도
보라 저기 민들레는 피어 있다
민들레꽃에 주목할 것을 요구함.

▶ 6연: 생의 허무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꿈꾸며 피어 있는 민들레

포인트 1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쪼그만 것', '노랗게', '열심히', '꽃', '민들레'

→ 시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시적 의미를 강화함.

'노랗게 노랗게 /
전력을 다해 샛노랗게 피어 있다'

→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민들레의 생명력을 부각함.

'아슬아슬'

→ 음성 상징어를 통해 민들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함.

'쪼그만 것이지만 그 크기는 /
어떤 자로서도 켤 수 없다'

→ 역설적 표현을 통해 민들레꽃의 존재 가치를 부각함.

'아 민들레!'

→ 감탄사로 영탄적 어조로 민들레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냄.

'보라'

→ 명령형 진술로 민들레꽃의 모습에 주목하라는 메시지를 부각함.

포인트 2 '민들레꽃'의 속성 문항 3 관련

크기가 작음.

주어진 한계를 수용함.

환경을 탓하지 않음.

민들레꽃

강인한 생명력을 지님.

최선을 다해 피어남.

허무에 굴복하지 않음.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이형기 시의 허무에 대한 인식 문항 3 관련

이형기 시의 일관된 주제 중의 하나는 존재 탐구와 허무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형기 시는 초기 시부터 후기 시까지 이러한 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이형기 시가 보여 주는 허무의 핵심에는 인간은 이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실존주의적 존재 의식이 깔려 있다. 이형기는 내던져진 존재로서 인간의 허무와 절망을 노래한다. 그러나 이형기 시는 종말론적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존재와 삶에 대한 달관과 긍정적 인식을 보여 준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사물과 세계에 대한 역설적 인식이 깔려 있다. 이형기는 분수나 파도, 민들레, 절벽 등 허무와 대결하고 있는 작은 존재들에 대한 역설적 인식을 통해 삶의 장엄함과 아름다움, 영원에 대한 갈망을 보여 준다.

— 유재천, 『이형기 시 연구』, 『배달말』 제45권

EBS Q&A

Q 현대시 두 작품을 비교, 감상하도록 하는 문항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문항 3 관련

A 현대시 두 작품을 세트로 묶어 출제할 때는 보통 표현 방식, 주제, 사회·문화적 맥락 등에서 접점이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고, 이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보기>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는 우선 <보기>를 통해 두 작품의 공통점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두 작품은 서로 다른 시기에 창작되었거나 구체적인 상황 설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통점은 보통 추상적인 수준에서 <보기>에 진술됩니다. 예를 들어, 문항 3의 <보기>를 보면 김규동의 「나비와 광장」과 이형기의 「민들레꽃」이 모두 '허무에 대한 인식과 대결'이라는 공통된 주제 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통점을 파악했다면, 다음으로 두 작품의 차이점, 즉 구체적인 형상화 방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비와 광장」은 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문명의 파괴성과 비극적 처지를 다루고 있는 반면, 「민들레꽃」은 보다 보편적인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생명의 운명적 한계와 이를 긍정하는 태도를 보여 줍니다. 이처럼 세트 문항에 접근할 때는 <보기>를 통해 우선 '추상적인 공통점'을 파악하고, 이후 각 작품이 지닌 '구체적인 상황과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 그 방을 생각하며 _ 김수영

EBS 수능특강 문학 096쪽

강상 포인트 이 작품은 시간이 지난 후 4·19 혁명 당시를 돌아보며 그사이 혁명 정신이 퇴색된 것에 대한 탄식을 드러낸 시이다. 1960년 10월경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책과 씁쓸함 속에서도 좌절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주 제 혁명 정신이 퇴색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래에 대한 기대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4·19 혁명이 실패했다는 생각을 함.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 과거에 지향하던 저항, 혁명의 가치를 이제는 공허하다고 느낌.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비록 과거의 방을 언급하며 '헛소리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싸우라'의 반복을 통해 시적 화자가 과거 지향하던 가치를 드러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 1연: 방을 바꾸고 좌절된 혁명을 떠올리는 '나'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자신이 지향하던 가치, 열정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화자의 현재: 혁명에 대한 냉소, 저항의 열정을 상실함.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 과거의 저항에 대해 공허하다고 느낌. 자연적 기억은 하고 있음.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그 가치들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음.

▶ 2연: 열정을 품었던 과거 그리고 이제는 달라진 '나'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반복을 통한 의미 강조

나는 이제 녹슬은 펜과 빠와 광기—

열정과 투지를 상실한 화자 자신의 모습을 비유함.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① 혁명이 좌절된 것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냉소 ② 혁명의 좌절을 다시 재산으로 삼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함.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좌절된 혁명조차 하나의 역사, 교훈일 수 있음.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 3연: 좌절과 실망을 재산으로 삼아갔다고 생각하는 '나'

유사한 시구를 반복, 변주하여 혁명의 과정을 재산으로 삼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화자의 의지 강조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어미의 변화를 통한 어조의 변화 = 화자의 태도 변화 암시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 '나'의 내면에 있는 냉소, 절망감은 여전히 남아 있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 열거, 반복을 통해 자신이 많은 것을 상실하였음을 강조함. + 그럼에도 희망이 남아 있음을 표현함.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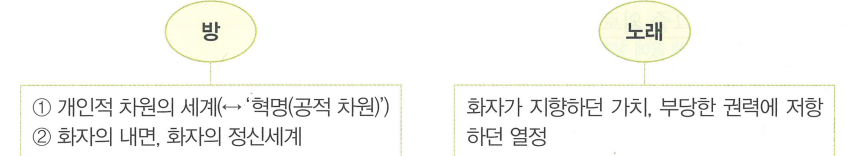
『』: 좌절감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진. (기대와 희망에 대한 냉소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함.)

▶ 4~6연: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지와 기대감

포인트 1 표현상의 특징 문항 1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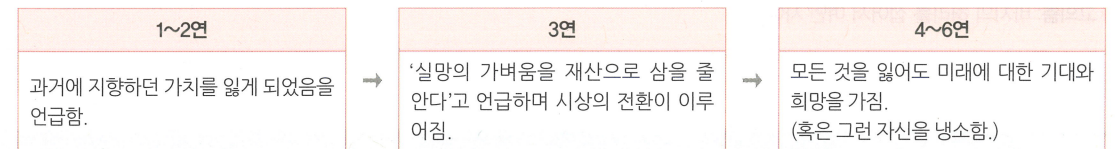
반복	•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 '그 방의 벽' • '헛소리처럼 아직도' • '이 가벼움' • '~을(를) 잃고'	→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의 상태와 비교하고 곱씹어 보는 화자의 상황을 강조함.
변주	•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 '바꾸어 버렸다' → '바꾸었지만'	→ 과거를 돌아보며 성찰을 통해 점차 변화하고 있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감각적 이미지	• '~라는 말이 / 헛소리처럼' • '녹슬은 펜' • '달콤한 의지' • '쓰디쓴 담뱃진 냄새'	→ 화자가 과거를 돌아보며 느끼는 정서의 변화를 강조함.
행간 걸침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 현재의 자신을 냉소적으로 관조하며 평가하고 있음을 강조함.

포인트 2 '방'과 '노래'의 의미 문항 2, 3 관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그 방을 생각하며」의 사상 전개



■ 4·19 혁명과 김수영

1960년 부정 선거에 반발하며 일어난 4·19 혁명의 결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자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싹개로 하자 / 그 지긋지긋한 놈의 사진을 떼어서 / 조용히 개굴창에 넣고 / 씹어진 어제와 결별하자 / 그놈의 동상이 선 곳에는 / 민주주의의 첫 기둥을 세우고”(『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싹개로 하자』, 60년 4월)라고 노래했던 김수영 시인은 4·19 혁명의 흐름 속에서 그 혁명 정신과 사회 개혁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문학으로 형상화했던 시인이다. 4·19 혁명이 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노래한 『푸른 하늘을』에서는 “자유를 위해서 /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 사람이면 알지 / 어째서 자유에는 /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 가를 / 혁명은 / 왜 고독한 것인가를”(『푸른 하늘을』, 60년 6월)이라고 노래하기도 한다. 이 작품 『그 방을 생각하며』는 60년 10월에 혁명 후 그 혁명 정신이 퇴색하고 있음에 실망하며 쓴 시로, 이 시의 결말부에 드러난 기쁨의 정서는 그럼에도 다시 소박하게 품기 시작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한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하고, 그 희망을 품는 것에 대해 냉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광경을 상상하며 정체성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형상화한 시이다. 시적 화자는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자신이 품고 있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달빛', '구름 개인 들판'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어둡던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주 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상황을 가정하며 자신의 의지를 보임.

내 보여 주리라.

저 얼은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도치를 활용하여 '달빛', '그림자'에 주목하게 함.

얼은 들판을 걸어가느 한 그림자를.

지금까지 내 생각해 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문

친구 몇몇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정체성에 대한 탐색 끝에 찾게 된 참자아

보여 주게 되리.

자신이 가정하던 상황에 대처하는 방향에 대한 다짐

오랫동안 네 여머온 고의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가 감춰 왔던 내면을 들여다봄.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이제는 자신을 당당히 내보이려고 함.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가 때

얼은 들판(적박한 현실)에서 전환된 새로운 국면

햇볕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달빛.

▶10~12행: 진취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의지

감추지 않고 드러낸 자신의 모습 밝고 환한 모습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

● 문제 해결 키 문항 1 관련

얼은 들판 위에 걸어가느 한 사람이 시의 3~4행과 10~12행에서 각각 다르게 묘사되어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음. 두 부분에서 묘사된 사람의 차이에 주목해서 읽어 보아야 함.

*고의춤: 바지의 허리를 접어서 여민 사이.

핵심 개념 이것만은 꼭 익히자

포인트 1 시적 화자의 정서 변화와 시적 공간 문항 2, 3 관련

시적 화자의 정서	과거의 자신에 대한 자문	정서의 전환점	앞으로에 대한 다짐
관련 시구	'지금까지 ~ 무엇인가', '오랫동안 ~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 보여 주게 되리'	'외로움이 아닌 길', '구름 개인 들판', '햇볕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달빛'
공간의 변화	얼은 들판		구름 개인 들판, 달빛 가득한 들판

포인트 2 감각적 이미지를 통한 화자의 내면 형상화

감각적 이미지 제시

- 시각: 들판, 달빛, 한 그림자
- 촉각: 얼은, 햇볕은

→ 광활하고 차가운 들판에서 달빛을 환히 받으며, 외롭지만 당당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 내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낙관을 담은 태도를 자연물의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함.

배경지식 더 알아보기

■ 황동규와 모더니즘

모더니즘 시인들은 언어와 형식에 대한 실험을 통해 관념적 세계, 섬세한 내면을 감각적 언어를 통해 형상화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 왔다. 그중에서도 황동규 시인의 시는 현대적 지식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섬세한 내면을 이미지즘적 기법으로 형상화하는 시가 많다. 그의 시에서 언급되는 사물, 자연물, 특정 공간 등은 시인의 내면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동원된 것들이다.

■ 황동규 시인의 초기 시 세계에서의 '겨울'

황동규 시인의 최초 시집 『어떤 개인 날』(1961)에는 청년으로서 겪던 정신적 고뇌와 방향이 반영되어 있다. 시집 전반에 밤, 추위, 겨울, 눈 등의 차갑고 어두운 이미지의 시어들이 종종 언급되는데, 이 때문에 시집의 지배적 정서는 차갑고 쓸쓸함, 황량한 가운데 막막함 등이다. 이는 전후(戰後) 세대 청년으로서의 불안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BS Q&A

Q 시를 읽을 때 시에 드러난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문항 2 관련

A 시인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거나 주제 의식, 상징적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특정 공간을 선택하여 시상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공간이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드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는 화자는 무한한 공간, 숙박 없는 자유를 노래할 수도 있고 어둡고 컴컴한 미지의 세계를 상징하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시인들은 시적 화자가 위치한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시적 화자가 정서적 전환의 계기를 만났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의 '방', (나)의 '들판'은 시적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한 장소들입니다. (가)의 '방'은 혁명이라는 사회적·공적 가치와 대조되는 개인적 차원의 공간으로서, 시적 화자의 내면을 드러냄과 동시에 거창한 사회 개혁을 이루지 못했음을 자조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 등장하였습니다. (나)의 '들판'은 광활하고 탁 트인 공간으로, 이 공간에서 화자는 자아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